



국립한글방송통신대학교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目 次

☞ 문자와 형상의 만남: 프랑스 ‘화가의 책’과 ‘아티스트 북’의 역사적 전개와 미학	심지영 1
☞ 제3자성의 본질에 대한 한국과 이탈리아 간 비교 연구: 사회적 경제의 국가 리더십 특 성을 중심으로	문병기 21
☞ 자본시장 동조화와 시스템 리스크	김상수 47
☞ 글로벌 시민성 구성요소로서의 시민교육: 시민교육의 개념적 모순과 재개념화	정민승 63
☞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해결 행동 분석:과의존 요인과 부모 중재 유형의 상호작용 을 중심으로	이봉민 81
☞ 어머니의 취업여부, 정서표현성, 자율적지지 및 놀이참여시간에 따른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	김진경 101

CONTENTS

☞ The Encounter of Text and Image: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Aesthetics of French ‘Livres de Peintres’ and ‘Artist’s Books’ Jiyoung SHIM	1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Italy on the Nature of Thirdness: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Leadership in the Social Economy MOON, BYUNG-GI	21
☞ The Co-movement of the Capital Markets and Systemic Risk Kim, Sang-Su	47
☞ Civic education as a key element of global citizenship: Conceptual contradictions of civic education and re-conceptualization Minseung Jung	63
☞ An Analysis of Adolescents’ Behavioral Efforts to Resolve Smartphone Overdependence: Focus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Overdependence Factors and Parental Mediation Types Lee, Bong Min	81
☞ Creativ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ccording to mother's employment status, emotional expressiveness, autonomy support and play participation time KIN JIN-KYUNG	101

문자와 형상의 만남: 프랑스 ‘화가의 책’과 ‘아티스트 북’의 역사적 전개와 미학*

심지영**

The Encounter of Text and Image: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Aesthetics of
French ‘Livres de Peintres’ and ‘Artist’s Books’

Jiyoung SHIM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V. 맺음말 |
| II. 삽화 책의 역사와 화가들의 역할 | 참고문헌 |
| III. ‘화가의 책’의 등장 | 논문초록 |
| IV. ‘아티스트 북’의 발전 | |

I. 머리말

서양에서 책은 전통적으로 텍스트를 위한 공간이다. 18세기 말, 칸트는 『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시각적인 언어 기호들을 수단으로 하여,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담론을 소개해 놓은 글’이라는 답을 제시했다(Kant, 1976). 이 내용은 디드로가 백과사전에서 기술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두 철학자 모두 생각과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은 언어 기호를 바탕으로 한 ‘텍스트’뿐이라는 좁은 의견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10퍼센트의 책에서만 그림을 볼 수 있었고, 그것도 대부분 단 한 장의 권두화가 실렸던 시대였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장바티스트 우드리(Oudry)가 삽화를 맡았던 라퐁텐의 『우화집』이나 3,000여 장의 그림이 있었던 백과사전은 매우 예외적인 작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의 전통에서 책은 화가가 접근하기에 좋은 매체가 아니었다. 이미지는 텍스트에 비해 부수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기독교 시대 초기에 코텍스 형식이 등장한 이래 책은 접어서 꿰맨 여러 장의 종이를 한데 모으고 그 위를 표지로 덮은 형태를 하고 있어, 폴 클로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압축된 벽돌 같은 물건”이었다(Claudel, 1928). 책은 화가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할애하지 못했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외연수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부교수.

고 제본된 페이지 속에 그림을 흠여놓고 감췄다. 또한 책은 16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지속된 미학적 관습에 따라, 이미지에 특정한 형식과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예술가들을 제약했는데, 회화나 데생 작품을 수백 혹은 수천 부 찍어낼 수 있게 해주는 목판이나 동판 인쇄라는 기술적 제약에 예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작가의 필치는 물론, 예술 작품의 모방 불가능한 아우라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복제품만이 남게 된다고 여겨졌다. 게다가 과거 서구에서 이미지가 담당한 역할은 주로 교육, 감동, 신앙과 지식의 확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는 늘 텍스트를 보완하는 기능적 역할을 우선시했으며 예술성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인해, 수 세기 동안 화가들은 인쇄된 책 작업에 쉽게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갤러리도 박물관도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책은 예술가들에게 잠재력이 있는 매체로 변화하게 된다. 즉, 작품을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적 시도도 가능했으며, 출판이 활발했던 시기에는 삽화를 통해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매력으로 점차 화가들이 책이라는 매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화가들이 책에 참여한 작업이 최초로 예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36년 뉴욕에서 ‘화가의 책(livre de peintre)’이라는 이름의 전시가 열린 때부터다. 이 전시를 시작으로 이 책들이 일반 회화 작품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실제로 이런 종류의 책을 기획했던 편집자들은 출판업에 관계된 사람이기보다는 갤러리 운영자나 미술상(畫商)이었으며, 책에는 대개 화가들의 원본 판화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일반 미술품에 버금가는 고가에 거래될 수 있었고, 장서 수집가들은 물론 그림 판매상들의 수집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당시 책의 사정과는 확연히 다르게 오늘날의 책은 텍스트와 이미지가 공존하는 공간이자 동시대 예술가들의 표현의 장이며, 현대 그래픽 아트的重要한 매체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책이 화가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 시기부터 화가들은 동시대 시인들의 텍스트를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¹⁾ 하면서 책에 활발히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책을 텍스트를 위한 공간만이 아닌 이미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이런 역사적 변화 과정에 주목하여 화가들이 어떻게 책을 예술적 공간으로 삼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화가들이 책의 형식, 지면 구성, 이미지의 역할 등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고 책을 새로운 예술로 만들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는 역사적 관점의 연구가 될 것이나, 화가의 작업이 갖는 미학적 가치의 변화에도 주목해 볼 것이다. 동시에 이런 작업을 지칭하는 명칭들, 즉 ‘삽화책’, ‘화가의 책’, ‘아티스트 북’, ‘고급 장정본’ 등 다양한 장르의 범위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명칭은 모두 인쇄물을 매개로 한 화가의 창작물로, 시대별 이미지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본 연구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책의 전통을 연구한 미셸 므로(Melot), 아니 르농시아(Renonciat), 이브 페레(Peyré), 안느 뫼글랭 델크루아(Moeglin-Delcroix)의 저작을 주로 참고했다. 연구자별 전공 시대와 책의 장르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프랑스 삽화책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하고자 하며,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만한 중요한 작품들을 선정하여 이미지의 역할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프랑스어나 영어의 ‘illustration’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삽화’라는 한자어 혹은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일러스트’라는 외래어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illustrer’라는 동사가 라틴어의 *illustrare*, 즉 프랑스어로 <éclairer, illuminer; mettre en lumière>의 의미로서, ‘밝게 해주다’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끼워 넣은 그림이라는 뜻의 ‘삽화’라는 번역은 그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일러스트’라는 용어는 패션이나 디자인에서 장식 그림이나 간단한 데생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프랑스어의 ‘illustration’의 개념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예술로서의 ‘illustration’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주제에 대해 그래픽적으로 재현하여 덧붙이는 것, 혹은 일러스트레이션의 형태로 어떤 것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쓰이는 것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우리말 번역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해 보이지만, 우선은 ‘일러스트레이션’ 혹은 상황에 따라 ‘삽화’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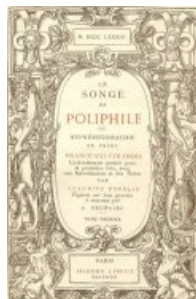
II. 삽화 책의 역사와 화가들의 역할

프랑스에서 삽화가 실린 최초의 인쇄본은 1478년경 리옹에서 등장했다. 몇 년 뒤에는 파리에서도 삽화가 실린 책이 출판되는데, 우화, 소설, 기술 과학서, 종교 서적, 역사 서적 등 거의 모든 장르의 책에서 삽화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에 이미지는 주로 교육적 목적,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 기억을 돕는 도구로 기능했을 뿐, 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당시의 사상적 배경이나 거칠었던 목판 인쇄술의 수준 때문에, 화가들은 책 작업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책 속 이미지의 미적 수준도 높지 않았다.



<그림1> 『인류 혈통의 구원의 거울』, 작자미상, 리옹, 마르탱 후스 인쇄, 1478년

그러나 1520년경부터 이탈리아에서 유입된 르네상스 예술의 영향으로 책 고유의 예술이 형성되고 발전하기 시작한다. 르네상스는 책의 장식, 서체, 삽화를 변화시켰다. 당시의 유명한 화가들이 책 작업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저자가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다. 목판화의 선은 더 자연스러워지고, 원근법과 빛의 효과가 더욱 정교하게 표현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폴리필로의 꿈Le Songe de Poliphile』이다. 원본은 1499년 베네치아에서 인쇄되었으며, 목판화 제작에는 만테냐나 벨리니의 제자가 참여했으리라 추정된다. 텍스트의 저자는 베네치아의 수도승 프란체스코 콜로나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어판은 1546년 파리에서 장 마르탱이 번역하고 각색하여 출간되었는데, 초기 르네상스 목판화가 들어있는 이 책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쇄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총 100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목판화들이 이야기의 장면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건축, 의례, 신화적 요소를 시각적 도감처럼 보여준다. 프랑스어판은 단순 번역을 넘어, 프랑스의 르네상스 수용의 결정판으로 다뤄진다.



<그림2> 『폴리필로의 꿈』 프랑스어판, 장 마르탱 번역, 파리, 1546년

『폴리필로의 꿈』에서는 정교한 타이포그래피와 페이지 구성, 텍스트의 이니셜 장식, 여백, 삽화 등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책 자체가 하나의 시각 예술품처럼 보인다. 텍스트와 이미지의 결합

방식에서, 삽화가 텍스트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텍스트가 삽화를 해설하며 의미를 덧씌우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북유럽에서는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의 작업이 당시 책 예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로 꼽힌다. 뒤러의 『묵시록』은 1498년 바젤에서 출간되었으며, 페이지를 가득 채운 목판화가 실렸다. 이 책은 수 세기 동안 유럽의 종교적 상상력을 형성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저작이 되었다. 페스트, 전쟁, 기근, 죽음을 퍼뜨리는 네 기사의 도상은 오늘날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림3> <묵시록의 네 기사들>, 『묵시록』, 알브레히트 뒤러, 바젤, 1498년

독일과 스위스의 삽화는 프랑스의 출판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16세기 전반, 출판의 중심지였던 리옹에서는 독일과 스위스 작가들의 목판화가 인쇄되었다. 1538년 바젤에서 화가 한스 홀바인이 제작한 『죽음의 무도Danse des morts』, 『죽음의 형상과 이야기들Les Simulachres et historiées faces de la Mort』 목판화 연작은 1562년 리옹에서 인쇄되고 출판되었으며 유럽 전역에 널리 알려졌다.



<그림4> 『죽음의 형상과 이야기들』, 한스 홀바인, 리옹, 1538년

이탈리아 르네상스라는 예술적 요인 이외에 기술적 요인도 화가들을 책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목판 대신 동판 인쇄술이 발명된 것이다. 동판 인쇄는 오목 판각, 즉 구리판에 뒤편으로 선을 새겨 넣고 에칭 기법으로 구리판을 부식시키는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화가들은 목판에서 보다 훨씬 세련된 표현을 할 수 있고 회화적 효과도 구현할 수 있었다. 16세기에 동판 인쇄가 점차 확산하면서 17세기에 이르면 대중서 이외의 책에서는 동판화가 주로 사용되었다.

동판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전에 없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동판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활판 인쇄기와는 다른 전용 프레스가 필요했다. 따라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각각 따로 찍어야 했고, 그에 따른 맞춤과 제작 비용 문제가 뒤따랐다. 이러한 어려움은 콜베르(Colbert)가 인쇄 관련 직능조합에 부과한 규제로 더욱 커졌다²⁾. 규제에 따라 인쇄인은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되었다. 즉 활자를 찍는 인쇄공, 목판 이미지를 인쇄하는 인쇄공, 동판 이미지를 인쇄하는 인쇄공으로 철저히 분리되었다. 활판 인쇄공은 이미지를 찍을 수 없고, 동판 인쇄공은 텍스트를 인쇄할 수 없었다. 이런 기술적,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책 속의 텍스트와 이미지는 분리되었다. 삽화의 수는 현저히 줄었으며, 이미지는 일정한 위치에 고정되었다. 즉 책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권두화(frontispice), 표지의 문양 fleuron, 장의 첫머리 장식(bandeau), 끝 장식(cul-de-lampe), 본문 밖에 삽입되는 독립 판화(estampe en hors texte) 등이 그것이다.



<그림5> <이 그림은 동판을 어떻게 인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보스, 동판화, 1642년

17세기 초에 등장한 권두화는 예술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루이 14세 집권기에는 베르길리우스, 호라티우스와 같은 고전을 위한 판본, 문장(紋章)이나 왕권의 장엄함(왕의 행렬, 축제, 마장 경기, 전투 장면 등)을 담은 장서 예술이 발전했다. 이때 책은 하나의 ‘스펙터클’이 되었고, 권두화는 그 장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았는데 곧 하나의 독립된 회화적 작품처럼 격상되었다.

1640년 리슐리외가 루브르에 설립한 왕립인쇄소가 문을 열었고, 초기 간행물의 권두화 제작이 아카데미의 화가들, 특히 니콜라 푸생에게 의뢰되었다. 이탈리아에서 체류하다 프랑스로 소환된 푸생은 호라티우스, 베르길리우스, 성서의 권두화를 제작했다. 또한 베르사유 궁전 장식의 총책임자이자 왕실 제1화가였던 샤를 르브룅에게 오비디우스 작품의 권두화가 위촉되었다. 당시 권두화는 저자, 영웅, 신, 혹은 왕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장치였다. 화가는 이를 하나의 회화 작품처럼 다루었고, 푸생의 경우에는 조각적 성격까지 부여했다.

2) 루이 14세 절대왕정의 핵심 실무자였던 콜베르는 166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 인쇄업과 서적 유통을 국가적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직능별 규제를 체계화했다. 그는 모든 인쇄소와 인쇄업자를 왕실의 허가 없이는 합법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인쇄, 조판, 목판 인쇄, 동판 인쇄 등 여러 직능 간 경계를 길드 및 법적 규정에 의해 분명히 구분했다.



<그림6> (좌) 『호라티우스의 작품집』, 파리, 왕립인쇄소, 니콜라 푸생의 드로잉, 클로드 멜랑의 동판, 1642년
<그림7> (우)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 파리, 왕립인쇄소, 샤를 르브룅의 드로잉, 세바스티앙 르클레르의 동판, 1679년

17세기 프랑스의 삽화 책은 당대 화풍을 주도했던 루벤스의 영향을 받아, 차가운 알레고리 위주의 구성에서 벗어나 강렬한 정서적 미학을 추구했다. 고전주의 시대의 책 예술은 동시대의 회화 예술 덕분에 미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화가와 책이라는 두 세계는 여전히 서로 가까워지기 어려웠다. 화가들은 책이 요구하는 여러 규율과 잘 맞지 않았다. 예컨대 푸생은 왕립인쇄소의 엄격한 지시 사항들에 불만을 느끼고, 책 작업을 담당한 지 1년 만에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갔다. 화가들은 대개 자신의 드로잉을 판화로 옮기는 작업을 전문 조각가에게 위임했고, 작업도 권두화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책 제작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이들은 화가라기보다는 조각가였다. 앞의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조각가 클로드 멜랑, 아브라함 보스, 아카데미에서 판화 교수를 지낸 세바스티앙 르클레르 등은, 회화적 구성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판각까지 단독으로 작업했다. 화가들이 재현 주제와 방식에 대해 고민했다면, 이들은 이미지의 배치, 형상화, 가독성의 문제를 우선시했다. 두 세계 사이에는 당시의 위계, 즉 ‘소(小)예술’과 ‘대(大)예술’을 가르는 엄격한 위계가 존재했다.

18세기에 들어서면, 직업 화가들이 다시 책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문학 작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화가들은 왕실의 주문이 아니라 부유층을 위한 ‘고급 장정본’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게 되었다. 화가들에게 책은 여러 이점을 제공했다. 삽화가 실린 책은 자신의 회화를 널리 알리는 매개가 되었고, 새로운 회화적 미학을 보여줌으로써 잠재 고객층을 넓힐 수 있는 홍보 수단이 되었다. 베르길리우스, 몰리에르, 세르반테스, 라퐁텐 등과 같은 문학의 대가들을 일러스트레이션하는 작업은 화가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림8> (좌) 코르네유의 희곡 『로도곤』을 위한 프랑수아 부세의 드로잉 1759년
 <그림9> (우) 코르네유의 희곡 『로도곤』을 위한 풍파두르 후작 부인의 판화, 동판 에칭, 1760년

프랑수아 부세(Boucher)의 『로도곤』을 위한 드로잉은 1759년 풍파두르 부인의 주문으로 제작되었고, 1760년 풍파두르 부인에 의해 책의 권두화로 판각되었다. 베르사유에서 인쇄하면서 니콜라 코상(Cochin)이 수정했다는 점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궁정 예술 제작이 단독 제작이 아니라 협업 제작 공정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권두화는 극의 클라이맥스를 재현하며, 부세가 두 개의 시점에서 그린 장면을 하나의 판화로 결합했다³⁾. 이는 곧 판화가 무대의 시간성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1) 살인의 혐의와 고발이 폭발하는 국면, (2) 독배로 진실이 몸에 새겨지는 국면을 하나의 대표 장면으로 압축해 제시하려는 전략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삽화책에서 권두화는 본문에 앞서 독자의 시선을 붙잡는 간판의 역할을 하며, 책의 주제를 한눈에 예고하는 시각적 표지로 기능했다. 동시에 알레고리, 초상, 헌정의 이미지를 넣어 통해 텍스트의 저자나 후원자, 혹은 출판인의 권위를 높여주었다. 아울러 작품의 해석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본문을 읽기 전 핵심적인 상징 이미지를 환기하여 독자의 독해를 돕는 역할도 했다. 당시 서점에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 권두화는 책의 광고 이미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림10> 『우화집』의 한 페이지, 라퐁텐, 우드리의 일러스트레이션, 1755년

3) The Morgan Library & Museum,
<https://www.themorgan.org/exhibitions/online/wrightsmen/pompadours-rodogune>

1755년에서 1760년 사이에 네 권으로 출판된 라퐁텐의 『우화집』의 한 판본을 살펴보고자. 이 판본은, 우드리라는 화가의 드로잉을 바탕으로 한 삽화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그 제작 과정이 18세기 ‘화가의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장바티스트 우드리(1686-1755)는 루이 15세의 궁정에서 왕실 사냥 장면을 담당한 공식 화가였으며, 1725년에는 보베 태피스트리 공장의 감독으로 임명된다. 그는 라퐁텐의 우화를 주제로 한 대규모 드로잉 연작을 제작했는데, 이 연작은 태피스트리의 밑그림으로 사용되었고 동시에 이미 출판물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이 출간된 것은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1750년경이다. 몽트노라는 그림 애호가가가 드로잉 전체를 사들인 뒤, 화가의 동의와 은행가의 도움을 받아, “라퐁텐의 가장 완전하고 가장 우아한 판본”을 만들고자 우드리의 그림을 책으로 출판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난점은 우드리가 연필과 과슈, 먹물 농담으로 처리한 드로잉을, 정교한 윤곽선을 요구하는 판화에 적합한 형식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편집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이 드로잉은 화가들이 흔히 그러듯, 정확히 마무리된 윤곽선의 구속이나 제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작업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드로잉을 서로 뒤엎기고 흐릿한 덩어리와 그림자에서 분리해, 별도의 윤곽선을 그려야 했다”(Montenault, 1755). 이 작업은 당시 최고의 판화가이자 당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한 비네트(삽화용 판화)⁴⁾ 작가인 니콜라 코샹에게 맡겨졌다. 그는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우드리의 드로잉에 대한 인상을 적으면서, 삽화용 드로잉과 화가의 드로잉 사이의 거리를 잘 보여준다. 그는 이를 “우드리가 여가 시간에 아무렇게나 휘갈겨 놓은 크로키”라 부르며, “우드리가 아주 잘 ‘망쳐 놓은’ 인물들을 바로잡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썼다(Cochin, 1880).

이 작업을 마친 뒤, 코샹은 당시 최고의 동판화가 42명을 고용했다. 3가지 다른 판형과 종이로 인쇄된 첫 번째 권은 1755년 우드리가 죽기 사흘 전에 국왕에게 헌정되었다. 비판을 받았던 요소들도 있었지만, 판화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19세기까지 여러 차례 재인쇄되었다. 이 판화들은 오랫동안 프랑스의 태피스트리, 가구, 목공 장식의 모범이 되었다.



<그림 11> 「매미와 개미」, 『우화집』, 라퐁텐, 우드리의 일러스트레이션, 1755년

라퐁텐 우화집의 첫 번째 우화인 「매미와 개미」에서, 우드리의 드로잉 제작 배경이 드러난다.

4) 비네트vignette는 프랑스 삽화책에서 본문 내에 삽입되는 작은 크기의 판화 이미지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장식적 기능과 의미를 설명하는 기능을 했다. 즉 본문과 함께 인쇄되는 소형 삽화 또는 장식 이미지로서 대개 책의 장(章)의 시작이나 끝, 혹은 페이지의 빈 공간을 채우도록 배치되었다. 어원적으로는 vigne(포도나무)에서 파생된 말로, 초기에는 포도 잎이나 덩굴 같은 식물 장식을 뜻했으나, 점차 다양한 인물, 서사 장면까지 포함하는 작은 판화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자연 풍경이 기둥 앞에 걸린 태피스트리로 가려져 있는데, 이는 현실 세계를 반영한 것으로서 우화가 펼쳐지는 허구적 세계를 의미한다. 매미와 개미는 그 태피스트리 위에서 움직인다. 동물과 풍경 화가였던 우드리는 네덜란드 거장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라퐁텐 우화의 최초 삽화가인 프랑수아 쇼보의 전통을 잇는다. 여기 재현된 쇼보의 삽화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 모두 동물을 실제 모습에 가깝게, 형태를 충실하게 재현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판본에서 삽화의 위상은 책의 역사에서 전례 없는 것이었다. 라퐁텐의 텍스트가 오히려 부차적인 위치에 있으며, 편집자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힌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출판하는 것은 라퐁텐의 텍스트가 아니다. 우리가 출판하는 것은, 이 유명한 텍스트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새로운 책을 구성하는 판화, 도판, 드로잉이다.”(Montenault, 1755).

이미지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이 판형의 특징으로 드러나는데, 당시의 작은 비네트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큰 판형을 이용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샹은 판화를 하나의 작은 회화처럼 제시하기 위해, 아래쪽에 우화의 제목과 번호를 새겨 넣은 액자를 그렸다. 판화는 본문 밖에 배치되었고, 책 전체의 페이지 번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판화의 번호는 연속적으로 매겨져, 텍스트와 독립된 자율적인 연속체를 이룬다. 다시 말해, 우드리의 삽화가 실린 우화집에서는 화가의 작품이 이전과 다른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 작품에서는 이미지가 텍스트를 꾸며주는 보조적 장치가 아니라, 텍스트가 화가의 작품을 홍보하고 확산하기 위한 구실로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18세기 후반에, 삽화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문화된 새로운 직군이 탄생했다. 즉 화가, 판화가, 도금 및 조각 장인 가문에서 나온 예술가들이, ‘비네트 작가’라는 이름으로 등장해 이전 세대의 직업 화가들을 대신하여 이미지를 공급했다. 코샹은 당시 가장 대표적인 비네트 작가였다. 이들은 계약에 따라 주문을 받고, 당시에 ‘대예술’이라 불리던 회화보다는 작은 형식의 주제에 특화되어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eur)’라는 용어가 프랑스에서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던 시기에, 비네트 작가들은 큰 인기와 높은 수입을 누렸으며 문학 살롱과 정치 사교계를 드나들었다. 그러나 코샹을 제외하고 아카데미로부터 온전히 예술적 지위를 인정받은 비네트 작가는 없었다. 출판계에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술가로서 역할은 폄하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회화의 세계와 책의 세계는 1870년까지는 여전히 분리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화가의 책’의 등장

19세기 전반은 ‘일러스트레이션 예술의 황금기’로 여겨지며, 그랑빌(Grandville), 주아노(Johannot), 모랭(Morin) 등 많은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들의 활약에 힘입어 삽화 예술이 번성했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사정상 화가의 경력을 접고,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재능을 발휘했다. 그러나 그 지위는 장인에 가까웠다. 이들은 주문에 따라 작업했고, 한 점당 대가를 받았다.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개념과 용어는 1820년대에 프랑스어에 들어와, 그들의 낮은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문학 작품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맡아야 했다. 즉 이미지는 텍스트에 종속된 요소로서 텍스트 내용의 시각적 번역이어야 했는데, 예술가들은 이 점에 대해 만족할 수 없었다.

물론 예외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828년의 『파우스트』 연작이다. 이 작품은 ‘텍스트에 종속된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개념에서 크게 벗어난다. 젊은 화가 들라크루아는, 샤토브리앙, 셰익스피어, 바이런, 괴테와 같이 낭만주의자들의 정신적 스승이라 할만한 작가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며, 예술을 통해 이들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다. 그는 일찍부터 『파우스트』를 위한 판화를 구상했지만,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석판 인쇄업자 샤를 모트가 새로 번역된 괴테의 『파우스트』에 넣을 석판화 연작을 제안하면서부터다.

화가로서 들라크루아는 자신의 석판화 작품이 텍스트와 분리된 연작, 즉 하나의 화집처럼 출판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모트는 그를 설득하여, 판화들을 텍스트와 함께 한 권의 책 안에 삽입하도록 했다. 들라크루아는 이 타협을 마뜩잖게 받아들이면서도,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위치에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작업 도중 두 장의 판화를 괴테에게 보내는데, 괴테는 “화가의 강력한 상상력”과 그 독창적인 해석을 단번에 이해했다.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장면들에서 들라크루아는 나의 비전보다 더 뛰어난 것을 보여주었다.”
(『괴테와의 대화』, 1836년)

들라크루아가 『파우스트』의 삽화를 구상하는 데 두 가지 요소가 도움이 되었다. 첫째는 런던에서 관람한 『파우스트』 연극 공연이다. 무대 장식이 자주 바뀌고 막이 전환될 때마다 조명 효과가 강조되는 대규모 스펙터클 연출에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극은 무대에서 가스 조명을 사용해 배우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한층 극적으로 만들었다. 들라크루아는 이 공연의 환상적이고 악마적인 중세의 분위기를 자신의 『파우스트』 일러스트레이션 속에서 재현하고자 했다. 두 번째 요인은 1796년 독일에서 발명되어 프랑스에는 비교적 늦게 도입된 석판 인쇄 기술이었다. 리소그래피라고 불리는 석판 인쇄는 화가들이 석회석 판 위에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었고, 전문 판화가를 통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필치를 인쇄물에 충실히 재현할 수 있게 했다. 들라크루아는 이 기술을 활용해 빛과 어둠의 대비를 극대화함으로써 극적인 분위기를 강화했다. 또한 표현주의적 양식을 통해, 얼굴의 일그러진 표정, 몸의 비틀림, 과장된 몸짓 등을 나타냄으로써 극적 긴장감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림 12> 『파우스트』 괴테, 들라크루아의 일러스트레이션, 1828년

들라크루아는 고전적 원근법 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독창적인 구도로 장면을 구성했으며 광원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다. 그 결과 이미지는 기묘한 세계, 악마가 지배하는 세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들라크루아의 『파우스트』는 19세기 최초의 ‘화가의 책’으로 간주되

었다. 테오필 고티에는 이 작품의 회화적 성격에 감탄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당대의 다른 뛰어난 화가들이 삽화를 그렸던 것과 달리, 그는 항상 자신이 소재로 삼은 책 밖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렷다. 그는 작품의 핵심을 깊이 파고들어 작가 자신에게 더욱 깊고, 섬세하고,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냈다.”(Gautier, 1874)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화가가 문학 작품을 자기의 것으로 전유하고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문학 텍스트를 더 풍부하게 하며, 책을 자율적인 창작으로 승화시키는 사례들이 등장한다. 결정적 변화를 불러온 것은 1870년 이후의 새로운 출판 환경이다. 1850년대 이후 이미지는 책과 잡지 등 모든 인쇄 매체를 점령했고, 특히 대중매체나 아동 도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인쇄물이 대중화되고 이미지가 일상에 범람하면서, 지식인과 예술가들 사이에서 삽화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커졌다. 이미지가 문학을 침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문학은 정신의 산물이고 이미지는 육체적 감각에 호소하는 물질적 요소이며, 문학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은 문학의 외도이자 상업적 투기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다.

귀스타브 도레(Gustave Doré)는 1850년대에 경력을 시작하면서 이미지를 새롭게 보여주려는 전략을 폈다. 그는 문학사에서 검증된 위대한 텍스트들을 선택하고, 호화로운 서지 형식, 대형 판형과 본문 밖 전면 삽화, 회화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명암 목판화를 활용했다. 나아가 텍스트를 자유롭게 해석하고, 연극적 수사와 강렬한 극적 효과를 구사했다.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의 예술적 위상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그림13> 「푸른수염」, 샤를 페로의 『동화집』, 귀스타브 도레의 일러스트레이션, 1862

1870년 이후 사진 기술을 이용한 복제 방식이 개발되었는데, 감광제를 바른 판면에 그림이나 사진의 음화를 밀착한 다음 약품으로 부식시켜서 만드는 사진 제판이 보편화되면서, 드로잉을 동판이나 목판에 새기는 판화 전문가의 개입은 아예 사라지게 되었다. 인간의 개입이 없는 이미지 복제 방식은 판화보다 더 기계적인 것으로 간주되면서, 책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증가되었다. 이 같은 거부감 때문에, 일반 출판과 차별화된 ‘장서가용 출판’이 등장한다. 고급 종이의 사용, 대형 판형과 넉넉한 여백의 활용, 한정판 번호 부여, 수공 판각 기술 등이 장서가용 출판의 주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이 안에서도 몇 가지 다른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를 일러스트레이션의 전통적 개념을 유지하면서 고급 장정본이나 호화판을 제작하는 흐름이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기술과, 해외의 문화, 동시대 예술 사조(상징주의, 나비파, 아르누보)에 개방적이면서도, 여전히 책의 정통 형식과 규범을 존중하는 경향이다. 세 번째 경향은, 책의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개념 자체를 뒤흔드는데, 이것이 ‘화가의 책’이라 불리게 되는 창작의 발전이다.

‘화가의 책’이라는 용어는 1936년 뉴욕에서 열린 전시 이후에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용어는 출판용 일러스트레이션 제작을 직업으로 삼지 않는 저명한 화가나 조각가들이 참여한 책을 가리켰다. 이들은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새로운 관계, 즉 지시적이고 모방적 일러스트레이션이 아니라 암시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여줌으로써 19세기 말 새로운 형태의 책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다. ‘화가의 책’은 정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매우 넓은 집합을 포괄하지만 두 가지 공통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 첫째, 유명 화가가 참여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를 종속이 아니라 병행의 원리 위에서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나르가 일러스트레이션을 한 베를렌의 『병행적으로(Parallèlement)』의 경우, 시의 공간과 이미지의 공간을 분리하지 않은 채 보나르의 석판화가 펼침쪽을 가로지르며 배치되어 있는데, 이미지가 텍스트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4> 『병행적으로』, 폴 베를렌, 피에르 보나르의 일러스트레이션, 1900년

한편 화가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연구해 온 이브 페레는 ‘화가의 책’에서 ‘대화의 책(livres de dialogue)’이란 장르를 별도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Peyré, 2001 :30). 그에 따르면, 화가의 책은 고전 텍스트와 같이 이미 고인이 된 작가의 텍스트를 화가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해석한 책이다. 따라서 텍스트는 화가의 작품을 부각시키기 위한 발판의 역할을 하는데, 앞서 살펴본 라퐁텐의 『우화집』 일러스트레이션을 담당한 우드리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Peyré, 2001 : 43). 피카소가 편집자 스키타(Skira)의 주문으로 1931년에 삽화를 그린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는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반면 페레가 말하는 ‘대화의 책’은 화가가 생존해 있는 동시대 작가와 긴밀히 협업하여 탄생한 작품이다. 함께 모험을 떠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화가와 작가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미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만드는 합작품 책을 가리킨다(Peyré, 2001 :32-33).



<그림15>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작은 잔 드 프랑스』
블레즈 상드라르, 소니아 들로네, 1913년

가장 주목할 만한 초기 콜라보레이션 작품 가운데 하나는, 블레즈 상드라르와 소니아 들로네가 함께 만든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작은 잔 드 프랑스(La Prose du Transsibérien et de la petite Jehanne de France)』이다. 프랑스 최초의 비구상 삽화가 도입된 이 책은 ‘그림-시(tableau-poème)’라는 새로운 개념을 보여주었다.

상드라르의 시는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동안 시인의 독백을 표현한 것으로 자유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드라르가 초고를 들로네에게 보냈을 때, 수직형 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아이디어는 두 사람이 함께 고민을 거듭한 끝에 탄생한 것으로, 시베리아의 광활한 지평과 끝없이 이어지는 열차 여행의 긴 시간을 상징하기 위해 높이 2미터의 ‘그림-시’로 작품이 구상되었다.

상드라르는 서로 다른 계열의 활자, 두께, 크기를 활용해 텍스트를 직접 조판함으로써, 활자 덩어리 자체를 하나의 드로잉처럼 보이도록 구성했다. 활자의 색과 농도는 시 속의 주제와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로 쓰였다. 소니아 들로네는 여백 공간 곳곳에 배치될 색면 구성을 구상했으며, 색채와 강도는 두 사람이 토론을 거듭하여 결정되었다. 들로네의 이미지 구성은 텍스트에 대응하는 시각적 해석이라 할 수 있는데, 원형의 소용돌이 모티프들은 시가 환기하는 정서를 시각적 형태로 보여준다. 그림은 전통적 의미에서 대상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색과 선이 불러일키는 정서와 감각으로 시적 영감을 시각화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화가의 공간적 아이디어가 돋보이는데, 지도책 형식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포맷을 전통적인 책의 형태를 넘어서는 지점까지 밀어붙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1874년 샤를 크로와 에두아르 마네의 『강』이라는 화가의 책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화가들이 작가들과 함께 만든 많은 책에서는 협업의 의도, 방식, 성과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폴리네르와 드랭, 르베르디와 마티스, 엘뤼아르와 샤갈, 브르통과 자코메티, 풍주와 브라크, 막스 자콥과 피카소, 차라와 미로 등, 수많은 만남이 화가와 작가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탄생시켰다.

콜라보레이션이 성사되는 방식은 매우 다양했다. 대개는 시인이나 작가가 먼저 텍스트를 완성한 뒤 화가가 나중에 개입하지만, 때로는 두 사람이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또, 비교적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화가의 이미지에 영감을 받아 시인이 텍스트를 쓰는 예도 있다. 앙드레 브르통과 호안 미로의 『별자리(Constellations)』(1959)에서 그가 ‘평행 산문’이라고 말한 작업이 그 예이다. 이 작품은 호안 미로가 ‘별자리’라는 제목으로 제작한 과슈 연작을 보고 쓰여졌다. 반면에 한 사람의 예술가가 화가이자 작가로서 책을 완성하는 사례도 있다. 마티스의 『재즈』(1947)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여러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저작도 존재한다.



<그림16> 『재즈』, 앙리 마티스, 테리아드 출판, 1947년

요컨대 ‘일러스트레이션 책’, ‘화가의 책’, ‘대화의 책’이라는 다양한 종류의 책들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공통점을 공유한다. 첫째, 20세기 초 이들 책의 출판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들은 대개 갤러리스트로서 책의 전문가가 아니라 미술의 전문가들이었다. 미술상이었던 앙브루아즈 볼라르(Vollard)는 화가의 책의 개화를 이끈 선구적 인물로, 자신이 지원하는 화가들에게 문학 텍스트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해석해 볼 것을 적극 권유했다. 그는 앞서 언급한 베를렌스의 『현명함』을 비롯해, 로댕이 수채로 채색한 미르보의 『고문 정원』(1902), 조르주 루오가 해석한 앙드레 수아레스의 『수난』(1939)등을 출간했다. 볼라르와 달리, 다니엘 헨리 칸바일러는 아폴리네르, 막스 자콥, 앙드레 말로, 아르토, 레리스 등과 같은 동시대 시인들을 선호했다. 그의 첫 책인 『부패하는 마법사』(1909)는, 아폴리네르와 드랭의 만남을 성사시켜 목판 인쇄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작품이다. 칸바일러는 동시대 작가와 화가의 콜라보레이션을 이끌어내는 데에 열정을 쏟았다. 볼라르의 책이 장서의 기준을 존중한 호화판이라면, 칸바일러의 책은 오히려 소박했는데, 그의 목표는 예술을 최대한 많은 대중에게 전파하는 것이었다. 이탈리아계 스위스 출판인 스키타는 피카소, 마티스, 살바도르 달리, 앙드레 드랭과 함께 많은 책을 출간했다. 그리스 출신의 테리아드(Tériade)는 마티스의 『재즈』를 비롯한 다수의 명작을 출판했다. 전후 가장 활동적인 갤러리스트 가운데 한 사람인 에메 메그(Macgth) 역시 매우 중요한 많은 작품을 출판했다. 트리스탕 차라와 미로의 『혼잣말하기』(1950)는 메그의 가장 성공적인 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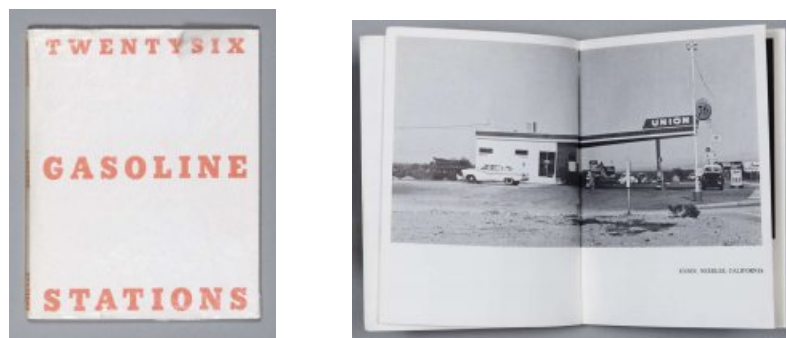
<그림17> 『혼자 말하기』, 트리스탕 차라, 호안 미로의 일러스트레이션, 에메 메그 출판, 1950년

이 책들의 또 다른 특징은, 목판, 동판, 석판, 리놀륨 판화 등, 화가가 직접 제작한 오리지널 판화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화가는 인쇄판(모판)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인쇄본에서도 자신의 손길과 필치를 넣을 수 있었다. 이후에는 사진과 사진 제판도 점차 책에 도입되지만, 초기에는 오리지널

판화가 중심이었으며 각 권에는 한정판 번호가 부여되며, 고급 종이에 인쇄되는 장서본으로 출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3. ‘아티스트 북’의 발전

1960년대 미국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책이 등장하는데, ‘아티스트 북(artist’s book)’이라 불리는 책이었다. 이 용어는 프랑스에서 피글랭 델크루아에 의해 ‘livre d’artiste’로 번역되었다. 그는 이 장르의 시초를 미국 작가 에드워드 루샤의 작품에서 찾는다. 루샤는 1963년 『26곳의 주유소』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흑백 사진 26장을 담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에서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이어지는 도로변의 주유소들을 보여준다. 각 사진에는 아주 짧은 캡션만 달려 있을 뿐 다른 텍스트는 없다. 초판은 한정판으로 제작되었지만 루샤는 곧 이러한 한정판이 자신의 ‘대량 생산품’이라는 초기 구상과 모순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시 인쇄해 갤러리나 박물관이 아닌 서점에서 유통되도록 했다. 1960-70년대에 주요 예술 운동들은 루샤가 연 길을 뒤따랐다. 미니멀리즘의 솔 르윗, 플럭서스의 로베르 필리우, 개념미술의 다니엘 뷔랑, 그리고 해프닝과 퍼포먼스, 구체시, 랜드 아트, 아르테 포베라 등 다양한 흐름 속에서 예술가들은 실험적 창작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책을 포함한 여러 비예술적 매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림 18> 『26곳의 주유소』, 에드 루샤, 1963년

196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도 아티스트 북을 창작했던 예술가들은 전통적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는 장서본이나 화가의 책으로부터 단절하고자 했으며, 책이라는 매체 자체를 작품 형식으로 삼고자 했다. 피글랭 델크루아는 이 장르에서 ‘아티스트’라는 표현이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회화, 조각, 판화 등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1960년대의 예술가란 하나의 정해진 장르나 특정 재료 및 기술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 창작자를 의미했다(Moeglin-Delcroix, 1997:92-93).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이 시기의 아티스트 북을 “한 예술가가 유일한 저자가 되어 ‘현대적 책’의 형태로 작업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형이 대체로 평범한 책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소형 포맷의 오프셋 등 동시대 인쇄 기술을 이용하고 비한정판이라는 물질적 제작 조건을 갖는다고 설명한다⁵⁾. 이러한 정의는 196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 책이 더 이상 고급 수집품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복제와 유통이라는 책 고유의 매체적 속성을 활용해 예술 창작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1985년에 퐁피두 센터에서 열린 <아티스트 북Livres d’artistes>이라는 제목의 전시 역시, 예술

5) Catalogue d’exposition, « Livres d’artistes, l’invention d’un genre : 1960-1980 », organisée par la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et présentée sur le site Richelieu, galerie Mansart, du 25 mai au 12 novembre 1997.

가들이 개념미술, 사진, 플럭서스 등 동시대 예술 전략을 이용하여, 책을 텍스트의 운반체가 아니라 예술적 실험의 장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주었다⁶⁾.

그렇다면, 화가의 책이나 대화의 책과는 다른 ‘아티스트 북’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피글랭 델크루아는, 이들을 전통적 ‘화가의 책’이나 ‘대화의 책’과 구분하는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한다.

첫째, 이미지의 지배적 역할이다. 원본 판화가 중시되던 이전의 책들과는 정반대이다. 책에서 이미지의 제작 기법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둘째, 일반적인 책의 형식을 차용한다는 점이다. 예술가들은 미술 시장의 유통망을 피하고, 서점에서 판매되기를 원했다. 책은 평범한 종이에 인쇄되고, 한정판도 아니며 서명이나 번호 매기기도 없다. 산업적 인쇄 기법이 사용된다. 셋째, 예술가가 책의 구상 전 과정을 전적으로 통제한다는 점이다. 텍스트가 있다면 예술가 자신이 쓴 것이다. 제작, 출판, 심지어 유통 과정까지 예술가가 직접 담당하는 경우도 많아, 스스로 자신의 출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아티스트 북은 화가와 책의 맺어온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새로운 형식을 통해, 예술가는 책 자체를 하나의 재료로 간주하며 책의 형식, 페이지의 연속과 반복을 시각적 표현의 가능성으로 끌어들인다. 목표는 더 이상 책의 구조를 변형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 형식이 지닌 형식적이고 조형적 요소를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데 있다. 이 지점에서, 더 이상 ‘화가가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책이 예술가를 만드는 것’이라는 역설적 표현이 성립한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서양에서 책이 전통적으로 텍스트를 위한 공간으로 간주되어 왔음을 주지하며, 프랑스의 삽화책 역사, 19세기 말 ‘화가의 책’의 등장,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아티스트 북’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책이라는 매체가 예술가들에게 어떻게 다시 정의되었는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검토했다. 초기 인쇄본에서 이미지가 담당한 역할은 교육, 감동, 기억 보조와 같은 기능적 차원에 머물렀고, 목판과 동판 인쇄의 기술적 조건과 직능 분업의 제약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구조적으로 분리시키며, 이미지를 책 속의 정해진 위치에 고정시켰다. 그럼에도 르네상스 이후 책의 장식, 서체, 페이지 구성과 삽화의 결합은 책 자체를 시각적 대상, 나아가 하나의 시각 예술품으로 보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고전주의 시대에는 권두화가 ‘스펙터클’로서의 책에 진입하는 문으로 격상되면서, 책이 회화적 장치를 수용하는 방식이 한층 정교해졌다. 18세기에는 부유층을 겨냥한 장서본의 수요 속에서 화가들이 다시 책으로 돌아오고, 이미지의 위상 변화가 결정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19세기 전반 ‘일러스트레이션’의 번성은, 이미지의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일러스트레이터의 지위를 주문 제작 체계에 묶어 두며 ‘텍스트에 종속된 시각적 번역’이라는 조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석판 인쇄가 제공한 ‘필치의 직접성’과 더불어, 들라크루아의 『파우스트』가 보여준 바와 같은 자율적 연작의 욕망으로 표면화되었고, 결국 19세기 말 이후 지시적이고 모방적 일러스트레이

6) Catalogue d'exposition, « Livres d'artistes », BPI, du 12 juin au 7 octobre 1985.

션을 넘어서는 암시적 일러스트레이션의 원리가 형성되며 ‘화가의 책’이 하나의 범주로 자리 잡게 된다. 여기서 책은 더 이상 그림을 끼워 넣는 매체가 아니라, 텍스트와 이미지가 종속이 아닌 병행의 원리 위에서 재구성되는 장(場)이며, 갤러리스트와 미술상이 주도하는 장서가적 출판의 조건을 통해 ‘예술 작품으로서의 책’이라는 지위를 획득한다. 더 나아가 ‘대화의 책’의 흐름은 화가와 동시대 작가의 협업을 전면화하며, 책을 두 매체의 접합물이 아니라 관계와 우정, 공동의 미학적 모험이 구체화되는 공간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은 화가(혹은 아티스트)의 역할 변화이다. 초기에는 화가가 책 제작의 중심에 서기 어려웠고, 참여하더라도 권두화와 같은 제한된 영역에서 회화적 구성만 담당하거나, 전문 조각가와 판화가에게 결정적 공정이 위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화가는 점차 책을 자신의 회화를 유통·확산하는 매개이자 실험의 장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19세기 말에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작품의 심장부로 침투하여 작가의 텍스트를 새로운 감각으로 되돌려 주는 존재로 재정의된다. 20세기 전반의 ‘화가의 책’과 ‘대화의 책’에서 화가는 (1) 고전 텍스트의 전유자, (2) 동시대 작가와의 협업자라는 두 축을 오가며, 책의 기술을 예술적 결정의 범주로 끌어들었다. 1960년대 이후의 아티스트 북에서는 이 변화가 한층 급진화된다. ‘아티스트’는 더 이상 특정 장르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 창작자이며, 예술가는 책의 구상과 제작, 때로는 출판과 유통까지를 통제하는 유일한 저자로 자리한다. 이러한 역사는 책은 ‘압축된 벽돌 같은 물건’이라는 형식적 제약을 예술가가 돌파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깊이 다루지 못했지만, 전통적 일러스트레이션을 담은 책, 화가의 책, 대화의 책, 아티스트 북에 이르기까지 이미지가 텍스트와 맺는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의미작용의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ergez, Daniel(2008), *Peindre/Ecrire. Le dialogue des Arts*, Paris: Éditions de La Martinière.
- Bertrand, Gérard(1971), *L'illustration de la poésie à l'époque du cubisme, 1909-1914 : Derain, Dufy, Picasso*, Paris: Éditions Klincksieck, Coll. Le signe de l'art.
- Bonnefoy, Yves(1993), *Écrits sur l'art et livres avec les artistes*, préfaces de Marc Fumaroli, Jérôme Thélottet Yves Peyré, Paris: Flammarion.
- Chapon, François(1987), *Le peintre et le livre*, Paris: Flammarion.
- Claudel, Paul(1928), *Positions et propositions*, Paris: Gallimard.
- Cochin, Charles-Nicolas(1880), *Mémoires inédits de Charles Nicolas Cochin sur le comte de Caylus, Bouchardon, les Slodtz*, Paris: Baur.
- Gautier, Théophile(1874), *Histoire du romantisme*, Paris: G. Charpentier et Cie, libraires-editeurs.
- Kant, Emmanuel(1796), *Qu'est-ce qu'un livre ?*, édition et traduction J. Benoist(1995),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coll. "Quadrige".
- Montenault(1755), « Avertissement de l'éditeur », in *Fables* de Jean de La Fontaine, illustré par Jean-Baptiste Oudry, Paris: Desaint et Saillant.
- Melot, Michel(1984), *L'illustration, histoire d'un art*, Genève: Skira.
- Moeglin-Delcroix, Anne(1997), *Esthétique du livre d'artiste, 1960-1980*, Paris: Jean-Michel Place éditeur,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1997.
- Peyré, Yves(2001), *Peinture et poésie: le dialogue par le livre 1874-2000*, Paris: Gallimard.
- Poésure et peinture : d'un art, l'autre*, catalogue d'exposition(1993), Musées de Marseille, Réunion des Musées Nationaux.
- Renonciat, Annie(2004), *L'image et le livre (France, XIXe siècle, première moitié du XXe siècle) :pour une approche éditoriale de l'image*, Mémoire de synthèse pour HDR, vol.1, université de Paris VII.

<인터넷 사이트>

프랑스 국립도서관 BNF : 아티스트 북 전시

<https://editions.bnf.fr/livres-dartistes-linvention-dun-genre-1960-1980>

퐁피두 센터 : 아티스트 북 전시

<https://www.centrepompidou.fr/fr/programme/agenda/evenement/cRRRRyz?utm>

루브르 박물관 : 로도권 권두화 해설

<https://collections.louvre.fr/en/ark:/53355/cl020549492>

* ABSTRACT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aesthetics of the French ‘livre de peintre’ and the subsequent emergence of the ‘artist’s book’, arguing that the encounter between text and image gradually transformed the book from a vehicle of discourse into an autonomous artistic medium. While Western tradition long defined the book primarily as a textual space, illustrated publishing nonetheless revealed the page’s potential as a coherent visual field. Renaissance experiments in typography and ornament, and later print innovations, made visible how the codex could operate aesthetically rather than merely supportively.

The nineteenth century intensified this tension. Industrial publishing expanded the circulation of images, provoking resistance from writers who saw illustration as a material intrusion into literature, even as deluxe illustrated editions sought to restore artistic legitimacy through canonical texts and refined production values. At the same time, the illustrator’s status remained structurally subordinated to text within a commission-based economy.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into the early twentieth, these contradictions opened onto the livre de peintre, promoted largely by dealers and specialized publishers who framed books as collectible artworks through original prints, fine paper, and limited editions. Here, text and image are reorganized according to parallelism rather than hierarchy. The paper further distinguishes the livre de dialogue, in which painter and contemporary writer collaborate through shared aesthetic exploration, demonstrating that rhythm, typography, and spatial sequencing can become constitutive elements of meaning.

Finally, the paper analyzes the artist’s book from the 1960s onward, highlighting a qualitative shift in both artistic agency and the book’s aesthetics. In contrast to the luxury logic of the livre de peintre, artist’s books privilege ordinary formats, offset printing and reproductive technologies, non-limited distribution, and circulation through bookstores. The artist becomes the single author who controls conception and production, treating the book’s seriality, repetition, and page-to-page continuity as the very conditions of artistic form. The argument culminates in a reversal of perspective: modern practices suggest not only that the artist makes the book, but also that the medium—its format, materiality, and circulation—reconfigures artistic authorship itself.

Keywords: painter, illustrated book, illustration, livre de peintre, livre de dialogue, artist, artist’s book

제3자성의 본질에 대한 한국과 이탈리아 간 비교 연구: 사회적 경제의 국가 리더십 특성을 중심으로*

문 병 기**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Italy on the Nature of Thirdness: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Leadership in the Social Economy

MOON, BYUNG-GI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이탈리아와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 |
| II. 15세기 초반 이탈리아 시민 인본주의
의 특징 | 비교분석 |
| III. 사회적 경제이론의 근현대적 체계화 | V.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 | 참고문헌 |

I. 서론

아직도 여전히 국내에서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를 일자리 창출이나 2000년대 초반경까지 활성화되었던 자활공동체에서 좀 더 나아가 사회복지의 정책적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사회적 경제 사업 전반에 대해 심각한 위기를 지적하고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신양, 2022; 간기현·조상미, 2023). 특히,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본류인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의 전통에서 왜곡된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내의 사회적 경제가 기대한 것만큼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되었으나, 주로 프랑스나, 영국·스웨덴 등 일부 유럽 복지 선진국, 또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부실한 성과의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현시점에서 국내 사회적 경제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극복을 위한 대안을 찾는 일은 학술적·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외연수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사회적 경제의 진정한 범세계적 원류를 이탈리아로 보는 데에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근거가 있다¹⁾. 13세기 중반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콘벤뚜알(conventualis) 프란체스코수도회는 민중과 삶을 함께하면서 봉사와 교육활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단순히 종교적 헌신과 기부에 그치지 않고 삶과 노동의 현장에서 개인들이 서로 만나고 함께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찌감치 설교하였다. 이러한 종교적 기초하에서 이루어진 혁신 운동에 더하여 좀 더 직접적으로는, 14세기 중반부터 15세기 전반기에 걸쳐 이탈리아 피렌체(Firenze)와 시에나(Siena)를 중심으로 시민 인본주의(Umanesimo civile; civil humanism)가 일어났다. 시민 인본주의자들은 정돈되고 융성하는 도시에서 시민들이 자유와 함께 공존과 번영을 누리는 이상적 사회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18세기 중반의 이탈리아 계몽주의 나폴리학파의 대표자인 안토니오 제노베시(Antonio Genovesi: 1713-1769)는 소위 근대 경제학의 대부로 알려진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보다 10여 년 앞서 시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적 삶의 본질에 대해 설교하였다(Bruni & Zamagni, 2007; 브루니, 2016).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철학적·실천적 전통과 기초가 있었기에, 19세기 중반에 프랑스 등 서부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난 사회적 경제 관련 초기 논의보다도 1세기 이상 앞서서 볼로냐(Bologna) 등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자마니 & 자마니, 2013; 문병기, 2020).

이런 차원에서 이탈리아의 역사적 전통과 철학적 근거를 현지의 시각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 발전 전략을 요약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이탈리아식 사회적 경제 철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제3자성(thirdness)²⁾의 본질을 우리나라의 국가 리더십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사회적 경제 진흥 사업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 및 정부 중심의 정책 주도권(policy initiatives)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부지불식간에 사회적 경제 진흥 사업도 국가 등 공적 리더십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외부적 지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미흡한 성과의 한 이유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³⁾.

- 1) 한국 내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좁게 해석하여 19세기 초반경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기존의 정치경제학과 다른 경제학’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역사가 200년 정도라고 주장한다(엄형식, 2008; 신명호, 2009; 송백석, 2011; 김경희, 2013; 김신양, 2022). 그러나 이러한 협의적 견해는 칼 폴라니(Karl Polanyi)와 프레드 블록(Fred Block)이 시장과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수용한 상태에서, 자본주의 체제하에 있는 임금노동자의 고통에 대해 부응하려는 노력만이 사회적 경제라는 판단, 즉, 사회주의 갈등론적 시각이 그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문병기, 2022). 그러나 최근에는 막상 사회적 경제의 보편적인 목표가 공공의 행복임에 공감하고, 또 이탈리아 시민 경제(civil economy)가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광의의 사회적 경제 범위 안으로 이를 포섭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김신양, 2022).
- 2) 제3자성이란, 제1자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각 개인(즉, 나)이 자신에 대응하는 타인(즉, 너)을 제2자로 인식하면서 양자 간의 관계에서 소통과 협력뿐만 아니라 갈등과 반목을 경험할 때, 이를 통제 및 조정하거나 중재할 주체로서 제3의 존재를 무엇으로 어떻게 용인 내지는 상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말한다. 이때의 논의는 주로 개인이 또 다른 개인으로서의 타인과의 관계에 개입하는 제3자적 존재를 과연 필요로 하느냐는 것과, 제3자의 구체적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Esposito, 2007; Jankelevitch, 1970; 브루니, 2020에서 재인용)로 나타난다. 결국 제3자성은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인간의 실존적 문제이며, 그러한 맥락 안에서 볼 때 통상 국가로 표상되는 통치자 내지는 중재자의 본질을 탐구하는 정치학과 행정학의 핵심적 화두라고 할 수 있다.
- 3) 한국 사회 내에서 국가 및 관료제 주도적인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진흥사업의 추진에 따라 나타나는 왜곡 현상과 미흡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연구는 매우 다양하다. 첫째, 각종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 절차의 형식화 및 전문성 취약(문병기, 2012; 박수경·장동현, 2013; 최영출, 2013; 김경희, 2023), 둘째, 정부주도적인 지원으로 인한 자생력 및 생존 가능성의 미흡(강문실 외, 2014; 문병기, 2015; 김보라, 2015; 김숙연·강수진, 2017), 셋째, 일자리 창출 중심이며 특히 일자리 직접 제공형 일변도의 지원(김창범·이찬영, 2016; 원지영, 2016; 김익태 외, 2020), 넷째, 인건비 위주의 획일적 지원과 사업개발비 및 컨설팅 지원의 연계성 부족과 내용에 대한 불신(이인재·김성기, 2016; 임현지, 2023), 다섯째,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 부족(김동철·김정원, 2016; 문병기·신혜원, 2014; 간기현·조상미, 2023) 등이 있다.

625전쟁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한국은 매우 강압적인 제3자성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진보 또는 보수라는 이념적 차이와 무관하게, 정부 주도적이고 사실상 강권적 지배 구조하에서 복지정책과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책임자들은 후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실패와 국가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양면적 실패 현상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막상 사회적 경제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치·관계 지향성·개방성·지역사회 지향성의 선진적 개념들에 대해 심층적 이해가 부재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정부-관료 중심의 국가주의적 복지행정의 경험을 누적함으로써 일정 부분 침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문병기, 2015). 한국의 역사 속에서 한 때 불꽃처럼 존재했던 경주김씨 가문의 지역 사회에 대한 헌신의 아름다운 전통은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연구가 사회적 경제 본류의 연원과 그 발아의 토양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지역공동체(community)에 두는 이유이다. 바로 이 점에서 이탈리아라고 하는 특별한 사회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사실, 사회적 경제 진흥 사업에 있어서 국가 등 공적 리더십에 대한 의존이 갖는 정당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은 상당히 오랜 역사적 근거가 있다.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자발성에 의하여 개인 간 상호적 원조와 호혜적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거나 그것이 제도화된 것이 사회적 경제 체계라는 생각이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 국가 등 공적 리더십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 자체나 인간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가 또는 비관적으로 보는가가 모든 이야기의 단초가 된다는 말이다.

유럽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볼 때, 16~17세기에 인간에 대한 비관적 사고가 유럽 전역에 퍼진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대표적인 사건이 1095년부터 1456년까지 간헐적으로 지속된 십자군 전쟁과 아비뇽 유수(1309~1377)로 상징되는 중세 로마가톨릭교회의 몰락, 그리고 1347년에 최초로 발발한 후 엄청난 인명 피해를 준 흑사병 등이다. 마키아벨리(N. Machiavelli)의 ‘군주론(the Prince: 1513)’, 홉스(T. Hobbes)의 ‘리바이어던(the Leviathan: 1651)’은 그러한 인간에 대한 비관적 사고체계의 결과물이자 그 사고체계를 더욱 강화한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피렌체 및 시에나에서는 15세기 전반기에 시민 인본주의가 출현하면서 인간과 도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철학적·이념적 혈통이 18세기 나폴리(Napoli)의 A. 제노베시에 계승됨으로써 시민적 덕성과 상호 원조를 기반으로 공공의 행복 및 사회적 경제 개념의 원조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 사회적 경제 사업의 본질 정립과 진정한 진흥을 위해서는 먼저, 인간 자체 및 인간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보편적 근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어떻게 세계 최초로 이탈리아에서는 그러한 성과 달성이 가능한 것이었으며, 그 근본적 근거는 무엇인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국내의 사회적 경제 연구의 지역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이탈리아의 역사적 전통과 철학적 근거를 현지의 시각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 발전 전략을 요약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본 연구는 먼저 무슨 이유로 이탈리아가 유럽의 일반적 경향과 구분되는 사회적 경제의 국가 리더십 전통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제3자성의 특징이 현시대의 이탈리아 사회적 경제 분야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전통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사회적 경제 진흥 사업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론 차원에서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문헌 분석에 초점을 둔다. 이탈리아의 시민 인본주의와 르네상스 인본주의(Renaissance humanism) 시대를 아우르는 주요 저서와 인물에 대한 문헌들을 심

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3자성으로서 국가 리더십의 근원을 밝힌다. 이어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 현황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국가 리더십 전통이 현시대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간 국제 비교를 통해 얻은 논리와 경험적 발견을 기초로 한국 내 사회적 경제 진흥 사업의 성숙과 진정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개발하고자 한다.

II. 15세기 초반 이탈리아 시민 인본주의의 특징

1. 피렌체 시민 인본주의의 정치·경제적 현실

이탈리아 사회적 경제의 직접적인 뿌리는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초반에 걸쳐 피렌체 지역 국가(territorial state)를 중심으로 존재했던 시민 인본주의로 본다. 왜냐하면 이미 지적인 바대로, 시민 인본주의자들은 13세기 중반부터 활동한 폰벤뚜알 프란체스코수도회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혁신적 사상을 주창하였고, 십자군 전쟁과 아비뇽 유수, 그리고 흑사병 등에 의해 보편화될 수 있었던 인간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극복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피렌체의 레오나르도 브루니(Leonardo Bruni: 1370-1444)를 위시한 다수의 시민 인본주의자는 인간(즉, 공화주의 정치)과 도시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열정적으로 주창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철학적·이념적 혈통이 18세기 나폴리의 A. 제노베시에 계승됨으로써 시민적 덕성과 상호 원조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의 원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설파할 수 있었다는 점도 또한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한편, 피렌체 시민 인본주의는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되고 있다. 그 첫째는 정치·경제적 현실로서의 시민 인본주의이다. 정치·경제적 현실로서의 시민 인본주의는 중세의 고착적 신분 체계와 농촌 경제를 기반으로 했던 느슨한 통치구조를 대체하여 나타난,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초반의 격변하고 척박한 삶의 필요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념으로서의 시민 인본주의는 각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태도와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15세기 중반 이후의 정치와 사회관계에 심오한 변화를 불러오는 초석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 여기서는 먼저 정치·경제적 현실로서의 시민 인본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1380년대부터 15세기 초반의 시기, 즉, 소위 치옴피 반란(Ciampi Revolt) 이후 수립된 마지막 길드 기반 인민 정부가 붕괴한 1382년 이후부터 메디치(Medici) 가문이 집권하는 1434년 이전까지의 반세기가 시민 인본주의 이념을 낳았다는 점에 많은 학자가 동의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정치·경제적 현실로서의 시민 인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요약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미 14세기 중반, 즉, 치옴피 반란 훨씬 이전의 시기 동안 피렌체 지역 국가 및 코무네(commune) 정부에서 중세적 지배구조는 이미 붕괴하였다는 데 있다. 즉, 구 귀족 지배체제 또는 특권 세력 연합 길드 공화주의가 메디치의 성장에 훨씬 앞서 이미 쇠락하고 있었다. 귀족 가문이나 그들과 연계한 과두적 길드 중심의 사적 경제에서 벗어나, 정부 지출과 차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시스템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기본 구조가 이동을 시작했다. 중세의 면책·특

권·자유는 전방위적으로 침식되고 있었다. 토스카나 교회, 겔파당(Parte Guelfa), 길드, 공정 상인, 종교 단체에게는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었고, 그리하여 마침내 1380년대에는 이들은 더 이상 강력한 정치적 실체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귀족 가문이나 교회의 종속 영토, 농촌 교구 및 시골 마을은 이미 14세기 중반에 많은 자율권을 상실했다(Becker, 1968: 122). 이는 다시 말해, 치옴피 반란이 피렌체에서 공화주의 체제가 성립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피렌체 코무네 정부와 공적 관리조직의 지휘력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Hankins(2000)가 힘을 주어 강조하는 것처럼, 공화주의 체제의 인류사적 원초가 미국 건국 체제라는 일부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이탈리아에서 이미 14세기 중반에 공화주의 체제가 융성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이러한 공화주의 체제는 이웃 도시국가와의 생존 경쟁과 그 결과로서의 침략과 착취가 오히려 당시의 피렌체 시민들에게 많은 실리를 안겨준다는 데 착안하여, 공화적 관리에 무엇보다도 열심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1406년에 마침내 피렌체에 의해 정복된 피사(Pisa)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밀라노의 비스콘티(Visconti of Milan)와의 전쟁(1388년), 그 외 볼테라(Volterra), 아레초(Arezzo), 코르토나(Cortona), 그리고 리보르노(Livorno)에 대한 전쟁 등이 피렌체 공화정부의 재정수입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피렌체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전쟁은 피렌체 자본가들의 기회를 확대하였고, 용병들은 급여의 대부분을 도시에서 썼고, 피렌체 상인들은 식량을 수입했으며, 사업가들은 정부 계약으로 온갖 이익을 얻었다. 연이은 전쟁과 거기에서의 승리는 피렌체 경제 상황의 개선뿐만 아니라 대중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이바지했던 것이 사실이다(Becker, 1968: 126-133).

한편, 피렌체 코무네 공화정부의 권한 강화와 함께 내부적 실권은 특권층 이외 계급 출신의 관료에게로 돌아갔다. 이 당시의 체제에 대해서 귀족, 길드 내 거부층을 축적한 상인, 신흥 유입 세력, 노동자 및 기술자 등 모든 구성원에 의해 그 불가피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전쟁 자금의 마련과 맞물린 연금 및 공채이자 수입 등 공화국 재정에 의존하는 시민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사실상 정치적·경제적인 이익은 공화국의 복지에 이바지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렌체 코무네 정부에서 특권층 이외 계급 출신의 관료가 실권을 장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천문학적 재원을 보유한 공적 주식으로서의 몬테(Monte)와 그 관리자들은 대부분 특권층 이외 계급 출신의 관료들이었는데, 이들의 업무 처리가 상당히 정교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처럼 실제 생활의 경험을 통해 당시의 피렌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특권층 이외 계급 출신의 관료에 의한 공화주의적 관리구조가 가장 효율적인 체제라는 증거를 많이 확보하였다. 결과적으로, 14세기 중반 이후로 이미 진행 중이었던 중세 구조의 몰락과 함께 관료 중심의 전문화된 공적 재정의 확대 추세는 15세기에 가속화됨으로써, 소위 메디치(Medici)로 대변되는 더욱 강력해진 국가 주도적 지배구조의 정당화 및 확립이 그 이후의 시기 동안 이어진 셈이다(Becker, 1968: 130).

동시에 역설적으로, 중세 지배구조의 붕괴가 누적되면서 특권층 이외의 계급 출신들이 성장할 수 있었고, 이런 추세가 누적됨으로써 마침내 치옴피 반란으로 대표되는 인민 주도적 지배구조의 모색도 가능해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큰 흐름은 치옴피 반란 이후 반동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옛 통치구조로의 완전한 반동적 복귀가 발생하지 못하게 했다. 치옴피 반란 이후 수립된 반동 정부가 인민 지향적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상황의 핵심은, 이 격변의 시기에 실은 전혀 다른 성질의 두 가지 공화주의, 즉, 특권 세력 연합 길드 공화주의(elite guild republicanism) 대(vs.) 인민적 길드 공화주의(popular guild republicanism)가

서로 대립하였다는 데 있다. 특권 세력 연합 길드 공화주의는 주요 기득권 길드와 거대 상인 및 소수의 장인이 주도하였다. 반면, 인민적 길드 공화주의는 기타 길드와 노동자 및 그동안 대표권을 인정받지 못한 장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리고 이들 모두를 아울러 14세기 중반부터 15세기 초반 피렌체 지역 국가에서 실질적인 공화국 정부의 운영은 중간 계층, 즉 주요 길드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특권층 이외의 계급 출신이었던 소위 포폴로(popolo) 계층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한 포폴로 관료 엘리트의 대표적 인물이 L. 브루니이다. 그는 피렌체 시민 공화주의 체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특별 위원회, 즉 발리에(Balie)에 배치된 특권층 이외 계급 출신의 관료 중 하나이면서 후일 피렌체 공화국 서기장(Chancellor of Florence)이 된 바 있다.

포폴로 관료 엘리트들은 주요 길드 내에서 소수이면서도 정치적·경제적으로는 강력했던 귀족 가문 등의 전통적 엘리트에 대항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시민 인본주의의 진정한 적은 밀라노 공국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구 특권 귀족 중심 세력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1292~95년, 1343~48년, 1378~82년 등의 기간에 등장했으며 점점 더 급진화되었던 인민적 길드 공화주의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실세였던 포폴로 계층은 점점 더 급진화되는 인민적 길드 공화주의를 겪으면서 당초에 구세력에 대한 대중의 도전이 시작될 때 지지했던 헌법적 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공감대 범위를 인민적 길드 공화주의 세력들이 훨씬 넘어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애초 예상보다 훨씬 급진적인 자율권과 협상권을 노동자와 무연고 장인들에게 허용하려는 인민 정권을 두고 그들 자신의 세속적 이익과 가치관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판단하였다(Najemy, 2000: 81-83). 이처럼 고뇌에 빠진 포폴로 관료 엘리트들에 의해서 추구된, 새로운 형태의 피렌체 공화주의의 방향성에 대한 지적 표현이자 이념적 산물이 시민 인본주의이다.

종합해 보면, 정치·경제적 현실로서의 시민 인본주의는 중세의 느슨하고 편안한 지배구조가 물러난 뒤에 등장한 제국주의적인 성격의 매우 엄격한 정권과 맥을 같이 한다. 15세기에 이르러 ‘공화국’ 또는 ‘코무네’라는 용어는 더 이상 농촌 영토에 대한 느슨한 통치를 특징으로 하는 정부를 의미하지 않았다. 중세의 자유방임주의적 통치는 도시와 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엄격한 통치로 대체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14세기 중반부터 15세기 초반의 현실적 삶이 가지고 있던 절박한 정치적·경제적 필요성을 그대로 반영한다(Becker, 1968: 132). 시민 인본주의는 그러한 냉엄한 현실에 충실한 사상이다.

2. 피렌체 시민 인본주의의 이념적 의의

정치·경제적 현실로서의 시민 인본주의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데 반해, 이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민 인본주의의 의의 및 그 가치는 사뭇 다르다. 구체적으로는, 피렌체 공화국 서기장을 지낸 L. 브루니가 부(wealth)의 긍정적 가치를 주장하면서 도시에 대한 부의 가치는 개인에 대한 피와 같다고 단언한 진정한 의도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서기장이자 저명한 인본주의자인 포지오 브라치올리니(Poggio Bracciolini)가 무역과 상업을 극찬하면서 도시의 화려함, 아름다움, 예술을 가능하게 하는 부를 얻을 수 있게 한 성과를 강조한 배경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귀도 카발칸티(Guido Cavalcanti)가 피렌체에 대해 ‘코무네는 결코 죽을 수 없다’라면서 어려움을 견디고 다시 번영할 것을 촉구하였던 진짜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Becker, 1968: 127-135). 시에나의 산타마리아 델라 스칼라(Santa Maria della Scala) 병원의 프레스코화와 같은 작품에 나타난 시민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두고 그 후대, 즉, 메디치 가문 치하의 피렌체 공국에서 보여주던

비현실적인 전원적 삶에 대한 동경을 표현한 풍경화와는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룬다는 주장(브루니, 2020)도 그 궤를 같이한다. 단순히 세속적으로 부유한 도시에서의 삶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무엇인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민 인본주의의 본질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비판적인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정권이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시민 공화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해, 시민 인본주의자들이 표출한 이상의 주장이 사실상 금권적 포퓰리즘 체제에 대한 일방적인 찬미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의의제기에 관한 판단은 1) 일관된 개인적 신념(*consistent private belief*)의 여부, 2)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치적 진실(*objectively verifiable political truth*)의 충실한 반영의 여부, 3) 이념 및 철학(*ideology and philosophy*)의 여부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점검해 볼 수 있다(Najemy, 2000: 79-80).

여기서 일단 먼저 우리는 L. 브루니의 피렌체 공화국에서의 자유, 시민적 평등, 참여 정부에 대한 찬미와 15세기 초반의 과도 정치적 성격에 대한 한스 바런(Hans Baron)의 1955년 연구를 위시한 기존 정치역사가들의 주장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제롤드 사이겔(Jerrold Seigel)부터 제임스 헨킨스(James Hankins)에 이르는 다수 비평가의 주장처럼, 콜루치오 살루타티(Coluccio Salutati)와 L. 브루니 등의 시민 인본주의자들이 당시 피렌체 지배 계급의 가치와 태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들은 엄정한 정치철학자가 아니라 피렌체 공화 정권에 맹종하는 관료 또는 전문 수사학자라고 치부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 및 그 근거도 상당하다. 먼저, L. 브루니는 그의 대표 저서인 『피렌체 도시국가 찬미가(Laudatio Florentine Urbis)』를 집필하며 피렌체 체제에 대해 역사상 가장 공화주의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이라고 칭송하였을 때 아직 서기장이 아니었다. 게다가 공화국을 대신하여 글을 쓰고 급여를 받은 적도 없음에도, 시민 인본주의를 대체하여 나타난 메디치 정권에 대해 분노에 찬 비난을 하며 시민 인본주의 정신의 재현을 주장한 알라만노 리누치니(Alamanno Rinuccini)와 같은 훨씬 후대의 인물도 있다. 이처럼 시민 인본주의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고려할 때, 교육과 도덕 철학에 헌신적인 르네상스 수사학 자체를 단순히 고용주의 명령에 따라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전문 수사학자의 그것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즉, 앞서 이 연구의 제2장 1절에서 자세히 언급한 피렌체 시민 인본주의의 정치·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첫째 기준인 일관된 개인적 신념의 여부라는 측면에서 C. 살루타티와 L. 브루니가 제시한 피렌체 공화주의의 미덕은 반드시 그들의 개인적 신념이나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수사적 인공물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둘째 기준인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치적 현실의 충실한 반영의 여부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그들의 발언이 근거해야 할 정치적 현실과의 엄연한 격차로 인해 그들의 발언이 진정성과 무결성을 인증하고 도덕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사상가의 발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오랜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두 조건을 모두 엄격하게 충족할 수 있는 현실의 정치 사상가는 아무도 없다(Najemy, 2000: 79).

하지만 세 번째 기준인 이념 및 철학의 여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즉, 모름지기 정치 사상가는 사회적·역사적·정치적 담론의 전통 내에서 움직이며, 역으로 그 전통을 구성하고 수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의 진정성은 일관된 개인적 신념이나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진실로 축소될 수 없다. 많은 경우 이러한 전통은 ‘신화’라고 불릴 수 있다. 여기서 신화란, 거짓말이나 순수한 창작물이 아니라, 경험·열망·두려움·기억 등

을 세상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다소 일관된 설명으로 구성된 강력한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신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켜야 할 소중한 신념이나 이상과 양립할 수 없는 세상의 어둡고 불합리한 측면을 보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화는 이념 또는 집단적 신념 체계라고도 불릴 수 있다. 결국, 시민 인본주의자들의 신념은 사실상 철학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는 마치, 미국 공화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과거 영국 식민지 정권의 권위에 대한 자신들의 저항을 정당화할 때,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공통된 믿음이 자명한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재산을 소유한 백인 남성들만이 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체제를 만들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Najemy, 2000: 80).

정리하면, 초기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 공화정부의 실질적 리더로서 제3자성의 성격을 규정하는 주체였던 시민 인본주의자들은 당시 정치와 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비전을 자의식적으로 고양시키는 사람들(self-conscious promoters)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주창한 시민적 미덕과 그에 기초한 참여적 공화정치의 기치는 당시 사회의 다양한 세력으로부터 강력한 정치적·지적 지원을 받았다. 따라서 시민 인본주의자들이 제시한 비전은 결코 개인적인 신념이 될 수 없으며, 사회적이고 의례적이며 상당한 정도로 합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주된 역할은 권고적이고 교육적인 수사학으로 자신을 포함한 피렌체 시민들의 냉혹한 정치 현실을 감추는 규범적 담론(normative discourse)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시민 인본주의자들은 특정한 계급이나 집단의 현실적 이익이나 권리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도덕성에 대한 경의의 전통, 즉, 존경받는 정치의 주류 전통(the mainstream tradition of respectable politics)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시민 인본주의는 미덕과 정치 참여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중세의 시민적 전통과 로마 도덕 철학에 기반을 둔 인문학 연구(studia humanitatis) 사이의 중요한 교차점을 형성하였다(Najemy, 2000: 92).

결국, 15세기 중반에 터져 나온 신화·이념·철학으로서의 시민 인본주의의 이상적 주장은 18세기 중반을 넘어 그 이후 현시대에까지 면면히 선각자적인 이탈리아 지식인과 정치인들에게 전승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학문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사상과 스토아철학(Stoicism), 그리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1225~1274)로 대표되는 스콜라 철학(Scholasticism)의 지적 지원과 현실적으로는 바르톨로메오 인티에리(Bartolomeo Intieri(1678~1757)의 후원을 받은 18세기 나폴리 계몽주의(Neapolitan enlightenment) 학파의 수장인 A. 제노베시와 그 후예들이 있다. 나아가 키아라 루빅(Chiara Rubich)이 이끄는 포콜라레 운동(Focolare Movimento)에 기초를 둔 EOC(Economy of Communion)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가들이 1990년대 이후부터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상의 역사적 사실에서 보듯이, 이탈리아만이 16~17세기의 혹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극복하고 인간 및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낙관적인 시각을 배경으로 사회적 경제의 이상을 주창할 수 있었고, 그러한 전통을 구현한 사회적 기업들을 먼저 배출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민 인본주의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정치역사가들 간의 오랜 논란을 비판적으로 정리한 Hankins(2000: 3-13)의 언급에서 보듯이, 시민 인본주의가 이탈리아 피렌체 지역국가를 넘어 이탈리아 전역 및 서유럽 정치사에서 독립된 사상으로 존재했고 꾸준히 후대의 사상가들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독보적인 “이념적 혈통(ideological pedigrees)”이라는 의의 및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탈리아 피렌체 공화국 지도자들의 이념적 혈통이 그 후대 수 세기에 걸쳐 면면히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가 리더십으로서의 제3자성의 성격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III. 사회적 경제이론의 근현대적 체계화

1. 18세기 A. 제노베시의 사상

철학적 측면에서 18세기 전반기에 사회적 경제이론을 집대성한 A. 제노베시의 사상을 하나의 개념으로 압축하면 공공의 행복(public happiness)으로 집약될 수 있다. 여기서 A. 제노베시가 강조한 행복은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욕구의 충족과 그에 따라오는 안녕의 상태를 말하는 ‘펠리시타(felicità)’가 아니다. A. 제노베시가 강조한 행복은 가치 있는 삶과 그로부터 오는 기쁨,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이다. 이러한 의미의 공적 행복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18세기 후반 이탈리아 계몽주의(Italian enlightenment) 정치·경제사상의 핵심 주제였다. 당시 두 개의 주요 이탈리아 계몽주의 정치·경제학자 그룹 중, 특히 나폴리학과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스콜라주의 전통을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데 기반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나폴리의 여러 정치·경제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스콜라주의 전통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과학(new science)’의 방법에 맞추려고 시도했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이탈리아식 사회적 경제인 시민 경제(economia civile)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이다(Bruni & Porta, 2003: 361).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탈리아식 사회적 정치·경제학 전통의 각별한 특징은, 소위 과학혁명기의 위대한 유산, 즉, 갈릴레오-뉴턴 전통(Galileo-Newtonian tradition)의 원리에 비추어 정치·경제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계몽주의 정치 경제학자들은 자연과학, 특히 천체과학 및 물리학 이론을 정치·경제 현상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A. 제노베시의 대표적인 두 저서, 즉 ‘레찌오니(Lezioni)’와 ‘디체오시나(Diceosina)’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⁴⁾

A. 제노베시의 대표적인 두 저서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의 인류학, 심리학과 정치·경제학에서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의 아이디어, 즉, 중력이론(theory of gravity)이 그 핵심적 원천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저서 ‘Diceosina’에서, 어떤 열정은 자신에로의 구심력(forza concentrativa), 즉, 자기애(self-love)의 표현이지만, 다른 열정은 원심력(forza espansiva 또는 diffusiva), 즉, 종(인류)에 대한 사랑, 다시 말해 이타심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A. 제노베시의 행복 이론 전체는 인간적·사회적 또는 물리적 현상이든 모든 현상이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되는 힘, 즉 흡인력과 반발력(the attractive and the repulsive) 사이의 ‘평형(balance)’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그로 하여금 현실의 정치·경제적 삶은 구심력과 원심력으로 구성된 역학적 구조를 가진 존재로서의 거대한 사회적 기계(social machine)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하게 했다(Bruni & Porta, 2003: 378). A. 제노베시의 용어 ‘시민 경제(economia civile)’에서 ‘시민적(civile)’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자연과학과 정치·경제학의 융합과 승화를 통해 제도적

4) A. 제노베시의 대표적인 두 저서는 ‘Lezioni’와 ‘Diceosina’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Lezioni’라고 제목을 쓰는 저서는 ‘Lezioni di commercio, O sia di economia civile(상업 또는 시민 경제에 대한 강의)’를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A. 스미스의 소위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보다 10년이나 앞선 1765~1766년에 출판되었다. 경제학에 관한 세계 최초의 근대과학적 논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Diceosina’라고 제목을 쓰는 저서는 ‘Diceosina, o sia della filosofia del giusto e dell’onesto(디체오시나, 또는 정의 및 정직에 대한 철학)’을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1766년에 불완전한 상태로 발간되었으나 실제로는 ‘Lezioni’보다 1년 뒤인 1767년에 발간 완료되었다. A. 제노베시의 시민 경제이론의 윤리적·철학적 근거를 압축하는 저서로서 당시 나폴리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 지침서라고 평가되고 있다.

상호 작용의 매우 정교한 융합을 함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Bruni & Porta, 2003: 362).

한편, 이러한 A. 제노베시의 사회적 경제사상이 구체화된 데에는 당시 18세기, 특히 나폴리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의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 있다. 1753년 A. 제노베시가 나폴리 대학에서 시민 경제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미 나폴리에서 형이상학과 논리학 교수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1750년대 초에 자신의 개인적 전환에 대해 스스로 “형이상학자(metaphysico)에서 상인(mercadante)”이라고 표현할 만큼 획기적인 변곡점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대전환에는 당시 나폴리의 문화적 환경 자체에서, 과학은 사회 개선과 대중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강력한 확신과 열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철학자에서 시민 경제학자로 극적인 전환을 해가며 “이탈리아판 애덤 스미스 문제”를 끌어안은 것은 과학의 시민적·사회적 유용성에 더욱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지식인들의 내적인 열정의 발현에 기인하였다(Bruni & Porta, 2003: 377). 이는 마치 15세기 전반기의 피렌체에서 척박한 현실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덕성으로 무장하고 공동체와 개인의 동시적 발전을 열정적으로 주장했던 L. 부르니 등의 시민 인본주의자들의 이념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것이다.

사실, 근대 이전부터 이탈리아는 다양한 문화의 교차로였다. 특히 유럽의 대표적 항구도시로서 나폴리는 유럽 문화 전체와 사상이 깊이 교차하고 수정되는 장소였다. 나폴리의 옛 이름, 즉 ‘네아폴리스(nea-polis)’가 의미하듯이, 이미 기원전 시기부터 이탈리아 남부가 그리스의 식민지이면서 문화적 교류의 중심지였다는 것만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더 나폴리학과에는 18세기경 유럽 과학 문화의 전형이라고 여길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을 골라낼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당시 나폴리의 시대적 맥락에서 시민 경제와 공공의 행복이 왜 두드러졌는지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민 경제와 공공의 행복이라는 두 개념의 긴밀한 연결은 18세기 후반 밀라노학파에서와 마찬가지로 나폴리 정치·경제학파의 중요한 특징이다. 즉, 18세기 나폴리학파의 첫 번째 특징적 요소는 스콜라 신학 및 철학의 강력한 존재감이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가 생전에 나폴리 대학교에서 교수와 교사로 활동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T.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선한 인간(good man)’의 친구와의 우정(Brown, 2009), 그리고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 즉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열정을 공공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중세를 거쳐 근대 이탈리아로 끌어낸 장본인이다. 따라서 공공의 행복과 관련하여 모든 이탈리아 정치·경제학자들은 어떤 지역적 배경을 가지고 있든, 이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Bruni & Porta, 2003: 373).

이는 다시 말해, A. 스미스처럼 경제학이 ‘국가의 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탈리아 계몽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이 ‘공공(publicum)의’, 즉 ‘성숙한(pubes) 인민(populus)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가 리더십으로서의 제3자성에 대한 이탈리아식 전통이 그 외 어떤 서구 유럽 국가에서의 정치·경제적 논의와도 근본적으로 구분된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 Reinert(2005: 40-41)의 주장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근대 초기 계몽주의 이후부터 국가를 든든한 자극자(stimulator)이자 촉진자(facilitator)로 하는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영국 등이 일방적인 국가 개입이나 독점적 특권을 인정하면서 만들어 낸 것보다 그 발전의 성공 정도에서나 지속성에서 훨씬 효과적이었던 역사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특히 나폴리 학자들을 중심으로, 시민 경제는 인민들(the people)의 행복을 증진하는 도구와 방법을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당시에 ‘기계학’으로 표현된 자연과학도 그러한 도구 중 하나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다(Bruni & Porta, 2003: 376).

자연과학을 바라보는 이러한 혁신적 사고는, 나폴리학파의 두 번째 특징적 요소로, 18세기 나폴리 문화의 중심인물인 지암바티스타 비코(Giambattista Vico: 1668~1744)의 뛰어난 역할을 지목하게 한다. G. 비코에게 있어서 과학은 시민 생활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실제적 응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였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시민적 실천이나 사회생활에 있었는데, G. 비코의 사고체계는 사회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G. 비코의 사고체계에서 시민적 삶이나 시민 사회를 향한 자기 주도적인 열정만이 ‘시민적 행복’을 산출해 낼 수 있었다. 이는 15세기 피렌체 공화정 시대의 시민 인본주의자들이 정치와 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비전을 자의식적으로 고양시키는 사람들이었다는 점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세 번째 요소로 나폴리 시민 및 경제 르네상스의 두 주요 인물인 셀레스티노 갈리아니(Celestino Galiani: 1681~1753)와 바르톨로메오 인티에리(Bartolomeo Intieri: 1678~1757)의 역할과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나폴리에서 뉴턴의 사상이 확산된 것은 1730년대, 즉 C. 갈리아니가 나폴리로 이주하여 1732년부터 왕국의 주요 사제로 유명해진 때부터이다. 그 이전에 이미 그는 로마에서 활동하며 갈릴레오, 뉴턴, 가센디(Gassendi)의 새로운 과학 및 철학적 사상을 반영하여 스콜라주의 전통을 업데이트했다고 한다(Bruni & Porta, 2003: 374). 즉, B. 인티에리는 피렌체의 시민적 인본주의 전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시민적 인본주의의 비전을 추종하여 과학은 단순한 지적 추측의 대상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시민적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고수했다(Baron, 1988). B. 인티에리에게 있어 과학은 기술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는 개혁과 인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잣대를 통해 사회적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했다.

한편, 이러한 지적이고 실천적인 진화가 실제로 일어난 장소는 1732년 C. 갈리아니와 B. 인티에리가 나폴리에 설립한 ‘과학 아카데미(Accademia delle Scienze)’였다. 과학 아카데미는 동시에 갈릴레이, 로크, 뉴턴 사상을 확산하는 장소였다. 또한 나폴리 왕국의 예술과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실험이 고안되고 실현된 작업장이 되었다. 시민 경제와 기계학의 연속적 사슬이 서로 연결된다는 아이디어를 주창한 B. 인티에리가 1753년 나폴리대학에 새롭게 설립한 학과의 이름인 ‘기계학과 시민 경제’는 그의 철학적·문화적 접근 방식의 상징이다. B. 인티에리가 나폴리대학에 설립한 새로운 학과의 첫 번째 학과장 직책을 맡을 사람으로 선택한 A. 제노베시가 당시에는 나폴리에서 가장 명성 있는 경제학자는 아니었다는 점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비전과 정치 철학과 일치하는 젊은 인재를 간절히 찾고 있었는지를 방증한다(Bruni & Porta, 2003: 375). 이처럼 14~15세기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었던 시민 인본주의의 제3자성로서의 국가적 리더십에 대한 이념적 혈통은 이탈리아 지성사에서 면면히 그 맥을 이어오면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다시 발현되고 업데이트되며, 더욱더 구체적이고 정연한 형태로 진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2. 이탈리아 사회적 경제이론의 현대적 재발견: EOC

중과를 초월한 혁신적 영성운동인 포콜라레 운동(Focolare Movimento)의 창시자인 키아라 루빅(Chiara Rubich)은 1991년 5월에 브라질 상파울루(Sao Paulo)를 방문하면서, 파벨라스(Favelas), 특히 최대 부촌으로 알려진 모룸비(Morumbi) 지역의 극단적 빈부격차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기존의 영성운동을 확장하여 좀 더 현실적인 문제의 개선에 초점을 둔 새로운 경제모델, 즉 EOC(economia di comunione; economy of communion)를 주창하게 되었다. ‘economy of communion’은 국내에서 처음에는 ‘공유 경제’로 번역되었다. 그러다가, 2008년 미국 하버드대학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에 의해 불특정 다수 사회구성원 간의 대여와 차용을 통해 제품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협업적 소비 개념으로서 제시된 ‘sharing economy’를 ‘공유 경제’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2011년경부터 국내에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록 원어로는 전혀 상이한 개념이지만 사용상의 혼선을 피하려고 약칭인 ‘EOC’ 또는 ‘모두를 위한 경제, EOC’로 번역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원래 ‘communion’이란 친교·나눔·공유·일치 등 여러 뜻으로 번역될 수 있고, 가톨릭 교리에서는 삼위일체, 즉 성부-성자-성령이라는 세 위격 사이의 영원한 나눔과 친교 및 소통을 의미한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성체를 받아 모시는 행위인 영성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economy of communion’은 다시 말해, 경제 활동에 있어서 계약과 거래와 같은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교환 행위, 나아가 그렇게 익명화됨으로써 피상적으로 축소된 친교와 나눔 및 소통을 넘어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근본적인 가치와 이상의 나눔과 깊은 일치의 관계를 경제적 삶 속에서 지향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가난한 이들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가난한 이도 부유한 이도 배제되지 않는 경제,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롭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경제를 창출하겠다는 말이 된다(EOC Korea 홈페이지 참조).

사회적 경제 활동으로서의 EOC에 대한 이론적 기초는 루이지노 브루니(Luigino Bruni), 베네데토 구이(Benedeto Gui), 스테파노 자마니(Stephano Zamagni)를 위시한 유럽 각지의 다수 사회과학계 교수와 학자들이 범유럽 지식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제공하고 있다. EOC의 본질은 이들 학자가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경제학적 합리성, 즉 우리-합리성(we-rational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우리-합리성이란, 전통적인 개인이기주의(individual egoism)와 목적 지향적인 수단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을 대체하는 관계 지향적 합리성을 말한다.

우리-합리성은 다시 여러 개의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구체화할 수 있는데, 첫째, 이념이나 계급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보편적 개방성(universal openness)에 대한 열망과 우리 의식(sense of we)에 기초한 지역공동체를 향한 강력한 소속감, 둘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결정은 사실 반드시 어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타인과의 관계 그 자체로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즉, 관계재: relational goods)를 만들어 냄을 강조하는 구성적 관계(constitutive relation)의 강조, 셋째, 사회적 경제 활동가 개인이 보유한 내재적인 비전과 이상을 혼자만의 것으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강력한 내적 동기부여(intrinsic ideal motivation)의 존재, 넷째, ‘너’와 ‘나’만의 주고받음이라는 폐쇄적이고 조건부의 거래적 관계를 뛰어넘어, 먼저 무상으로 내어주는 무조건적 선물과 그에 대한 감사(gratuitousness)가 지속해서 이어지는 순환적·전이적 호혜성(transitive reciprocity)이라는 네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다(Bruni, 2002; Gui, 2005; Bruni & Uelmen, 2006, Bruni & Zamagni, 2007).

한편, 이러한 EOC의 본질은 앞서 살펴본 15세기 시민 인본주의 및 18세기 A. 제노베시의 철학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한다. 왜냐하면, 피렌체 공화정 시대의 시민 인본주의자들은 도시와 같은 공적이고 공유된 공간 안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타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상적인 공동체의 삶이라고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A. 제노베시는 ‘시민화(civilization)’, 즉, 도시 생활의 영위와 덕성의 발휘라는 차원에서 경제를 바라보았으며, 시민화의 필수조건으로 부의 평등한 분배를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화를 통해 도시와 같은 공개적이고 공유된 공간 안에서의 삶이 공공의 행복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그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 철학과 맞닿아 있다. 또한 A. 제노베시는 시민적 덕성에 기반한 호혜성(reciprocity)의 인정과 연대(solidarity)를 건설한 시민 사회라면 마땅히 그 내부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보이는 구조(visible fabric)’라고 칭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다(Bruni &

Zamagni, 2007). 이러한 보이는 구조가 바로 현시대의 용어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고 할 것이다.

파생적으로, EOC의 정신에 충실한 기업들은 일반적인 영리 추구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의 사회적 경제주체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EOC가 이탈리아식 사회적 경제이론의 현대적 재발견이라고 불릴만하다. 그 첫째는 의도적 위험감수성(intentional vulnerability)의 수준이다. 이탈리아 사회적 경제이론의 현대적 버전으로서의 EOC 원리는 해당 기업에 대해 어떠한 외부의 공적 지원 없이 스스로 재정적이고 조직적인 생존과 발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런 만큼 EOC 기업들은 일반적인 영리 추구 기업이나 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의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감내해야 할 수준보다 훨씬 큰 위험감수성을 요구받는다. 즉, EOC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그 스스로 훨씬 더 강한 위험감수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OC 기업들은 공동체의 공적 행복과 시민적 덕성의 함양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 하에서 그러한 취약성을 기꺼이 감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runi & Tufano(2017)는 Stanca et al. (2009)의 2인 대칭적 선물교환 게임(two-player symmetric gift-exchange game)을 설계하여 실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신뢰를 받는 자들은 자신들의 배신적 보답, 즉, 자신들이 애초에 받은 선물의 크기보다 자신들이 보답한 선물의 크기가 작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신뢰를 자신들에게 보여주는 신뢰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자신들의 초기적 행태를 변화시켜 그들이 받은 신뢰에 부응하며 교호적인 보답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관측하였다. Bruni & Tufano(2017)의 연구는 현장의 EOC 기업 경영 사례에서 그 적실성이 그대로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의 Indianapolis 시에 위치한 먼델 앤 어소시에이츠(Mundell & Associates)의 경우, 경영진이 내부 근로자와 외부 거래기업에 대해 꾸준한 의도적 위험감수성을 실천한 결과, 조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부적으로는 가치 일치를 이루어냈다고 한다. 나아가, 외부 기업과는 무한 경쟁 대신에 협업과 지역공동체 개발에 대한 동참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Mundell & Associates 홈페이지 참조).

둘째는 식물형 생태계(plant-like ecosystem)의 조성이다. Bruni(2016a; 2016b)에 따르면, EOC 정신에 충실한 기업들의 생태계는 자생력(viability)과 생존-회복 능력(resilience-recovery capability)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한다. EOC의 정신에 충실한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대안적 경제주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본질이 마치 ‘식물’과 같기 때문이라고 설파하였다. 즉, 잘 발달한 EOC 기업은 ‘식물’과 같아서 조직의 전 지체를 통해 생태계와 교호적으로 활동하므로, ‘고등동물’과 같은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중심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만큼 형식을 불문하는 만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직 내·외부의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관계 안에서의 주체(subject-in-relation)로서 생태계 안의 모든 조직이나 기업가들은 서로를 환대하고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Gold, 2010). 결과적으로, 성숙한 EOC 기업은 지역사회 참여 활동과 비사업적 영역 이슈 개발에서도 자발성과 창의성을 보인다. 또한 ‘머리’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체’가 적극적으로 현장 적응적인 대응을 전방위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위기에서도 그 본연의 활력을 다시 회복하는 자생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 나아가, 매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나 인근 주민의 삶과 감성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지역공동체에서 찾으려고 한다. 더욱이, 여타의 사회적 경제조직 및 그 구성원들과 긴밀히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신들이 품은 이상과 뜻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EOC 사업체 국제 네트워크 홈페이지 참조).

IV. 이탈리아와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 비교분석

1. 분석의 틀(사례 분석의 초점)

이탈리아와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 파악을 위해 동원하는 비교 사례 분석의 초점은 한마디로 이론적 배경에서 강조한 ‘이념적 혈통(ideological pedigrees)’의 존재 여부이다. 즉, 피렌체 공화정의 초기 르네상스 시대 시민 인본주의자들의 사상에서부터 받아하여 18세기 A. 제노베시의 시민 경제이론을 통한 체계화를 거쳐 20세기의 C. 루빅과 그 동료들에 의한 EOC로의 재탄생에까지 이르게 한 이념적 혈통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확고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강력한 내적 동기 부여로 작용하고 있는가는 것이다. 이처럼 강력한 정신적 전통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야만 사회적 경제 활동에서 오는 갖가지 현실적 고충을 이겨내고 마침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이념적 혈통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첫째, 공화주의적 전통의 존재 여부이다. 사회적 경제 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국가 리더십의 특성이 지배(시혜)-복종(수혜)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주체들 간의 만남에 기초하고 있는가는 것이다. 즉, 국가 복지시스템의 고질적인 한계인 위계적 제3자성, 또는 모든 것을 규정과 시스템이라는 제도적 익명성 안에 가두고 개인의 독자성에 대한 인정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맺음에는 사실상 무관심한 가운데 사회적 경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문병기, 2023).

둘째, 도시적 전통의 존재 여부이다. 구시대 또는 전근대적인 모든 구습이 지배하는 전통사회로부터 오는 각종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지향하며 사회적 경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분(계급이나 계층)·출신 지역·인종·성별 등에 따른 불평등이나, 구조적이거나 제도적인 차별에 저항하거나 이를 극복 또는 타파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말로 사회적 경제 활동의 진정한 개방성(openness)을 의미한다(문병기, 2016).

셋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참된 친구와의 우정 또는 가치 있는 삶(eudaimonia)을 추구하는 전통의 존재 여부이다. 이는 다시 말해, 자신 또는 자기애(self-love)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며, 의도적 위험감수성의 실천을 통해 공공의 행복을 지향함으로써 가난과 불평등과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미로 사회적 경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가는 것이다(문병기, 2018). 보다 구체적으로는, 물질적 빈곤 외에도 감성의 빈곤, 교육적 빈곤, 심리적 빈곤, 대인관계의 빈곤, 불우한 성장 과정으로부터 오는 트라우마에 포획되는 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활동을 통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따로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가난한 이들과 ‘실제로 함께하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단순히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거나 주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보는 한계를 극복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상호성 강조의 전통이 존재하는지이다. 거래적이고 계약적 보상관계에 국한하지 않는, 따라서 무조건적·순환적·전이적 호혜성에 기초하여 사회적 경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가는 것이다(문병기, 2020). 이타심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유형·무형의 보상을 전제로 하는 거래적 관계를 당연시하는 기존 사회복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결국, 모든 사람이 주고받을 수 있는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며, 표면적인 부유함과 가난함의 극복을 초월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기존 사회복지시스템의 고질적 부작용인 의존성과 스스로부터 또는 타인에게서 오는 모든 무능함의 낙인을 극복하도록 사회적 약자들을 인도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이탈리아식 사회적 경제 현황

비교 분석의 첫 번째 차원인 공화주의적 전통과 관련하여, 자코모 리나로(Giacomo Linaro)가 이끄는 타사노 그룹(Groupo Tassano)이라는 EOC 회사는 1972년경 설립 초기부터 Focolare 이상을 사는 협력자들과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즉, 1991년 국가나 지방정부의 관련 법제화 이전에 민간기업가들이 스스로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고자 한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활동 등 사회적 경제의 이상을 실천함에 있어서 협력자들이 동등한 자격에서 협의 및 합의를 끌어내었다. 또한, 회사 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그 이름을 리더인 G. 리나로 대신에 사회적 경제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동료인 로베르토 타사노(Roberto Tassano)의 이름을 따라 로베르토 타사노 협동조합 컨소시엄(Consorzio di Cooperative Roberto Tassano)으로 명명하기로 하였다(EOC Global Gathering(2025.09.30) 자료 참조).

또 다른 예로서, Trento 지역 피에트로 콤페르(Pietro Comper)가 이끄는 테크노도어 합자회사(Tecnodoor Sas di Comper Damiano e Fratelli)라는 잠금장치 설계 및 제작 전문회사가 있다. 이 EOC 기업은 1994년에 설립되었는데, 그 이전인 1984년에 이미 사회적 경제 기업가 정신을 알고 그러한 열정을 살고자 하였다. 즉, 어떠한 국가나 공적 지원 없이 온전히 자발적으로 사회적 경제 활동에 뛰어들었다. 또한 이러한 열정을 혼자만의 것으로 하지 않고, 이상을 공유한 다른 기업가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신제품 개발이나 새로운 공정을 개발할 때는 회사 구성원 전체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전체 직원회의를 개최하고,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EOC Global Gathering(2025.05.27) 자료 참조).

둘째, 도시적 전통과 관련하여, 타사노 그룹의 창업자인 G. 리나로는 이탈리아 Liguria 지방 출신으로 이탈리아의 특수성인 코무네(commune) 중심 사회 경제 시스템에 의존할 수도 있었지만, 이러한 구조적 틀에 구애되지 않았다. 즉, 타지 사람이면서 EOC 선배 기업가인 알베르토 페루치(Alberto Ferrucci)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경영의 방향을 더욱 개방적으로 전환했다. 그리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가가 더불어 사회적 경제 활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였다(EOC Global Gathering(2025.09.30) 자료 참조).

한편, 테크노도어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내 경영진과 노동자라는 전통적 구분을 혁파하고,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나누어지며 각자 독립된 인격체로서 서로를 위해 일하는 연쇄적 책임의 연결고리에 있음을 강조하고 또 이를 실천하였다. 이러한 공동 책임의 연쇄 고리는 조화와 친교를 창조하면서 더 이상 회사를 노동의 제공과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작업장이라는 고정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테크노도어 합자회사는 기술 중심 회사의 고정 관념을 깨고 여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잠금장치의 기계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편리함과 심미성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EOC Global Gathering(2025.05.27) 자료 참조).

셋째, 참된 우정과 가치 있는 삶 추구의 전통과 관련하여, 타사노 그룹은 지역사회 내 약자들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조건 없는 참여와 헌신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헌신은 여타 관련 기업으로부터 은퇴한 엔지니어들이 창설한 엔지니어협회와의 연계를 성사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결과적으로 회사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Liguria 지방의 취약 계

층, 특히 마약 중독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과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 뒤에 돌아온 지역사회의 인정을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회사를 “입양”해준 것으로 해석하는 등, 상호 연대를 넘어서 온전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였다(EOC Global Gathering(2025.09.30) 자료 참조).

또 다른 예인 테크노도어 합자회사의 P. 콤페르는 회사 내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이 신뢰하기로 선택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인내심을 가지며, 기업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에 봉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업가의 태도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열정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였다. 즉, 의도적 위험감수성을 과감히 실천함으로써 기업이 명실상부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고, 그 안에서 공공의 행복이 증진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테크노도어 합자회사는 조르다노연구소(L'Istituto Giordano)로부터 잠금장치 관련 주요 기술 인증들을 받은 바 있고, 내열성과 바람에 견디는 특성 등에서 유럽연합 위원회 마크(Marcatura CE)를 통해 품질보증까지 받게 되는 혁혁한 발전을 이룩하였다(EOC Global Gathering(2025.05.27) 자료 참조).

넷째, 상호성 강조의 전통과 관련하여, 타사노 그룹은 동종 유사 기업들과 경쟁하지 않으려 하였고, 수익의 창출보다는 일단 먼저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초기에는 다소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점차 신뢰의 연쇄적 사슬이 형성되면서 더 많은 일거리 확보와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무조건적·순환적·전이적 호혜성의 실천은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Liguria 지역 내의 모든 시장과 시평의회가 만장일치로 타사노 그룹 본사 부지의 대체용 토지를 마련해 주는 데에 합의하는 보답으로 돌아왔다(EOC Global Gathering(2025.09.30) 자료 참조).

한편, 테크노도어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여러 형태의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회사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마침내 장애를 극복하게 하였다. 즉,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표면적인 장애나 가난함을 초월하여 서로의 영혼을 나눌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였다. 영혼의 교감을 통한 심층적인 인간관계의 창출을 통해 진정한 공동선(common good)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고, 생산이라는 기업활동을 통해서도 모두가 모두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였다(EOC Global Gathering(2025.05.27) 자료 참조).

이 외에도 이탈리아에는 레오 안드링가 빈곤관측소(OPLA: Osservatorio sulla povertà ‘Leo Andringa’)가 2016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레오 안드링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며 빈곤한 이들을 돕는 데 헌신했던 인물로서, 그의 선구적 삶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OPLA는 전 세계의 EOC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빈곤 퇴치 모범 사례의 수집을 진행하며, 그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뉴스레터(Bollettino) 등의 발행을 통해 널리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EOC Korea(2025.11.25) 자료 참조).

이탈리아식 시민 인본주의의 이념적 혈통을 이어받아 브라질에서도 사회적 경제 활동이 활발하다. 그 하나의 예로서, 브라질 EOC 전국협회(ANPECOM: Associazione Nazionale per un Economia di Comunione)에서는 ‘극복(Supera)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모금 및 지원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가난한 이들의 삶의 구체적 모습에 대한 심층적 자료 수집을 위한 방문과 대화를 통해 그들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가난한 이들의 독립을 위한 활동이나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관련된 다양한 조언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나 자신 기업가로서, 그리고 세계의 기업가들과 함께(Io, l'imprenditore di me, insieme imprenditori del mondo)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리학적 기법 제공을 통해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기업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즉, 그들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위한 도구이기보다는 자존감 있는 성숙한 인격적 존재로서 사회적 경제의 이상을 실천하

는 승화된 기업가의 삶을 일구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EOC 기업체 국제 네트워크 홈페이지 참조).

3.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

한국의 사회적 경제계는 사실상 정부 내 다수 부처의 범 사회적 경제 진흥 사업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할만하다(김신양, 2022). 즉, 국내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국가복지사업, 특히 자활공동체 사업의 연장선 또는 발전적 형태로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 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06년 말 고용노동부가 주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을 필두로 하여,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기획재정부의 사회적 협동조합,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기타 유사한 여러 사회적 경제 사업이 경쟁적으로 시행되면서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의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반면, 질적 성숙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데 많은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이 연구가 초점을 두고 있는 이념적 혈통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것들이 어떻게 국내 사회적 경제의 토착화 및 질적 성숙에 장애를 만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공화주의적 전통의 존재 여부, 즉, 사회적 경제 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국가 리더십의 특성이 지배(시혜)-복종(수혜)의 관계가 아닌 평등한 주체들 간의 만남에 기초하고 있는가는 기준에서 봤을 때, 한국은 고질적인 위계적 제3자성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국가가 온전히 장악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를 국가의 규정을 통해 판정하는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창의, 혁신)형, 지역사회 공헌형이라고 명명된 다섯 가지 유형에 국한되어 지원하여야 하며, 각각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취약 계층 근로자 비율이나 사회적 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 결과 등의 정량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 평가에 있어서도 굳이 국가가 정한 기준 이외에 다양한 대안들을 폭넓게 인정하여야 하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탄력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김경희, 2023). 그만큼 사회적 경제가 근대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정과 시스템이라는 제도적 익명성을 넘어서서 개인의 독자성과 사람들 간의 관계 맺음을 회복하고자 발현되었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도시적 전통의 존재 여부, 즉, 계급이나 계층·출신 지역·인종·성별 등에 따른 불평등이나, 구조적이거나 제도적인 차별에 저항하거나 이를 극복 또는 타파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진정한 개방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는 기준에서 봤을 때, 한국의 사회적 경제계는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진흥 사업 등 여타 사회적 경제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공동체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성평등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관심하거나 젠더 이슈가 배제되는 실정이다(조연숙, 2015).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한국 내에서 이민자의 사회 적응과 통합이 강조되면서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및 대화와 교류를 통한 상호 인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김민석·김동일, 2022).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직 한국 국민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이중적이고,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 기반 사회통합 노력이 넓게 확산되지 않아, 일부 이민자 밀집 거주지역에 소재한 사회적 경제조직이 소수 참여하고 있는 한계를

보임으로써 국내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셋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참된 친구와의 우정 또는 가치 있는 삶(eudaimonia)을 추구하는 전통의 존재 여부, 즉,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따로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가난한 이들과 ‘실제로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는 기준에서 봤을 때, 한국의 현황은 상당히 동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성과관리 시스템을 더욱 세분화시키고 엄격하게 함으로써 익명성을 증진하고 개인의 독자성 인정과 사람들 간의 관계 맺음에는 상당히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임현지(2023)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 평가는 거의 전적으로 경제 양극화 해소 및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편향된 정부의 사업 관리 태도에 대해 현장 사회적 활동가들조차 심각한 애로를 호소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사업 관리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지표(SVI)가 심각하게 현장적합성이 떨어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투여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이나 지역적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김익태 외, 2020). 결국, 사회적 경제 활동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의 추구를 자본주의적 시장구조에 회복시키고, 이를 위해 비금전적 가치, 특히, 관계재를 적극적 양산한다는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 상호성 강조의 전통 존재 여부, 즉, 무조건적·순환적·전이적 호혜성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이 주고받을 수 있는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표면적인 부유함과 가난함을 초월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는 기준에서 봤을 때도 한국의 상황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내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 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회적 가치지표(SVI) 체계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이나 상호성의 고양에 주목하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김익태 외, 2020).

더욱이, 임현지(2023)는 현재 한국의 사회적기업제는 지원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중간지원조직-지원받는 현장 사회적기업이 위계적으로 연결되어, 정부는 예산·경영·판로 지원 부담, 중간지원조직은 세밀한 관리 책임 부담, 현장 사회적기업은 사업 의존성만 심해질 뿐 실질적인 성과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사회적 경제조직이 접촉하는 현장에서의 개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 그 자체도 상호성이 희박하며,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호혜적인 교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할만하다.

V.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현재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사회적 경제조직의 수는 상당하다. 고용노동부가 주도하는 사회적기업 하나만 보더라도 인증 업체 수가 2025년 6월 기준으로 3,064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국내의 사회적 경제계에도 비록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탈리아의 시민 경제의 이념적 혈통을 이어받아 묵묵히 그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대전을 지역적 기반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전국적으로 제빵 제과 업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S’사, 부산을 기반으로 하여 알루미늄 등 특수금속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

하고 있는 ‘L’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착실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H’사 등이 그들이다. 즉, 절대적인 수나 양적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어렵지만, 사회적 경제의 진정한 목적과 지향을 달성하고 있는가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욱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들 기업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진정한 성과를 국내 인증 사회적 경제조직들도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리더십이 어떻게 진화·발전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적으로 이들 우수 EOC 기업들은 이탈리아 시민 경제의 이념적 혈통을 직접적으로 인식받았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1998년경부터 주기적으로 이탈리아나 필리핀 및 브라질 등지에서 개최된 EOC 대회 참가를 통해 시민 경제의 본질에 대해 L. 브루니 교수 등 관련분야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강의 및 세미나를 듣고 자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공유하였다. 나아가 G. 리나로, P. 콤페르, 존 먼델(J. Mundell) 등의 해외 우수 시민 경제 선진 기업가들의 경험담과 철학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직접적이고 계속된 이탈리아 시민 경제의 이념적 혈통 이식을 통해 국내 우수 EOC 기업가들은 혹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자신의 이상을 지켜나갈 수 있었고, 국내 인증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사회적 가치와 이윤의 동시적 창출을 마침내 달성할 수 있었다.

둘째, 물론 이들도 상당한 정도의 초기적 난관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위기를 겪어야 했다. 조직 내부에서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경영방침이라는 의구심과 싸워야 했고, 조직 외부에서도 무관심과 비협조를 모두 견디어내야 했다. 더욱이 국내 우수 EOC 기업가들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가치와 이윤의 동시적 창출은 마찬가지로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였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일관성(consistency)을 유지한 결과 마침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런데, 국내 우수 EOC 기업가들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위기 속에서도 노력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강력한 그들의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였다. 만약 그들에게 현재 국내의 범 사회적 경제 인증 조직들에 제공되는 공적 지원과 촉진 활동이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우수 EOC 기업들이 훨씬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셋째, 국내 우수 EOC 기업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당연시하였고, 각자의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 연구의 맨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탈리아 시민 경제는 현재 국내의 범사회적 경제계에서 견지하고 있는 K. 폴라니와 F. 블록의 시장과 사회에 대한 이분법을 지지하지 않으며(김신양, 2022: 118-119), 자본주의 체제하에 있는 임금노동자의 고통에 대해 부응하려는 노력만이 ‘사회적 경제’라고 고집하지도 않는다. 더욱이 국내의 EOC 기업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관리를 사실상 받지 않고 있다. 그만큼 더 자유롭고 탄력적인 시각 하에서 공공의 행복 실현이라는 사회적 경제의 보편적인 목표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성과가 나올 수 있고, 그만큼 더 풍부하게 ‘인간의 냄새가 나는 시장경제’를 실현할 수 있었다.

넷째, 국내 우수 EOC 기업들은 사회적 경제의 이상과 성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크에 충실했고, 이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18세기 이탈리아 시민 경제의 현대적 모습인 EOC는 순수 민간 차원의 사회적 경제 운동으로서 참가자와 협조자들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그들의 이상과 성과를 홍보하고 자료를 공유한다. 따라서 모든 노드(node)에서 정보가 산출되고, 이는 중심부의 조정하에서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네트워크는 국내의 범사회적 경제계가 사실상 정부의 산하 조직 관리망 역할을 하는 것과는 달리, 실질적인 공생을 도모하는 온전한 생태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의 진정한 활성화를 위한 국가 리더십의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이고 고착화된 방향 제시 관행을 멈추어야 한다. 이탈리아 시민 경제의 이념적 혈통도 매우 중요한 사회적 경제의 한 방향성임을 인정하고, 이를 추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거나 주도한 모든 규정이나 지표 중에서 범유럽 사회적 경제계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거리가 있는 부분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특히, 이탈리아 시민 경제이론의 대가들을 직접 국내에 초빙하거나 그들 주장의 핵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분류 사회적 경제의 아이디어와 실행 전략을 국내 현장의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이 깨닫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위계적 제3자 성격의 국가 리더십을 포기하여야 한다.

둘째,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이윤의 동시적 창출은 매우 달성하기 어렵고 또 달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목표라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예외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실제로 소기의 성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 소모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문제 삼기보다는 보완하는 시각에서 지원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중간지원조직을 매개로 한 통제적 관리 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자극자이자 촉진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재정·경영·판로 지원 외에 새로운 지원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중간지원조직-현장 사회적 경제조직 간에 굳건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기업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 확실하다.

셋째, 성과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이나 창출된 수익의 분배적 사용, 사회적 가치지표 체계에서 열거하는 항목 외에도 사회적 경제 조직이 달성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사회적 가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계재의 생산을 중요한 성과로 인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은 자본주의 체제하에 있는 임금노동자의 고통 해결을 위해 경제적 부의 재배분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수단이라는 협소한 생각을 이제는 거두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공공의 행복 증진이라는 사회적 경제의 더 큰 가치 달성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볼 때, 이민자 사회통합이나 성평등도 좋은 대안적 성과가 될 수 있다. 19세기적 세계관 하에서 가장 두드러진 관심사였던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 해결보다 21세기에는 범인류적 관점에서 국제적 이주현상과 남녀 상호의 온전한 평등이라는 이슈가 더 시의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정책의제에 대해 사회적 경제계가 적극적으로 소임을 찾아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 주도적인 동물형 네트워크를 버리고 식물형 네트워크(plant-like ecosystem)로 전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현재 국내에서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는 머리에 해당하는 정부가 지원자뿐만 아니라 통제 및 관리자 역할까지 하는 방식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 중앙에서는 모든 방향 제시와 관리 책임까지 맡아야 하는 부담이 있고, 현장에서는 수동적으로 따라야 하는 고충이 생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드러나는 필요사항은 삶으로써 직접 뛰고 느끼고 호흡하는 활동가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더욱이 지금까지 자율성과 다양성에 목말라하던 의욕적인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스스로 책임과 주도권을 가지고 판단하고 대응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자생력과 생존-회복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를 통해 국내 인증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미흡한 자립 능력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경제계가 위기를 벗어나 진정으로 정착 및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의 시민 경제를 범 사회적 경제의 광의적 범주 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시각 하

에서 집필되었다. 그리하여 먼저 15세기 초반 이탈리아 피렌체 공화정 시대의 시민 인본주의와 18세기 이탈리아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A. 제노베시의 시민 경제이론, 나아가 이를 현대적 시각에서 승화 발전시킨 EOC의 이론과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탈리아식 EOC 기업들의 성공 원인을 이념적 혈통의 계승이라고 압축한 다음, 구체적으로 공화주의적 전통, 도시적 전통, 가치 있는 삶, 즉,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를 추구하는 전통 및 상호성 강조의 전통이라는 네 가지 사례 분석의 초점에 기초하여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규명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국내 사회적 경제가 진정으로 성숙하게 하는 국가 리더십의 발전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제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진정으로 성숙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나친 특혜라는 논란부터 무용론, 정부에 대한 의존성 타파라는 주장까지 표출되면서 가히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 사회적 경제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화두이며 이후 시대에 대해서도 희망을 품고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관건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제3자적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할 처지에서는 이탈리아 시민 공화정의 선례를 깊이 성찰하여야 한다. 나아가, 현장의 사회적 경제 활동가와 그들을 지원하는 여러 전문가는 18세기 이탈리아 계몽주의 사상과 그 후예들의 삶을 표양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더욱 풍성하고 내실 있는 성과로써 다층적인 사회 격차와 인구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면면히 발전하는 한국 사회와 경제를 실현해 주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간기현·조상미(2023). “사회적기업은 어떠한 경로로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적기업가 정신, 재정지원, 사회적기업 성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5(1): 97-130.
- 강문실·양성국·문성주(2014). “제주지역 사회적기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섬)학회』. 26(4): 71-86.
- 김경희(2023). “사회적 기업의 인증방법과 역할에 관한 연구: 사회적경제와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경영연구』. 10(2): 1-19.
- 김경희(2013).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3(2): 126-150.
- 김동철·김정원(2016).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KBR』. 20(2): 143-162.
- 김민석·김동일(202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경제 참여를 통한 인정자본의 축적과 교환 과정에 대한 연구: 글로벌레이디협동조합과 (주)오디에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보』. 5(2): 107-126.
- 김보라(2015).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금 의존성향이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숙연·강수진(2017). “사회적기업 성과와 정부지원금과의 관련성”.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2): 1-19.
- 김신양(2022). “200년 사회적 경제의 역사 속 한국의 사회적 경제”.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4: 101-140.
- 김익태·이용민·강범석·최인남(2020). “사회적 가치지표(SVI)의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3(2): 3-32.
- 김창범·이찬영(2016). “한국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효율성 분석: 인증유형별·산업유형별·지역별”. 『한국경제연구』. 7(2): 43-73.
- 문병기(2012). “한국과 미국의 사회적기업 평가·인증제도 비교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2): 1-28.
- _____(2015). “사회적기업의 성과평가체계 구축: B-Corporation 평가인증체계의 한국적 적실성 검증과 연계”. 『한국행정학보』. 49(1):293-318.
- _____(2016). “사회적 경제조직 유형별 정체성 분석: 개방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3): 27-53.
- _____(2018). “사회적기업의 위험감수성 비교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2(3): 1-23.
- _____(2020).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네트워크 특성 비교분석: 무상성과 전이적 호혜성의 확산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4(3): 227-249.
- _____(2022). “사회적 기업의 연원과 정치경제학적 의미 탐색: 근대시장 메커니즘의 이해를 중심으로”. 『KNOU 논총』. 73: 43-64.
- _____(2023). “국가 개입의 제3자성에 관한 연구: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적용”. 『한국공공관리학보』. 37(2): 111-138.

- 문병기·신혜원(2014). 『대구경북지역의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기여도 조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연구보고서.
- 박수경·장동현(2013). 한국 사회적 기업의 지원체계 분석. 『사회과학연구』. 24(4): 83-104.
- 브루니, 루이지노(2020). 『컴뮤니타스 이코노미: 모두를 위한 경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강영선 외 8인(역). 서울: 북돋움 coop.
- 송백석(2011). “사회적 경제모델과 한국의 사회적 기업정책”. 『공공사회연구』. 1(2): 5-32.
- 신명호(2009). “한국의 ‘사회적 경제’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 11-46.
- 엄형식(2008).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서울: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정책연구원.
- 원지영(2016). “인증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유형과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3): 209-235.
- 이인재·김성기(2016).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평가 및 개선 과제- 창업 단계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97: 111-137.
- 임현지(2023). “정부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42(1): 365-403.
- 자마니 S. & V. 자마니(2013). 협동조합의 길: 세계 석학 특강, 『협동조합으로 가는 길』 (행복총서 04), 서울: (재)행복세상.
- 조연숙(2015). “마을공동체의 젠더이슈를 통해 본 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5(3): 83-100.
- 최영출(2013).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과제”. 『사회적 기업과 정책연구』. 3(1): 105-158.
- Baron, H.(1988). *In Search of Florentine Civic Humanism: Essays on the Transitions from the Medieval to Modern Thought*. Princeton, N.J.: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cker, M. B.(1968). “The Florentine Territorial State and Civic Humanism in the Early Renaissance” in Rubenstein, N. (ed.). *Florentine Studies: Politics and Society in Renaissance Florence*, London: Faber & Faber: 109-139.
- Brown, L.(ed.)(2009).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trans. by D. Ross), Book 9, Chapter 9.
- Bruni, L.(2002). “Toward an Economic Rationality Capable of Communion”. in L. Bruni (ed.). *Toward a Multi-Dimensional Economic Culture: The Economy of Communion*. New York, NY: New City Press.
- Bruni, L.(2007). *La ferita dell'altro*. Il Margine, Trent, Italy.
- Bruni, L.(2016a). *In the Era of the Spider Web: The Miracle of the Tree and the Scion: Defying Death*, Milan, Italy: Avvenire.
- Bruni, L.(2016b). “25 Years of Economy of Communion,” Lecture Note, Pan-Asian EoC Congress, 25-29 May 2016, Tagaytay, Philippines.
- Bruni, L. and Porta P. L.(2003), ‘Economia civile and pubblica felicità in the Italian Enlightenment’,in N. De Marchi and M. Schabas (eds), *Economies in the Age of Newton,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34, annual supplement,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361-386.
- Bruni, L. & Tufano, F.(2017). “The Value of Vulnerability: The Transformative Capacity of Risky Trust”,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12(4): 408-414.
- Bruni, L. & Uelmen. A.(2006). Religious Values and Corporate Decision Making: The Economy of

- Communion Project. *Fordham Journal of Corporate and Financial Law*. Vol. XI: 645-680.
- Bruni, L. & Zamagni S.(2007). *Civil Economy: Efficiency, Equity, Public Happiness*. New York, NY: Peter Lang.
- Esposito, R.(2007). *Terza Persona*. Torino: Einaudi
- Gold, L.(2010). *New Financial Horizons: The Emergence of an Economy of Communion*, Hyde Park, NY: New City Press.
- Gui, B.(2005). “From Transactions to Encounters: The Joint Generation of Relational Goods and Conventional Values,” in Benedetto Gui and Robert Sugden(ed.). *Economics and Social Inter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nkins, J.(2000). “Introduction” in Hankins, J. (ed). *Renaissance Civic Humanism: Reappraisals and Reflec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3.
- Jankelevitch, V.(1970). *Les vertus et l’amour*(Vol 2). *Traite des Vertus*. 3 Vols. Paris: Bordas.
- Mansfield, H. C.(2000). “Bruni and Machiavelli on civic humanism” in Hankins, J. (ed). *Renaissance Civic Humanism: Reappraisals and Reflec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23-246.
- Najemy, J. M.(2000). “Civic humanism and Florentine politics” in Hankins, J. (ed). *Renaissance Civic Humanism: Reappraisals and Reflec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75-104.
- Nussbaum, M.(1986). *The Fragility of Goodness: Luck and Ethics in Greek Tragedy and Philosophy*, Part 2.(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bst, A.(2018). “Political economy of virtue: civil economy, happiness and public trust in The thought of Antonio Genovesi”, *The Europ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DOI: 10.1080/09672567.2018.1487462 (<https://doi.org/10.1080/09672567.2018.1487462>).
- Reinert, S. A.(2005). The Italian Tradition of Political Economy: Theories and Policies of Development in the Semi-Periphery of the Enlightenment in Jomo K. Sundaram and Erik S. Reinert, (eds.). *The Origins of Development Economics: How Schools of Economic Thought Have Addressed Development*. London: Zed Books: 24-47.
- Stanca, L., L. Bruni & L. Corazzini(2009). Testing Theories of Reciprocity: Do Motivations Matter?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1(2): 233-245.
- EoC 기업체 국제 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www.edc-online.org/en>)
- EOC Global Gathering 회의 자료(<https://us06web.zoom.us/j/87139435463?pwd=liTdC2X7aGXRc4LHioRaUsSSqb9Fd5.1>)
- EOC Korea 홈페이지(<https://www.eockorea.com>)
- Mundell & Associates 홈페이지(<http://www.mundellassociates.com>).

* ABSTRACT *

This study was written with the fundamental perspective that for the Korean social economy to overcome its crisis and truly establish and revitalize, the Italian civic economy must be incorporated into the broader scope of the overall social economy. To substantiate this view, it first examined the civil humanism of the Florentine Republic in early 15th century Italy, the civil economic theory of A. Genovesi, a representative figure of the 18th century Italian Enlightenment, and further explored the theory and practical cases of EOC, a modern development of this theory.

After condensing the success of Italian EOC enterprises into the inheritance of ideological pedigrees,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the Korean social economy based on four focal points: the republican tradition, the urban tradition, the tradition of pursuing a worthy life (i.e., eudaimonia), and the tradition of emphasizing reciprocity. Finally, it offered four implications for developing national leadership as the thirdness that would overcome the identified challenges and foster the genuine maturity of the Korean social economy.

Keywords: social economy, civil economy, EOC, ideological pedigrees, the thirdness

자본시장 동조화와 시스템 리스크*

김상수**

The Co-movement of the Capital Markets and Systemic Risk

Kim, Sang-Su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실증분석 결과 |
| II. 시스템 리스크 측도 | V. 결론 및 시사점 |
| III. 데이터와 실증분석 방법론 | 참고문헌 |

I.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COVID-19 팬데믹은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 국가에서 발생한 위험이 얼마나 빠르게 다른 국가로 확산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금융기관의 부실이 단일 기관에 머물지 않고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는 이제 특정 국가 내부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며, 글로벌 금융 환경이라는 외부 요인이 위기의 진폭과 전파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금융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할수록 충격의 확산 가능성이 커진다는 Acemoglu et al.(2015)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내지 국가 단위의 신용위험(sovereign risk)을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되어 왔다. 국가 단위의 시스템 리스크를 독립된 지표로 정량화하고 그 전파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물론, Longstaff et al.(2011)과 Ang & Longstaff(2013)는 국가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CDS) 스프레드가 글로벌 변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으며, Rey(2015), Miranda-Agrippino & Rey(2020)는 글로벌 금융 환경이 개별 국가의 금융시장 환경을 결정함을 밝혔다. 또한 Acharya et al.(2014)은 금융기관의 부실이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을 통해 국가 신용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시스템 리스크와 국가신용위험 간 상호작용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국가 단위 시스템 리스크를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선후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그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신용위험과 시스템 리스크 간의 동태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개별 은행 CDS 스프레드를 활용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수행하고, 그 중 제1주성분을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 지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Altman & Rijken(2011)이 제시한 상향식(bottom-up) 접근과 이론적으로 연결되며, 거시 지표를 활용하는 방식보다 실질적인 신용위험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간 시스템 리스크가 동조적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시스템 리스크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이 국내 요인과 글로벌 요인 중 어느 쪽에 의해 더 크게 설명되는지를 검증한다. 셋째, 측정된 시스템 리스크와 국가신용위험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본다.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는 높은 동조성을 보인다. 주성분분석 결과, 제1주성분만으로 전체 변동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였다. 둘째, 고정효과 패널 회귀모형(Fixed-effects Panel Regression) 분석 결과, 시스템 리스크는 국내 변수가 아닌 글로벌 금융시장 변수, 글로벌 리스크 프리미엄 변수, 글로벌 은행 관련 위험지표 등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causality Test) 결과, 다수 국가에서 국가신용위험이 시스템 리스크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신용위험이 먼저 확대되고 이후 은행 부문의 위험 확산이 뒤따르는 결과를 반영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시스템 리스크 측정 방식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중요한 기여도인 새로운 방식의 시스템 리스크 측도를 제시한다. 제 I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및 실증분석 방법론을 설명한다. 제 IV장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제 V장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시스템 리스크 측도(Systemic Risk Measure)

시스템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기존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으며, 접근 방식은 크게 거시적 접근방식과 미시적 접근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 접근방식(macro-based approach)은 금융시장 전체의 긴장도와 스트레스를 직접 관찰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포착하려는 시도로, 광범위하게 금융 불안이 확산되는 시기의 위험 상태를 비교적 직관적으로 반영한다. 반면 미시적 접근방식(micro-based approach)은 개별 금융기관을 단위로 위험을 추정한 후 이를 집계함으로써 시스템 전체 위험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별 리스크가 누적·전이되며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된다는 개념에 기반한다. 연구 목적에 따라 적합한 측정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1. 시스템 리스크 측정 관련 연구동향

거시적 접근방식(macro-based)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는 LIBOR 스프레드 지표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LIBOR 스프레드는 은행 간 대출에 내재된 부도위험의 대리변수(proxy)로 활용될 수 있으며(Giesecke & Kim, 2011), 서브프라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데에도 유용하였다. 그러나 LIBOR는 단일 지표로만 제공되

어 국가별 수준의 구분이 어렵고, 담합 문제로 인해 2021년 이후 산출이 중단되었으므로, 본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은행 CDS 스프레드에서 PCA를 통해 첫 번째 주성분을 추출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Rodriguez-Moreno & Peña, 2013). 기존 연구는 주로 지역 단위로 분석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국가 단위로 확장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CDS 지수 및 CDX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CDS 지수 및 CDX는 일종의 지수형신용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이 지수에서 시스템 요인을 추출하여 지표로 구성할 수 있다(Bhansali et al., 2008). 그런데 이 지표 역시 국가별이 아닌 전체 지역·시장별 단위로만 제공된다는 점에서 단독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는 PCA를 활용하되, 추정된 시스템 리스크 지표를 CDX를 벤치마크로 설정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보완한다.

반면 미시적 접근방식(micro-based) 역시 다양하게 존재한다. 먼저, 구조적 신용위험모형 기반 리스크 지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전통적인 Merton 모형을 활용하여 은행의 자산가치 V 를 추정하고, 자산가치가 특정 임계치 아래로 떨어질 확률을 이용해 시스템 리스크를 구성한다(Lehar, 2005). 다만 이는 신용위험을 주가 기반으로 추정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다변량 밀도(Multivariate Density)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개별은행의 경험적 부도확률로부터 다변량 확률밀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동시부도확률과 하나 이상의 은행 부도확률이 전체 시스템에 부도로 전이될 확률을 산출한다(Segoviano & Goodhart, 2009). 다만, 위험의 상관구조가 선형(linear) 가정에 기반한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집계 $\angle$ CoVaR(Adrian & Brunnermeier, 2016)을 활용하여 특정 은행의 스트레스 상태가 시스템 전체 VaR(Value-at-Risk)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angle$ CoVaR는 CoVaR 간 차이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위기 보험료(DIP) 지표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DIP는 CDS 가격정보를 이용하여 부도확률과 자산간 상관도를 추정한 후 시스템 전체의 기대손실로 전환하는 지표이다 (Black et al., 2016). 이와 유사하게 기대 단기손실 기반 추정치를 이용하여 VaR 초과 손실 발생시 평균 손실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측정하기도 한다(Acharya et al., 2017).

본 연구는 국가 단위 시스템 리스크의 동조성 및 국가 간·국가 내 동태적 관계,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와 국가신용위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국가단위의 시스템 리스크 지표를 구성해야한다. 따라서, 개별 은행 CDS 데이터에서 시스템 리스크 지표를 구성하여 거시 지표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별 거시 지표와의 비교·검증을 병행하여 지표의 신뢰성과 설명력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PCA 접근법과 CDX 지수 비교

본 연구는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를 추정하기 위해 개별 은행 CDS 스프레드에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적용하고, 그 중 첫 번째 주성분(PC1)을 시스템 리스크 지표로 정의한다.

먼저 한 국가에 속한 N 개 은행의 CDS 스프레드를 $x_{i,t}$ 라고 할 때, 각 시계열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준화($z_{i,t}$)된다. 표준화된 행렬 Z 를 기반으로 공분산 행렬을 구성한다.

$$S = \frac{1}{T-1} ZZ^T$$

이 공분산 행렬을 고유값, 고유벡터로 분해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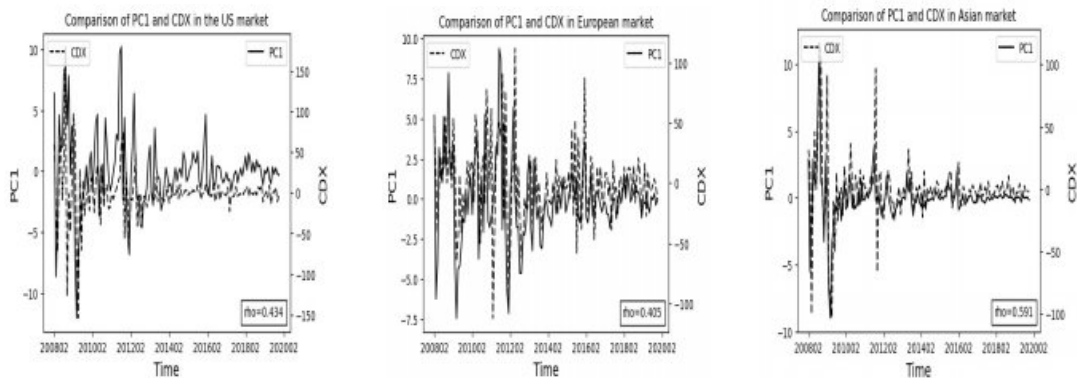
$$Sv_k = \lambda_k v_k, \quad k = 1, \dots, N$$

그 중 가장 큰 고유값 λ_1 에 대응하는 고유벡터 v_1 이 CDS 스프레드 변동의 최대 공통요인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시점 t 에서의 시스템 리스크 지표(PC1)는 다음과 같다.

$$PC1 = v_1^T Z_{i,t} = \sum_{i=1}^N v_{1,i} z_{i,t}$$

이는 국가 내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이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정도를 포착한 것으로, 국가 수준의 시스템 리스크를 대표하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특히 λ_1 이 전체 고유값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 간 신용위험의 공통성을 나타내며, 이렇게 추정된 PC1을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리스크 지표로 정의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별 은행 CDS 스프레드에서 관측되는 최대 변동성 요인을 추출하는 PC1 방식이 특정 경제권역별 시스템 리스크를 대표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Bhansali et al.(2008)은 CDX가 주요 시스템 리스크 이벤트 발생 이전에 선행지표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PC1으로 복원된 권역별 PC1이 실제 CDX를 얼마나 근사적으로 설명하는가를 비교 기준으로 삼는다.



<그림1> PCA 접근법과 CDX 지수 비교

<그림 1>은 PCA 방식으로 미국·유럽(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아시아(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일본) 금융시장에서 CDX를 복원한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 데이터는 2008년 3월-2020년 2월, 월별 변동률(monthly change)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추정된 시스템 리스크 지표인 PC1과 실제 CDX 간 수치 차이는 국가별 은행 CDS 구성비 및 가중치 부여 방식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나, 전체 추세는 매우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강한 동조화가 확인된다. 도표 하단의 시장별 상관계수는 미국 0.434, 유럽 0.405, 아시아 0.591로 나타나, 이는 PC1이 CDX 변동을 상당 수준 설명한다는 점에서 지표의 대체 가능성 및 활용 타당성이 뒷받침된다.

Ⅲ. 데이터 및 실증분석 방법론

1. 시스템 리스크 데이터

신용부도스왑(CDS)은 기초자산이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할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는 보험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CDS의 기능은 단순한 위험이전 장치를 넘어선다. 스프레드 변동은 시장참가자들이 인지하는 신용위험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며, 이러한 특성은 기업 간 및 국가 간 신용위험의 상호연계성을 분석하는 주요 연구들(Hilscher et al., 2015; Culp et al., 2018)에서 핵심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기존 접근을 따르며, 은행 CDS 스프레드를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 측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본 연구는 5년물 은행 CDS 스프레드를 Thomson Reuters Datastream에서 수집하였으며, 이는 기존 문헌에서 표준적으로 활용되어 온 데이터 구조와 동일하다. 한편, 국가별 CDS 자료의 가용 기간이 모두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많은 국가를 포함하면서도 충분한 시계열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 표본 기간을 200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총 20개국의 은행 자료가 유효하게 확보되었으며, 국가별 금융기관 목록은 <표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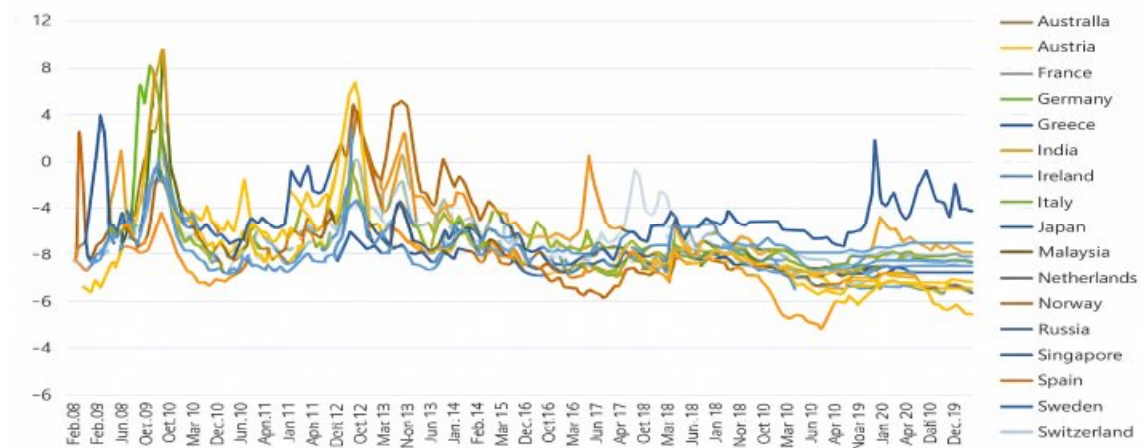
<표 1> 연구에 포함된 국가별 금융기관 목록

국가	금융기관목록
대한민국	Shinhan Bank, National Agriculture Cooperative Federation, Kookmin Bank, Hana Bank, Industrial Bank of Korea,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그리스	Alpha Bank, National Bank of Greece, Hellenic Rep
네덜란드	ING Bank NV, Coop Rabobank, De Volksbank, Van Lanschot, NN Group, Delta Lloyd, FMO, LeasePlan, NIBC Bank, BinckBank
노르웨이	Den Norske Bank
독일	Commerzbank, Deutsche Bank, Hannover Re, Deutsche Post, Munich Re, Henkel & Co, Kabel Deutschland, Allianz, Bayerische Landesbank
러시아	Sberbank of Russia, Bank of Moscow, Russian Agric Bank, Ministry of Finance
말레이시아	Malaysia Big Berhad, Cimb Bank Berhad, Cimb Investment Bank Berhad, Genting Bhd
스웨덴	Svenska Handelsbanken, SEK, SEB, Investor AB, Swedish Match, H&M, Swedbank
스위스	Swiss Re, Chubb Ltd, Glencore, Richemont, Roche, UBS AG, Credit Suisse
스페인	BBVA Argentina, Banco Pop Espanol, Bankinter S.A., Caixa del Mediterraneo
싱가포르	DBS Bank LTD, DEV Bank Singapore, OCBC

아일랜드	Bank of Ireland, Allied Irish Banks, Smurfit Kappa, Grafton Group, One 51 PLC, Glen Dimplex
호주	CML W. Bank, ANZ Banking Group, Westpac, Macquarie Bank Ltd, Lendlease Corp, AMP Holdings, QBE Insurance
오스트리아	Erste Group, RBI, Oberbank AG, Bawag PSK, Raiffeisen Bank Intl, Kontrollbank AG, Addiko Bank, Hypo Group
영국	Lloyds Bank, HSBC, Barclays, Standard Chartered, WPP, Reckitt Benckiser, Anglo American, Legal & General, RBS, Prudential
이탈리아	Banco Monte Paschi, Intesa Sanpaolo, Mediobanca SPA, BCA Naz Del Lavoro, Generali SpA
인도	Indus Bank Ltd, Indian Overseas Bank, India First Life Corp
일본	Mitsubishi UFJ, Sumitomo Mitsui, Mizuho Bank, Nomura, Japan Post, Hitachi Capital, Daiwa Securities
터키	Turkiye Is Bankasi, Garanti Bankasi, Akbank
프랑스	Veolia, Thales, Suez, Societe Generale, Natixis, Credit Agricole, AXA, BNP Paribas, CAC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CA를 이용해 국가별 은행 CDS 스프레드의 공통요인을 추출하였으며, 분석 결과 PC1이 개별 은행 CDS 변동성의 85%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국가 내부에서 은행들의 신용위험이 매우 높은 동조성(co-movement)을 보인다는 점을 의미하며, PCA 기반 시스템 리스크 측정이 국가 단위 금융위험을 포착하는 데 타당함을 뒷받침한다.

<그림 2>는 2008~2019년 기간 동안 추정된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의 시계열 움직임을 보여준다. 비교 가능성을 위해 각 시계열은 표준화하여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확인되듯,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의 시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상당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각국 금융부분이 해당 충격들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공통적으로 받았음을 시사하며, 국가 간 시스템 리스크가 높은 동행성을 지닌다는 본 연구의 주요 가설과도 부합한다.



<그림 2>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PC1) 시계열

2. 실증분석 방법론 및 설명변수 구성

본 절에서는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명변수와 실증분석에 적용되는 회귀모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Longstaff et al.(2011)을 따라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만을 활용하며, 모형 설계는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가 국내 요인(local factors)에 의해 주도되는지, 혹은 글로벌 요인(global factors)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정된 변수들은 국내 변수, 글로벌 금융시장 변수, 글로벌 위험 프리미엄 변수, 글로벌 은행 관련 변수로 크게 분류하여 포함시켰다. Longstaff et al.(2011)의 연구가 국가신용 위험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은행 관련 변수를 추가하였다. 사용된 각 변수의 데이터와 출처는 <표 2>와 같다.

<표 2> 회귀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 정의

변수 분류	변수명	정의 및 출처
국내 변수 (Local variables)	주가수익률 (Stock return)	Local Stock Market return
	환율 (Exchange rate)	Units of local currency per USD (FRED & Investing.com)
	외환보유고 (Foreign Reserves)	Dollar values of sovereign foreign currency reserves (million USD, IMF)
글로벌 금융시장 변수 (Global financial market variables)	미국 주식시장 (US Stock Market)	Monthly VW return NYSE/AMEX/NASDAQ - T-bill return (CRSP, Liu & Wu, 2020)
	미국 국채시장 (US Treasury market)	Monthly changes in Treasury yields (5-yr maturity) (Liu & Wu, 2020)
	신용등급 (Investment grade)	Moody's Aaa - Baa Corporate Bond Spread (FRED)
	VIX 지수	Implied Volatility of S&P500 (DataStream)
글로벌 리스크 프리미엄 변수 (Global risk premium variables)	주식 프리미엄 (Equity premium)	S&P500 P/E ratio (FRED)
	기간 프리미엄 (Term premium)	10Y - 1Y bond yield slope (Liu & Wu, 2020)
글로벌 은행 관련 변수 (Bank-related variables)	G-SIB	Average CDS of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ataStream)
	EBP	Excess Bond Premium (Gilchrist & Zakrajšek, 2012, FRED)

우선 국내 경제 상황을 포착하기 위해 국내 주식시장 수익률, 자국 통화 대비 미 달러 환율의 변화율, 그리고 미 달러 기준 외환보유액의 변화율을 포함한다. 국내 주식시장 수익률은 실물경제와 기업 부문의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되며, 환율 변화는 대외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적 조정 메커니즘을 나타낸다. 또한 외환보유액은 금융위기 발생 시 외부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 장치로 기능하므로, 국가의 지급능력과 금융 안정성을 대변하는 변수로 간주된다.

글로벌 금융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금융시장 변수를 사용한다. 미국 금융시장은 세계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크므로, 미국 금융시장 여건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대표한다

고 가정한다(Roll, 1988). 이에 따라 CRSP 가치가중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 미국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변화, Moody's Aaa 회사채와 Baa 회사채 간 스프레드, 그리고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를 포함한다. 이러한 변수들은 각각 글로벌 경기 국면, 안전자산 선호, 신용시장 불확실성, 금융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의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의 위험 선호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글로벌 위험 프리미엄 변수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S&P 500 지수의 주가수익비율을 주식 위험 프리미엄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1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간 스프레드를 기간 프리미엄의 대리변수로 활용한다. 이들 변수는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성향과 경기 국면을 반영하며, 글로벌 유동성 흐름과 자본이동을 통해 각국의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시스템 리스크라는 점을 고려하여 글로벌 은행 부문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G-SIBs)의 CDS 스프레드 평균과 Gilchrist and Zakrajšek(2012)이 제시한 초과채권프리미엄(Excess Bond Premium: EBP)을 사용한다. G-SIBs CDS 스프레드는 글로벌 은행 부문의 신용위험 수준을 나타내며, EBP는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 능력을 반영하는 변수로 해석된다. 글로벌 은행 부문의 위험이 확대될 경우 해당 충격은 국제 금융 연계를 통해 각국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변수는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설명변수들을 바탕으로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고정효과 패널 회귀모형(Fixed-effects Panel Regression)을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i 의

t 시점 시스템 리스크 변화율은 국내 변수, 글로벌 금융시장 변수, 글로벌 위험 프리미엄 변수, 그리고 글로벌 은행 관련 변수의 함수로 표현되며, 관측되지 않는 국가 고유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 고정효과를 포함한다.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y_i = \alpha + \mu + X_i^L\beta_1 + X_i^G\beta_2 + X_i^R\beta_3 + X_i^B\beta_4 + \epsilon_i$$

여기서 y_i 는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 μ 는 국가 고정효과 벡터, X_i^L 은 국내 변수, X_i^G 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수, X_i^R 은 글로벌 리스크 프리미엄 변수, X_i^B 은 글로벌 은행 관련 변수, ϵ_i 는 오차항 벡터이다. 오차항은 국가 간 이분산성과 시계열 상관을 허용하여 표준오차는 Petersen(2009)에 따라 국가 단위로 군집화하여 추정한다.

본 연구는 Longstaff et al.(2011)과의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적 모형을 설정한다. 즉, 국내 변수만을 포함한 모형(모형1), 글로벌 금융시장 변수를 추가한 모형(모형2), 글로벌 위험 프리미엄 변수를 추가한 모형(모형3), 글로벌 은행 관련 변수를 추가한 모형(모형4)을 순차적으로 추정한다. 이를 통해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가 국내 요인보다 글로벌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설명되는지를 검증한다. 단, Longstaff et al.(2011)이 각 국가별로 회귀모형을 분리하여 수행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전반적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패널 단위에서 분석을 진행한다.

IV. 실증분석 결과(Empirical Res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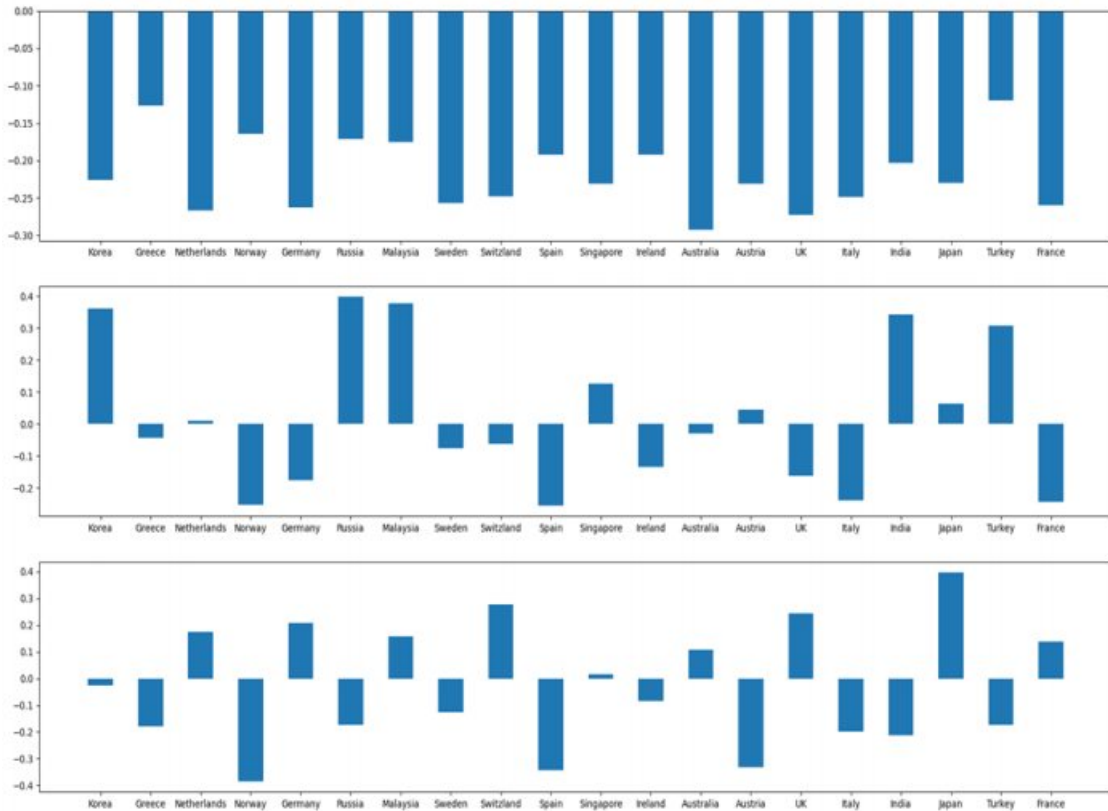
1. 시스템 리스크의 동조성

국가 간 시스템 리스크의 동조적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여 각 국가에서 추정된 시스템 리스크 간의 공통적인 변동요인을 찾아냈다. 또한 주식시장 수익률은 국가 간 동조화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비교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를 국가 단위 주식시장 수익률에도 적용하였다. 시스템 리스크의 동조성이 금융위기 기간에만 나타나는지 아니면 위기와 무관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표본 전체 기간에 대한 결과 뿐 아니라 소표본 기간, 즉 금융위기 기간(2008~2013)과 금융위기 이후 기간(2014~2019)도 별도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시스템 리스크와 주가수익률의 주성분분석 결과

주성분	전체기간		2008-2013		2014-2019	
	설명비율	전체	설명비율	전체	설명비율	전체
시스템리스크						
First	46.23	46.23	48.78	48.78	36.60	36.60
Second	14.15	60.39	15.66	64.44	9.48	46.09
Third	9.48	69.87	9.87	74.32	8.04	54.14
Fourth	4.56	74.44	4.52	78.84	7.10	61.25
Fifth	4.19	78.63	3.51	82.46	6.00	67.25
주가수익률						
First	59.39	59.39	67.30	67.30	49.96	49.96
Second	6.16	65.56	5.46	72.77	8.57	58.53
Third	5.42	70.98	4.21	76.98	6.46	65.00
Fourth	4.35	75.33	4.02	81.01	5.17	70.18
Fifth	3.80	79.14	3.29	84.31	4.62	74.80

분석 결과,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높은 동조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기간에서 첫 번째 주성분은 전체 분산의 약 46%를 설명하며, 이는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가 상당 부분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본을 금융위기 기간과 이후 기간으로 구분할 경우에도 각각 48%, 36%의 분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스템 리스크의 동조성이 특정 시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금융위기 기간 동안 동조성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는 위기 국면에서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확대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식시장 수익률을 대상으로 한 주성분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동일한 구조를 보여준다. 이는 주식시장이 국가 간 높은 동조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자산 군임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림 3>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의 주성분 로딩값

시스템 리스크의 동조성이 가지는 구조적 특징은 <그림 3>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 지표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을 수행했을 때 추출된 상위 3개의 주성분에 대해 국가별 로딩값을 나타낸 그림이다. 첫 번째 주성분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일관되게 동일한 부호를 가지며 크기 또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가 특정 국가에 국한된 충격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동일한 방향으로 동조적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을 의미한다. 반면, 두 번째 주성분의 적재 구조는 국가 간 이질성을 반영한다.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을 서로 상반된 부호로 구분하는 양상이 보인다. 이는 시스템 리스크의 변동이 전적으로 단일한 글로벌 요인에 의해 설명되기보다는 지역별 금융 구조나 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응하는 측면도 존재함을 시사한다.

2. 국내 요인과 글로벌 요인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설정된 패널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는 단계적으로 확장된 네가지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를 구분하여 보여준다. (모형1)은 지역 변수만을 포함하며, (모형2)는 여기에 글로벌 금융시장 변수를 추가한다. (모형3)에서는 글로벌 위험 프리미엄 변수를 포함하고, (모형4)에서는 글로벌 은행 관련 변수를 추가한 결과이다. 이러한 모형 설정 순서는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가 우선적으로 지역 요인에 의해 설명되고, 이후 글로벌 요인이 추가적인 설명력을 제공한다는 귀무가설에 근거한다.

<표 4> 모형별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수		-0.0231*** (-4.5734)	-0.0979*** (-2.9356)	-0.0163 (-0.8575)	0.1156*** (2.7173)
국내 변수	주가수익률	-0.7656* (-1.3615)	-0.3969 * (-1.7295)	-0.3942 * (-1.7261)	-0.3727 * (-1.7334)
	환율	5.8563*** (5.8823)	4.6757*** (4.5039)	4.6224 *** (4.3844)	4.3790 *** (3.9843)
	외환보유고	-0.0183 (-3.0159)	-0.0092 ** (-2.2734)	-0.0114 *** (-2.8081)	-0.0096 ** (-2.4538)
글로벌 금융시장 변수	미국 주식시장		-3.4857 *** (-6.7173)	-3.2288 *** (-5.3626)	-3.1007 *** (-5.0304)
	미국 국채시장		-42.602 *** (-4.6621)	-42.194 *** (-4.7686)	-40.781 *** (-4.6270)
	신용등급		-5.3734 (-1.4159)	-9.5834 ** (-2.5397)	-40.338 *** (-6.1714)
	VIX지수		0.0077 *** (2.8824)	0.0106 *** (3.0063)	0.0099 *** (2.7331)
글로벌 리스크 프리미엄 변수	주식프리미엄			-0.0046 *** (-5.7267)	-0.0015 * (-1.6759)
	기간프리미엄			1.1113 (1.0323)	-1.6927 (-1.4230)
글로벌 은행 관련 변수	GSIB				13.096 *** (4.0548)
	EBP				18.680 *** (5.0790)
결정계수(R ²)		0.0985	0.2260	0.2321	0.2404
표본수		2,840	2,840	2,840	2,840

주: 표준오차는 국가별로 군집화하여 추정된 값이며, 괄호안의 값은 t-통계량이다.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는 각각 *, **, ***로 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는 국내 요인보다 글로벌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변수 역시 시스템 리스크의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변수, 글로벌 위험 프리미엄 변수, 그리고 글로벌 은행 관련 변수의 추가는 모형의 설명력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명변수 간 단위와 규모가 상이하여 계수의 절대적 크기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과 변수 추가 시 결정계수(R²)의 증가폭을 함께 고려할 때 글로벌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은 명확하다.

국내 변수의 개별 효과를 살펴보면, 국내 주식시장 수익률은 (모형1)에서는 음(-)의 부호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 변수들이 통제된 (모형2)와 (모형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인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의 긍정적 정보가 해당 국가 경제 전반의 위험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함을 의미하며, 경제적 직관과도 부합한다. 환율 변수는 양(+)의 계수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이는 환율 상승, 즉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이 시스템 리스크 증가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환율이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Mundell, 1962, Fleming, 1963)와 일관된다. 외환보유액 변수는 음(-)의

계수를 보이며, 외환보유액이 경제 충격 발생 시 완충 장치로 기능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해석을 지지한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수의 경우, 미국 주식시장 수익률의 음(-)의 계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긍정적 정보가 개별 국가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함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 금융시장이 국가의 신용위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Longstaff et al.(2011)의 결과와도 일관된다. 또한 미국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음(-)의 계수는 미국 경기 상황이 글로벌 금융환경을 통해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자본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 개별 국가의 유동성이 감소하여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하는 경로가 형성된다. 신용등급 회사채 스프레드와 VIX 변수 역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각각의 계수 부호는 경제적 해석과 부합한다.

글로벌 위험 프리미엄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제한적이지만, 주식 위험 프리미엄과 기간 프리미엄 모두 음(-)의 계수를 보인다. 이는 위험 프리미엄이 높은 시기가 투자자의 위험 감내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면임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기에는 위험자산 선호와 함께 자본 유입이 확대되어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가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은행 관련 변수의 경우,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의 CDS 스프레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를 보였다. 이는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위험 증가가 개별 국가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됨을 시사한다. 초과 채권 프리미엄(EBP) 역시 양(+)의 계수를 가지며, 이는 금융부문의 위험 감내 능력 저하가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경로를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 금융부문의 위험이 국가 단위의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존의 연구(Gilchrist and Zakrajšek, 2012, Gilchrist et al., 2019, Gilchrist et al., 2021)와도 일치한다.

3. 시스템 리스크와 국가신용위험 간의 선·후행 관계

금융시장에서의 시스템 리스크의 확대는 국가신용위험을 증가시키며 역으로 국가신용위험이 증가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 현실에서는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확연하지 않지만 동태적 움직임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이 쉽게 확인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변수 간의 선후행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Granger-causality Test)을 해보았다.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은 1개월 시차(lag=1)를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두 변수 모두 국가단위 및 개별 은행단위만 다룰뿐 CDS 자료에 기반한다. CDS는 정보 전달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1개월 시차만으로도 충분한 정보 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5>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Granger-causality Test) 결과

국가	H_0 : 국가신용위험 $\nRightarrow$ 시스템리스크	H_0 : 시스템리스크 $\nRightarrow$ 국가신용위험
대한민국	0.0011***	0.1493
그리스	0.2946	0.6582
네델란드	0.0000***	0.5509
노르웨이	0.4673	0.3543
독일	0.0000***	0.0582*
러시아	0.1706	0.0826*
말레이시아	0.0000***	0.2311
스웨덴	0.0000***	0.7185
스위스	0.0201*	0.7931
스페인	0.0000***	0.0846*
아일랜드	0.0000***	0.5867
호주	0.0681*	0.7617
오스트리아	0.0000***	0.0925*
영국	0.0000***	0.1313
이탈리아	0.0000***	0.1559
인도	0.4358	0.7883
일본	0.0000***	0.8940
터키	0.5712	0.9197
프랑스	0.0000***	0.8085

주: 각 항목의 값은 P-value 이며, F-통계량으로부터 추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는 각각 *, **, *** 로 표시하였다.

<표 5>은 두 변수 간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각 귀무가설, 즉 “국가신용위험이 시스템 리스크를 그랜저 인과하지 않는다”와 “시스템 리스크가 국가신용위험을 그랜저 인과하지 않는다”에 대하여 검정 결과가 국가별로 제시되어있다. 먼저, 첫 번째 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에 따르면, 표본 국가 중 13개 국가에서 5% 유의수준 하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국가에서 국가신용위험이 시스템 리스크를 선행한다는 결과이며, 국가신용위험의 변화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반면, 반대 방향의 귀무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에 따르면, 5% 유의수준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으며, 10% 유의수준을 적용하더라도 독일, 러시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제한적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국가신용위험을 선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국가신용위험이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를 그랜저 인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며,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국가신용위험이 선행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경제적으로 해석해보면,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규모 충격이 발생

할 경우,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을 실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위험을 일정 부분 흡수하게 되며,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시스템 리스크가 완화되는 반면 국가신용위험은 상승하게 된다. 이후 국가신용위험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누적될 경우, 정부의 위험 흡수 능력이 약화되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지연되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동학적 관계는 실증적으로 국가신용위험이 시스템 리스크를 선행하는 그랜저 인과관계로 관측되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지지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를 측정하고, 그들간의 동조성과 이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을 확인하며, 더불어 측정된 시스템 리스크와 국가신용위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각 국가의 개별 은행 CDS 스프레드에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적용하여 첫 번째 주성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스템 리스크 측정치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지표는 개별 은행에 기반한 데이터이지만 동시에 기존의 거시 기반 지표들에 비해 유용성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Fixed-effects Panel Regression)을 실시했다. 검증 결과, 국내 변수 역시 시스템 리스크 변화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시장 변수, 글로벌 위험 프리미엄 변수, 그리고 글로벌 은행 관련 변수와 같은 글로벌 요인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은행 부문의 위험 지표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은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단위의 시스템 리스크 역시 글로벌 금융시스템과의 연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시스템 리스크와 국가신용위험 간의 선후행 관계를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causality Test)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국가에서 국가신용위험이 시스템 리스크를 그랜저 인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는 제한적으로만 관찰되었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정부의 금융기관 구제 조치라는 매개 경로를 고려할 경우 경제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즉, 금융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구제금융은 단기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국가신용위험을 증가시키며, 이후 국가신용위험이 누적됨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가 지연되어 상승하는 동학적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를 측정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국가 단위의 시스템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시스템 리스크와 국가신용위험 간의 동학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금융위기 시 정부 정책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 Acharya, V., Drechsler, I., & Schnabl, P. (2014). A Pyrrhic Victory? Bank Bailouts and Sovereign Credit Risk. *Journal of Finance*, 69(6), 2689–2739.
- Acharya, V., Pedersen, L., Philippon, T., & Richardson, M. (2017). Measuring Systemic Risk. *Review of Financial Studies*, 30(1), 2–47.
- Acemoglu, D., Ozdaglar, A., & Tahbaz-Salehi, A. (2015). Systemic Risk and Stability in Financial Networks. *American Economic Review*, 105(2), 564–608.
- Adrian, T., & Brunnermeier, M. (2016). CoVaR. *American Economic Review*, 106(7), 1705–1741.
- Altman, E., & Rijken, H. (2011). Toward a Bottom-Up Approach to Assessing Sovereign Default Risk.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23(1), 20–31.
- Ang, A., & Longstaff, F. (2013). Systemic Sovereign Credit Risk: Lessons from the U.S. and Europ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60(5), 493–510.
- Bhansali, V., Gingrich, R., & Longstaff, F. (2008). Systemic Credit Risk: What Is the Market Telling Us? *Financial Analysts Journal*, 64(4), 16–24.
- Black, L., Correa, R., Huang, X., & Zhou, H. (2016). The systemic risk of European banks during the financial and sovereign debt crise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63, 107–125.
- Culp, C., van der Merwe, A., & Stärkle, B. (2018). Credit Default Swaps.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Palgrave Macmillan.
- Fleming, J. M. (1963). Domestic financial policies under fixed and floating exchange rates. *IMF Staff Papers*, 10(3), 369–379.
- Giesecke, K., & Kim, B. (2011). Systemic Risk: What Defaults Are Telling Us. *Management Science*, 57(8), 1387–1405.
- Gilchrist, S., Wei, B., Yue, V., & Zakrajsek, E. (2021). Sovereign Risk and Financial Risk. *SSRN Electronic Journal*. <https://doi.org/10.2139/ssrn.3968724>
- Gilchrist, S., Yue, V., & Zakrajsek, E. (2019). US Monetary Policy and International Bond Market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51, 127–161.
- Gilchrist, S., & Zakrajšek, E. (2012). Credit Spreads and Business Cycle Fluctu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102(4), 1692–1720.
- Hilscher, J., Pollet, J., & Wilson, M. (2015). Are Credit Default Swaps a Sideshow? Evidence That Information Flows from Equity to CDS Markets.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50(3), 543–567.
- Lehar, A. (2005). Measuring Systemic Risk: A Risk Management Approach. *Journal of Banking & Finance*, 29(10), 2577–2603.
- Liu, Y., & Wu, J. (2020). Reconstructing the Yield Curve. *Working Paper*, NBER.
- Longstaff, F., Pan, J., Pedersen, L., & Singleton, K. (2011). How Sovereign Is Sovereign Credit Risk?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3(2), 75–103.
- Miranda-Agrippino, S., & Rey, H. (2020). U.S. Monetary Policy and the Global Financial Cycle. *Review*

- of Economic Studies*, 87(6), 2754-2776.
- Mundell, R. A. (1962). Capital mobility and stabilization policy under fixed and flexible exchange rate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9(4), 475-485.
- Petersen, M. (2009). Estimating Standard Errors in Finance Panel Data Sets: Comparing Approaches.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2(1), 435-480.
- Rey, H. (2015). Dilemma Not Trilemma: The Global Financial Cycle and Monetary Policy Independence. *Working Paper*, NBER.
- Rodríguez-Moreno, M., & Peña, J. (2013). Systemic Risk Measures: The Simpler the Better? *Journal of Banking & Finance*, 37(6), 1817-1831.
- Roll, R. (1988). The International Crash of October 1987. *Financial Analysts Journal*, 44(5), 19-35.
- Segoviano, M., & Goodhart, C. A. E. (2009). Banking stability measures. *IMF Working Paper*, WP/09/4.

글로벌 시민성 구성요소로서의 시민교육: 시민교육의 개념적 모순과 재개념화*

정민승**

Civic education as a key element of global citizenship: Conceptual contradictions of
civic education and re-conceptualization

Minseung Jung

◁ 목 차 ▷

I. 문제제기	IV. 글로벌 시민성의 조건으로서의 교육:
II. 글로벌 시민성의 구성요소와 딜레마	교-학 무브먼트의 창출
III. 글로벌 시민성에 대한 교육학적 접	V. 맺음말
근: 요소로서의 시민교육	참고문헌
	논문초록

I. 문제제기

오늘날 세계는 기후위기, 감염병, 오존층 파괴, 경제 불평등, 국제 분쟁, 생물다양성 상실, 디지털 격차 등 초국가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디지털을 경유, 시공간 압축(Harvey, 1995) 속에서 지구적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구적 위기는 단일 국가의 역량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확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전세계의 시민들을 세계 공동체의 책임 있는 행위자로 키워내는 일이 지구적 문제해결의 물꼬를 터 가는 일이라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UNESCO, 2014).

이런 상황 속에서,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시민성(Global Citizenship)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변중헌, 2001; 김지현-손철성, 2009). 글로벌 시민성이란 개인들이 국가적 경계를 넘어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계 문제를 이해하고, 인권·평화·지속가능성 등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며, 지구적 차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역량·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성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시민성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세대를 겨냥하며,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비판적 사고, 가치관 형성 및 총체적 관점을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시민교육이 필수적이다(Cabezudo, 2013).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년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당연한 설명처럼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민교육을 하면 과연 시민성이 길러지는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목표대로 결과가 이루어져왔다면, 과연 문제학생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은가? 문제 상황에 대한 교육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문제상황은 없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우리 시대 교육은 국가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개념적 모순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사회는 특정한 목표를 위해 교육을 진행하지만, 정작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생겨난 문제를 다시 교육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무한모순 속에 갇혀있는 것이다.

글로벌 시민성과 시민교육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시민성’을 키우는 ‘시민교육’이 필요하지만, 시민성 문제가 심각하니 시민교육을 실시한다. ‘글로벌 시민성’도 ‘글로벌 시민교육’을 통해 키워질 수 있으며, 글로벌시민성이 없어도 글로벌 시민교육을 진행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시민교육은,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인, 무책임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과 이를 통한 시민권의 획득’이라는 분명한 물질성을 가진 ‘근대국가의 시민성’과 달리, ‘글로벌 시민성’은 다분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하던 ‘국민국가적 시민성’에 대한 교육도 ‘시민권’이라는 구체적 내용을 축소되는 경향(국혜수, 2025)도 대두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 경제성장과 생태주의의 어정쩡한 타협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민성’은 세계화와 시민의식의 타협 어딘가에 위치한다. ‘이상적이나 현실적이지 않은’ 교육이라는 비판을 넘어서기 어려운 것이다.

글로벌 위기라는 긴급하고도 지구적인 인식을 지구적 문제해결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모델 즉, ‘교육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모델’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글로벌 시민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시민교육과는 어떤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이것이 시대적으로 적합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모델이 필요한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에 기초하되, 개념구안을 위해 기존의 연구 인터뷰 자료(정민승외, 2024)를 재분석하고, 교육전문가 5인(학자 3인, 교육활동가 2인)과 2회에 걸친 FGI를 진행하였다.

II. 글로벌 시민성의 구성요소와 딜레마

1. 글로벌 시민성의 개념

‘시민성(citizenship)’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적 주체로서의 시민의 개념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랜 역사적인 개념이지만, 본격적인 담론은 근대 초기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롭게 나타난 시민계급의 정치적·경제적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와 노력, 그에 따른 갈등과 투쟁을 통해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심승환, 2019). 시민성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전통에 근거하여 각 개인의 존엄성, 자율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이 속한 국가나 집단으로부터 수동적으로 보장받고 통제받는 권리가 아닌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지위라고 할 수 있다.

시민성을 권리의 관점에서 보는 논의들은 시민성을 공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 등

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데(Marshall and Bottomore, 1992), 구체적으로 공민적 권리는 신체적·언론적·사상적·신앙적 자유와 사유재산 및 계약의 권리,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 개인적 자유와 평등 추구권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적 권리는 정치기구에서의 직접 참여 또는 대리인 선출을 위한 유권자로서 정치권력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마지막으로 사회적 권리는 사회적 재화의 공평한 분배, 문명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등과 같은 경제적 관점에서의 복지와 교육이나 사회적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글로벌 시민성은 이런 시민성의 원리를 지구적 문제의식에 접합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세계화의 가속화로 정치·경제·문화·환경이 국경을 넘어 깊이 연결되고, 기후위기·팬데믹·국제 분쟁·경제적 불평등 등 국가 단위로 해결할 수 없는 전 지구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경계가 희미해졌으며 이와 더불어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초연결 사회가 형성되고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문화 갈등과 정보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시민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UN과 UNESCO 등 국제기구가 지속가능발전의 한 항목(SDG4)으로 글로벌 시민성을 제시하고, 인권·평화·지속가능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강조, 국가 중심 시민성을 넘어서는 시민성에 대한 요구가 전면화하였다. 개인은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계 문제를 이해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춘 ‘글로벌 시민’으로서 자율성과 공공성을 결합한 존재로 재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고(심승환, 2019), 글로벌 시민성이 현대 시민성의 확장된 형태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2. 글로벌 시민성의 구성요소와 글로벌 시민교육

위에서 제시한 이유로, 글로벌 시민성은 시민권으로부터 이탈할 일종의 윤리적·도덕적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글로벌 시민성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소속감, 법적 의무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 수행을 강조하는 책임성,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시민 참여 역량,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윤리적·도덕적 태도, 기후위기·평화·지속가능성 등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글로벌 시민 의식을 갖춘 상태를 말한다(김남국·박환보, 2015). 역량에 초점을 두어 영역별로 보자면, 지식은 세계에 대한 이해 능력으로, 국제 정치·경제 구조, 환경·기후 체계, 문화적 다양성과 역사적 맥락, 인권과 사회 정의, 지속가능성 등 전 지구적 문제의 원인과 구조를 폭넓고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식은 세계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하며, 개인의 행동이 지역적 범위를 넘어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기반이 된다.

기술은 글로벌 시민이 세계 문제를 분석하고 타인과 협력하며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역량, 협력·참여 능력, 정보 분석 및 디지털 리터러시 등 다양한 실천적 기술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능은 복잡한 글로벌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조정하며, 지역 및 세계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다.

태도는 글로벌 시민이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이끄는 가치적·윤리적 성향으로, 인권과 평등에 대한 존중,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과 관용, 세계 공동체 의식,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대 의식을 포함한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이 자국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글로벌 공공선을 위한 윤리적 선택을 실천하는 시민적 행동의 기반이 된다(최종덕, 2014).

이렇게 글로벌 시민성을 글로벌 역량으로 등치시키고 보면, 시민교육은 그것을 보다 구체화시킨 내역에 불과하다. 글로벌 시민교육은 이러한 글로벌 시민성을 실제로 형성하고 함양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설계된 교육적 과정과 활동을 의미한다고(McLean & Cook, 2016) 정의되지만,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시민들이 글로벌 시민성을 구성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고 실천적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적 방법과 전략을 일컫게 된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글로벌 시민성 (Global Citizenship)	글로벌 시민교육 (GCED)
개념적 성격	개인이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 가치, 정체성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설계된 교육적 과정과 활동
목적	세계 문제를 이해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	학습자가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하도록 돕고 글로벌 시민성을 형성
핵심 요소	지식, 기술, 태도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 참여형 프로젝트, 토론, 협력 학습, 디지털 학습 등
범위	목표적 상태, 윤리적 수준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적 수단과 방법
예시	타문화 존중, 평화와 인권 의식, 세계 문제 참여 능력	교육프로그램, 국제 교류 프로젝트, 환경·인권관련 토론 수업
핵심질문	“글로벌 시민은 누구인가”	“어떻게 글로벌 시민의 역량을 키워낼 것인가”

3. 글로벌 시민교육의 딜레마

글로벌 시민성은 근대국가를 형성시켰던 시민의 역량을 지구적 차원에서 해석한다. 청교도혁명에서 프랑스혁명에 이르는 시민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힘인 불평등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능동적 에너지를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구촌적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문제는 시민혁명의 주체가 가진 행동력과 투쟁력이 글로벌 단위에서 가능할 것인가이다. 국가가 보장하는 시민권은 지구적 단위에서는 제공할 수 없으며, 시민권보장을 위해서 생겨난 국가적 제재수단, 예컨대 차별과 폭력과 같은 반시민적 행위들에 대한 제재도 글로벌 단위에서는 불가능하다.

시민의 존립근거인 ‘법 앞의 평등’도 마찬가지이다. 지구적 차원에서 식민지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환경의 문제는 국가의 빈부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먹거리의 생태학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이 문제를 ‘글로벌’한 차원에서 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스피박이 말한대로 (Spivak, 1999), ‘하위주체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 단위의 정치투쟁은 계급적 차원에서의 연대와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물리적 투쟁을 동반하지만, 국가 경계를 넘어선 글로벌 상황 속에서는 이런 가시적 연대는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전자민주주의와 같은 청사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초개인화된 파인 표상으로 통합되고 있다. 계급을 넘어서는 소통과 초계급적 연대보다는 파편화된

표상과 집단내 편견의 강화가 현실이다. 튜베리와 같은 소녀의 투쟁이 전세계적인 감동을 이루었지만, 그 역시 일회적인 상황에 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시민성은 사실은 허상에 가까운 것이다.

글로벌 시민성의 내용이 글로벌 시민교육과 등치된다는 것도 문제다.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과거 시민성은 마셜(Marshall, T.H.)이 제시한 바, 공민적(civil), 정치적(political), 사회적(social) 요소로 구성되며, 교육은 이 요소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즉,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이라는 각 요소에 따라 시민으로서의 자유나 평등과 관련된 ‘공민적 가치’를 가르치는 것,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교육’, 분배나 문화권과 같은 ‘사회문화적 복지와 권리에 대한 교육’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시민성은 시민권과 같은 구체화된 제도나 원리가 없으며, 윤리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삼는다. 따라서 글로벌 시민성은 시민들의 ‘태도’에 방점을 찍게 되며, 결국 시민교육과 동어반복적 내용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글로벌 시민성이란 ‘시민권 없는 시민의식’인 것이며, ‘대립축 없는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시민성이 글로벌 시민교육의 목적으로 설정될 경우, 시민성과 시민교육은 모두, 매우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 된다.

이제, ‘특정한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교육’이라는 패러다임을 벗어나 글로벌 시민성-시민교육의 개념을 재설정해보기로 하자.

Ⅲ. 글로벌 시민성에 대한 교육학적 접근: 요소로서의 시민교육

폴레타(Polletta 2002)에 따르면, 20세기 미국에서 참여민주주의는 조직화 과정, 즉 일상적 회의들, 관례들, 관례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면밀히 살펴보면, 수많은 미팅이나 당연한 관행, 축적되어온 관계들이 사회운동의 기반이 되어왔는데, 회의, 관례, 관계 형성 등은 모두 교육/학습의 시선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활동은 일종의 ‘무대 뒤에서의 사회운동’의 하나로 존재한다. 즉, 교육을 ‘프로그램을 통한 지식 전달’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행동과 습성, 관계로 재개념화해야만 현재의 사회상이 제대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교육을 정해진 시민적 규범을 습득하게 하는 내면화로서가 아니라 사회를 형성해가는 주체를 키워가는 활동으로 볼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 시민성을 아직 덜 여문 사회구성원들이 ‘익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생성되던 그 시기의 문제의식에 따라 사회를 ‘생성해내는’ 역동적 주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교육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사회 정의를 규칙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삶의 가능성을 조직하는 조건의 문제로 본 기존의 사회철학자들의 논의를 빌어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가능성과 역량에 주목한 사상가, 들뢰즈와 누스바움의 논의를 통해 시민성과 시민교육의 개념을 재조명해보도록 하자.

1. ‘합성과정’으로서의 시민-되기

양자역학이 말해주는 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 중에 있다. 인간과 사회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불변의 고정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인간의 두뇌가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하여 고정된 사물-사

태로 인식하게 하기 때문이다. 뇌과학에서 AI에 이르는 최근의 지식-교육생태계(Davis, 2024)는 이원적 인식이나 단선적 발달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변화와 변동을 존재론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보면, 교육은 전제부터 바뀌어야 한다. 정해진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이다.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교육적 실체에 주목하고자 한다면, 들뢰즈의 관점이 유용하다. 들뢰즈에게 배움이란 ‘기호와의 마주침’으로, 나와 환경의 혼용을 개념화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관점에서 배움은 두뇌 작용을 통한 개념화로 종결된다. 어떤 기술, 말 등을 배울 때 결국 그것을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냐가 배움의 수준을 확인하는 지표가 된다. 그러나 들뢰즈에게 구체적인 신체, 입 등의 요소와 우리의 환경을 이루는 수많은 기호들, 그리고 두뇌의 작용에 따른 개념화는 동등한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다. 새로운 정보가 두뇌로 수렴되는 것이 배움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외부 기호 양자의 합성과정 자체가 배움이다(배지현, 2012; 최승현, 2017).

배움은 타자와의 ‘합성’에 입각한 존재론과 이를 통해 이해되는 배움은 지그재그식 운동으로 진행되는 ‘경과’와 정보로 환원되지 않는 ‘기호’ 간의 관계에 따른 흐름으로 파악된다. 그것은 물질성을 띤 몸과 추상적인 사건 간의 포착과 응축, 합성을 말하는 것으로, 배움은 ‘기호를 매개로 한 경과’ 혹은 ‘기호와의 마주침’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정보로 환원되지 않는 과정, 양화 불가능한 기호를 통한 배움은 관리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한다. 바로 욕망조차도 관리하거나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에서 이를 벗어나는 길은 배움의 이념을 사유할 때에만 가능하다.

들뢰즈에게 배움(learning)이란 ‘명제적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것들(heccóités)에 응하여 행하는’ 배움(apprenticeship)을 의미한다. 후자를 따른다는 것은 단번에 정착되고 획득되는 정해진 것을 배우는 지식이나 행동이 아닌 늘 진화의 과정에 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것들’에 대해서, 늘 변화하는 물질과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타자와의 마주침’에 대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Williams, 2013: 247)

구체적으로, 들뢰즈(Deleuze)의 ‘되어감(becoming)’관점에 따르면 시민성은 고정되고 완성된 정체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전통적 시민성이 국가가 규정한 법적 지위, 정체성, 규범에 따라 ‘이미 주어진’ 틀 안에서 시민을 정의하려 했다면, 들뢰즈의 되어감은 시민을 정해진 기준 속에 고정시키지 않고, 다양한 관계·상황·경험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변형되는 존재로 바라본다. 즉, 시민성은 어떤 자격을 획득한 뒤 끝나는 상태(state)가 아니라, 다양한 타자와 만나고 충돌하고 연결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확장되는 과정(process)이다.

들뢰즈의 되어감은 또한 시민성을 다양성과 차이의 생성으로 이해하도록 만든다(김재춘, 2018). 시민은 단일하고 안정적인 정체성에 머무르지 않고, ‘되기(becoming-other)’를 통해 자신과 세계를 재구성한다. 예를 들어, ‘아동-되기’, ‘노인-되기’, ‘여성-되기’, ‘소수자-되기’처럼 타자의 경험과 관점을 잠정적으로 체험하면서 기존의 동일성 중심 시민성이 가진 배타성을 넘어선다. 이러한 시민성은 법적 권리를 갖춘 개인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공감·연대·새로운 공동체적 감수성을 생성해내는 창조적·윤리적 시민성으로 확장된다. 즉, 되어감의 시민성은 시민을 정해진 틀 안에서 규범적으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예측 불가능한 관계망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만들고 재구성하는 존재로 인정하며, 시민성의 목적을 ‘정답이 정해진 시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개체 생성의 운동으로 본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글로벌 시민성의 목적은 지구적 차원의 보편적 시민성의 육성이되 그 내용

은 실제 국가 간의 권력관계라는 ‘현실’을 관통해 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신념에 기초한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들뢰즈가 말해주는바, 우연, 현실적 상황,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한 대처를 통해 길러진 마음의 힘이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글로벌 시민성이 키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피아의 말처럼, 글로벌 시민성은 “공존의 습성”을 길러야 하며, 이는 “함께 살아가기와 연대하기를 위한, 전통적 의미에서의 대화”(Appiah, 2008: 27)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최승현은 들뢰즈의 시각을 ‘실험적 배움론’이라 칭하면서, 초등생의 ‘세계시민교육’을 새롭게 제안한다(최승현, 2017). 아이들 스스로 기호와 마주치면서 기발한 상상을 내어놓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를 열어갈 시민성 학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시민교육은 근본적으로 열린 개념으로 지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특정한 이-것들’, 즉 기호라 할 수 있는 개별 대상에 응하여 행하는 실천의 과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시민성을 규범적 모델로 고정하기보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민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열린 시민성(open citizenship)으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요약하면, 들뢰즈의 되어감 관점에서 시민성은 ① 완성된 정체성이 아닌 생성적·과정적 존재, ② 차이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지는 실천, ③ 타자와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가능성을 창출하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연민’을 가능하게 하는 시민교육

다음으로, 전통적으로 권리·의무 중심으로 이해되던 시민성 개념을 넘어, 시민이 사회에서 의미 있게 기능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capabilities)을 중심으로 시민성을 재정의하려는 관점을 살펴보자. 잘 알려져 있듯이,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 2010)은 ‘역량 접근(capability approach)’을 통해 1980년대에 기존의 평등 개념을 재구성하였다. 소득과 부와 같은 지표보다도 중요한 척도는 그 개인과 사회가 정상적인 인간의 기능수행(functionings)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 즉 역량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기초하여, 경제적 차원을 넘어선 역량을 사회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고, 역량접근법은 오늘날 인권을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교육학적 관점에서도 이런 관점은 유효하다. 단지 ‘교육기회’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소외계층이 실질적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보면, 이런 시각은 시민을 국가가 부여한 법적 지위의 수혜자로 보는 이른바 ‘시민권적’ 시각을 넘어서서, 시민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갖추어야 진정한 의미의 시민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시민성의 조건으로서 시민학습을 권리의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글로벌 시민성’을 위한 역량을 키워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누스바움의 저작들을 묶어보면(Nussbaum, 2010; 2015), ‘예술을 통한 감정교육’이 그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성발달에 대한 기존의 관점이 권리와 자유라는 근대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음에 반해, 누스바움의 시각은 자유교육이라는 이성의 계발에서 나아가 연민과 같은 감수성을 시민성의 중심에 두는데, 이는 지구적 차원의 보편적 감각으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민성과 곧바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누스바움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는 적절할 반응으로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료의 요구를 경청할 동기, 즉 정치적 구상의 설계와

공민교육에서 인정을 요구하는 동기로 계속 연민을 필요로 할 것이다. 비록 훌륭한 제도도 노년과 죽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노인들,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 사별한 친인척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시민을 교양해 그러한 곤경의 무게와 의미를 연민을 갖고 이해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연민과 사회제도 간의 관계는 쌍방 통행로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즉 연민을 가진 개인은 자신이 상상하는 것을 구현하는 제도를 만든다. 그리고 제도는 역으로 개인에서 연민이 발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731쪽)

타인에 대한 연민의 감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사회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연민을 가진 시민’만이 ‘연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제도’를 상상하여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럴 때에야 ‘훌륭한 제도’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누스바움은 오늘날 전 세계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과 효율성의 추구로 인해 시민의 행복을 위한 민주주의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 개인의 행복 등 모든 것을 양화시켜 평가하고 “수치상의 정의”를 산출하는 현대 공리주의의 사고방식은 개별 인간 행위자에 대한 이야기를 삭제하고 이익과 이를 위한 효율성의 추구로 치닫게 한다. 이는 일국 내 환경을 비인간적·비민주적으로 바꾸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간 경쟁을 경유하면서 전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대한 세계적인 흐름에 대하여 누스바움이 제시하는 것은 ‘소소한 실천’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출생이나 국적같은 우연이 공동의 책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라고 글로벌 시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소설 읽기와 예술작품 감상하기와 같은 소소한 실천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을 단순히 소속 지역이나 집단의 시민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인정과 관심이라는 유대로 다른 모든 인간과 묶여있는 인간으로 바라보는 능력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면 어떨지를 생각하고 상상하는, ‘역지사지’ 능력의 확장, 그것이 모든 대안의 출발점이며, 예술작품은 서사적 상상력(Narrative Imagination)을 요청, 타자와의 정서적 결합력을 높여 줄 수 있다(임옥희, 2014)는 것이다.

서사적 상상력은 예술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키워질 수 있는데, 그 교육적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대상에 주목하고 하나의 내적 세계를 부여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심미적 판단의 방식이 궁극적으로는 타인을 대하는 방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방진하, 광덕주 2013). 우리는 타인의 내면에 소유하고 있는 삶에 대한 시선들을 상상하면서 그가 가진 인간다움(humanness)을 먼저 상정하는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논리적 판단과는 달리 심미적 판단은 능력의 편차와 비교적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접근 가능한 용이성을 띤다. ‘논리적 판단력’이 가진 엄밀성은 대화 주제에 관한 공동의 열정이나 대화 참여자들 서로 간의 배려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때때로 “인격의 다른 요소들의 성장을 위축시킬 위험(Nussbaum 2010)”을 가진다. 반면, 그 의미에 맞게 이루어진 예술 교육에서 학습자는 미적 이미지를 자신을 표현하는 통로로서 경험한다(방진하, 광덕주 2013)

이렇게 ‘인간’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전제로, 누스바움은 생명, 신체 건강, 신체 안전, 상상·사고·감정의 발달, 타인과의 관계, 실천적 이성, 환경 통제 능력 등 10가지의 핵심 역량을 제시하며(Nussbaum 2015a), 이는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본다. 역량이 독립적 개인이 갖추어야 할 일종의 ‘인적 자본’이 아니라, 사회와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서, 상상·사고·감정의 발달이나 타인과의 관계, 실천적 이성 등 개인의 역사와 연결된 정서적 발달을 중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역량은 HRD에서 제시하는 일종의 인적 자본이 아니라(김진모, 2005), 사회가 인

간에게 제시해주어야 하는 지향들로, 삶의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다.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보면, 민주주의적 사회에서 시민이 갖추게 되어야 할 지적·정의적·감정적 자질이 강조된다. 지적 측면에서는 비판적 사고, 타인의 관점 이해, 세계 시민적 인식 등 합리적 숙고 능력을 요구하며, 정의적 측면에서는 약자에 대한 연민, 보편적 인류애, 공정성에 대한 감수성을 중시한다. 감정적 측면에서는 타인과의 상호 존중, 공감, 상상력 등이 시민성이 유지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다. 누스바움은 정의적·감정적 측면은 물론, 지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와 개인의 맥락을 읽어내는 비판적 사고, 타인의 관점과 보편적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관계적’ 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누스바움의 시민성 조건은 단순한 정치 참여의 기술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능력과 더불어 타자와 공동체를 향한 윤리적·정서적 성숙을 포함하는 포괄적 시민성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IV. 글로벌 시민성의 조건으로서의 교육: 교-학 무브먼트의 창출

1. 사회운동에서 무브먼트로

위 두 시민성 개념으로부터 글로벌 시민성과 관련된 논의의 시작 지점을 추려볼 수 있다. 첫째, 글로벌 시민성은 기존의 시민성이 가지는 국가 경계 내의 권리 개념에서 지구적 위기에 대처하는 능동적 시민성을 전제로 삼는 것인데, 이는 지속적인 윤리적 자기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바, 교육적 성장의 규정을 내포해야 한다. 둘째, 들뢰즈와 누스바움의 논의로부터 시민성은 기존의 ‘목적-수단’의 짝말이 작동하는 교육이 아니라, 계속적인 타자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다. 지속적인 타자와의 합성을 통한 시민성, 서사적 내러티브를 생성하는 감성과 결합된 시민성은 변형과정으로서의 학습, 예술체험으로서의 학습을 통해 획득가능하며, 이것이 교육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논의가 제공하는 틀을 고려하면, 글로벌 시민성은 막연한 ‘지구적 위기를 인식하는 윤리 교육’에서 벗어나, ‘생활현장에 붙박여 있는 지구적 위기에 변형을 가하는 소소한 실천 활동’을 통해 구현되는 역동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시민성은 ‘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지구적 차원의 실천 장치인 것이다. 이는 ‘무브먼트’라는 기존 시민운동 속에서 맹아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하 FGI를 통해 추출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무브먼트란 기존의 운동이 가진 거대담론적·정치권력지향적 특성을 벗어나 최근 생활정치와 결합하여 진행되는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계속적인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런 운동을 표현할 때, ‘운동’, ‘사회운동’ 혹은 ‘시민운동’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지 않고 ‘무브먼트’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한다. 기존의 사회운동과 구분되는 무브먼트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사회운동과 무브먼트의 차이

사회운동	무브먼트
목적지향적	문제해결지향적
단일성 추구	사건 중심, 이해관계 당사자
선명한 공동의 목표	runaway object (탈주하는 목표)
모순의 발견과 극복 → 갈등과 투쟁	집속
정치권력	생활권력
이분법적 세계구도	공존적 세계구도

과거 사회운동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실천의 공간이 명확하였지만, 이제는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의 다원화와 다양화로 인해 사회구성원 다수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천으로 이끌어어나가기 위한 추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사회운동은 지향하고 성취해야 할 목표가 결정되면 모든 역량을 목표 성취에 투입하고, 결과론적 관점에서 목표의 성취여부를 운동의 성공여부로 판단해왔다(김태수, 2007). 따라서 운동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들을 정리하고 재조직화하여 다음 운동의 자원과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성찰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무브먼트’라 칭해지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이름은, 이런 기존의 사회운동이 가지는 특징에 비판적 혹은 냉소적이다. 그것은 거시적인 목표가 아니라 당장에 필요로 되는 ‘문제’에 집중하며,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목표는 이런 활동의 과정에서 생겨나며, 지속적으로 변경된다. 하나의 목표가 달성될 듯하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는 일종의 ‘런어웨이’ 목표가 생겨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일상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은 동일하게 시민 혹은 시민성과 결합한다. 기존 사회운동에서 시민은 ‘시민사회’ 혹은 ‘시민운동’차원에서 설정되며, 이는 ‘시민사회혁명’이라는 근대적 사회전환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신광영, 2094). 그러나 무브먼트라 칭해지는 운동에서 시민은 소소한 일상을 구성하는 ‘사람들’에 다름 아니며, 거시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관점에서 일상적 실천을 진행한다. 그것인 ‘시민적’인 이유는 관료적이거나 권위적인 일상을 ‘민주주의적 원리’에 따라 재구성해 나아간다는 점에 있다.

앞의 논의와 연결해보면, 글로벌 시민성은 기존의 국가단위 시민성에 비해 현저히 ‘보편적 인간’을 상징하고 있으며, 국가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연대를 지향하는 바, 이는 이미 일상의 짜임을 형성하고 있는 지구적 권력과 지구적 위기를 소소하게나마 변형해 나아가는 개인의 등장을 필요로 한다. 무브먼트는 글로벌 시민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문법을 제안하고 있는 셈이다.

2. ‘교·학’의 길항적 접속이 갖는 의미

글로벌 시민성은 국가경계를 넘어서는 인간 보편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며, 이는 지속적인 자기성장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한다. 이는 지속적인 성장과 결합한 상승적 결합을 사회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곧 나선형적 확장을 전제로 삼는 교육적 관계를 구성하는 과정에 다름아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그간 ‘민주시민교육’으로 통용되어 왔던 시민교육은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삶의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탐색하고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미 기존의 논의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은 개개인에게 무엇이 올바른 가치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사회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시민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줌과 동시에 사회적·공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민주적 사회 구현 과정에 필요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합의의 과정을 경험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공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심승환, 2019)으로 개념화되어 왔다.

문제는, ‘올바르고 타당함’, ‘적극적 참여와 합의’와 같은 용어가 기존의 이분화된 구조 속에서 더 이상 교육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원론적 차원에서 교육의 구성요소인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교학 즉 가르침과 배움은 일종의 짝말로, 하나의 단위처럼 인식되어 왔다. 즉,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배운 것은 가르쳐진 것이라는 인식이 근대적 교육의 전제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경험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가르친 내용과 배운 내용, 가르침과 배움은 길항적 관계, 즉 만나기도 헤어지기도 하는 지속적인 엇물림의 관계이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가르치면 그대로 배운다고 하는 착각, 혹은 가르침이 없이 배움이 완전하다고 믿는 오만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곧 가르침과 배움에 수반되는 겸허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예컨대, 가르치는 자는 자기의 가르침이 전혀 배움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도달불가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며, 배우는 자는 수많은 가르침들을 충분히 경청하지 못한 채 배우고 있다는 인식의 한계를 절감해야 한다.

이런 시각을 취하여 무브먼트를 새롭게 조명해보면, 가르침과 배움의 엇물림은 무브먼트를 추동하고, 무브먼트에는 가르침과 배움의 교차적 역동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사태를 단일하게 보고 사회의 변화 역시 선형적이라고 보는 과거의 운동론을 벗어나는 동시에, 운동안에 작동하는 가르침과 배움의 역동, 즉 교·학의 길항적 결합에 주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교학 무브먼트’라는 신조어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 우선 교학 무브먼트는 어떤 사회문제에 대하여, 들뢰즈식으로 말하자면 ‘흐파인’ 방식을 넘어서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회문제를 계급적 관점으로만 보는 것, 젠더적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전형적으로 기존의 흐름을 따라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은 전형성을 벗어나기 어렵다(정민승, 2021). 교학 무브먼트는 사회문제가 있을 경우, 그것을 ‘가르침과 배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것이 권력을 동반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문제를 수반하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배움의 연쇄 혹은 가르침의 개입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의문한다. 예컨대 쓰레기 처리장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그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나 권력관계 그리고 지식과 정보의 불균형의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책을 위한 대화와 토론의 연쇄 및 다른 사례의 공유 등은 기존의 주민운동과 다른 결의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 처리장은 환경운동이라는 새로운 목표 설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은 타 관계자들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할 수 있다. ‘무

브먼트'의 문제의식과 '교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사회문제는 새로운 방식의 학습-운동과 결합하게 된다.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보면, 교학 무브먼트는 일상의 다양한 사건들을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고리로 재구성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수용력을 높이는 동시에 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일상의 사태들의 짜임을 형성하는 권력구조에는 상당부분 가르침-권력자와 배움-피권력자라는 위계가 작동한다. 교육자는 권력자로 가르침을 담당하고, 학습자는 피교육자로 배움의 위치에 놓여있다. 교육자와 학습자의 거리가 멀수록, 위계가 강할수록, 해당 영역의 변화 가능성은 줄어든다. 상명하달의 문화가 작동하여 기존의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이원화된 가르침/배움의 구도가 깨진다면 어떠할까? 교학 무브먼트의 개념을 동원해서 보면, 무브먼트는 습관화된 일상에 균열을 가하는 것이고, 교학은 그 균열의 축을 가르침-배움의 요철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예컨대 쓰레기처리장의 문제는, 처리장을 둘러싼 이해당사자의 대립과 타협이라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처리장을 둘러싼 지식과 앎의 문제로 재해석되며, 처리장과 관련한 어떤 지식이 생산-확산되는지, 어떤 지식이 배제되는지와 같은 교육학적 쟁점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다각도에서 사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탐색과 지식의 창출, 배움을 통한 확산, 새로운 내용의 가르침이 분절적으로 확장되면서 쓰레기처리장이라는 문제는 새로운 규정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가르침(교)-배움(학)이 자유롭게 생산되고 결합되는 (착탈) 무브먼트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기존의 지식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결정이며, 따라서 그 사태를 구성하는 요인과는 다른 요인이 개입된다. 더불어, 그 사태에 대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한다면 사태로부터 거리를 두고 가르침의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즉, 정해진 사태의 재생산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 사례 등이 개입하여 내적 구성을 바꾸는 것이다. 이는 교학의 역동화를 통해 공공성의 재개념화를 경유, 기존의 문제를 각축 영역(contentious arena)로 전환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교학 무브먼트를 통한 글로벌 시민성의 생성

역설적이지만, 지구적 차원의 소통은 초개인적 차원의 윤리를 요청한다. 국가경계를 넘어선 경제와 정치, 정보와 지식의 넘나들은 기존의 국가경계를 기준으로 작동하던 연대나 투쟁을 무력하게 하였으며, 이제는 근대적 개인이나 그들의 결합체인 집단이 아니라 모나드의 개인, 나아가 단자화된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감을 동반한 글로벌 시민성은 인간-비인간의 결합 속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합성과정으로서의 시민에 주목한다. 어떤 경험이 이루어지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어떤 개입을 통해 진행되었는가에 따라 사회의 새로운 결이 생성되며, 따라서 그 미시적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위에서 말한 무브먼트는 글로벌 이슈를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발견된 내용을 추상하여 차원을 구분하고(윤여각, 2025), 이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일관되고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개인들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타나고 또 어느 순간 분리되는 실천의 단말마적 특성에 주목하여, 그 흐름이 어떤 물리력을 형성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가르침과 배움, 교-학 혹은 교/학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이음새를 만들어가는 일종의 이음과 틈의 도구인 셈이다.

또한 글로벌 시민성은 사회와 개인의 연결에 주목하여 어떻게 감성을 일깨워낼 것인가에 주목할 때에야 길러질 수 있는 품성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구적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근대적 아비투스(gut)를 가졌었고, 이를 근대적 산업이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지구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성조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상정해 왔던 것이다.

이를 문제적 시각에서 보면, 누스바움의 제시한 예술작품의 감상, 효율성을 넘어서는 감성의 발달을 위해서는 기존의 아비투스와의 단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근대적 교육의 성취로부터 탈학습(unlearning)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기존의 학습을 폐기하는 것은 반편견학습과 마찬가지로 탈정체화과정(de-identification)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은 시간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민성과 관련해서 보면, 글로벌 시민성은 국가를 넘어선 보편적 인간애의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무형식학습의 결과 습득된 혐오나 편견, 차별을 폐기하기 위한 반편견의 탈학습을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난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교학 무브먼트의 개념과 결합해보면, 교학 무브먼트는 현재의 일상에 스며들어 ‘짜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일종의 ‘문화구조’에 균열을 가한다는 점에서, 반편견을 온존하고 있는 문화로부터의 탈학습의 계기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무브먼트를 통해 다양한 층위와 다양한 양상의 편견에 대한 자각을 가능하게 하는 탈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글로벌 시민성의 전제라 할 수 있는, 국가경계로 인한 편견-차별-혐오에 대한 비판과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글로벌’과 당위적 윤리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시민성’을 현실로 끌어내릴 수 있는 개념적 장치라 할 수 있겠다.

V. 맺음말

인공지능이 미증유의 시대를 여는 상황에서, 이제는 ‘글로벌’이라는 용어조차 과거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구적 위기가 인류의 위기로, 시민성 함양이 포스트휴머니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차별-혐오와 국제분쟁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연구의 주축도 2020년 이후로는 ‘글로벌’은 AI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글로벌 시민성’을 다시금 논의의 주제로 삼은 것은 지구적 문제의식이 오히려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여러 차원의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문제의식과 함께 개개인의 인격적-시민적 성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민성’에서 이미 제안된 많은 자질들이, 인간-비인간의 관계맺음이나 사물권-기계권의 논의의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 하에 글로벌 시민성에 대한 교육학적 재개념화를 시도해보았다. 개념을 새롭게 설정한다는 것이 가지는 실천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지만, 적어도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운동의 교육적 의미를 제고하고, 교육을 실천 및 탈학습과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나아갈 수 있는 물꼬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시민’은 인간이라는 추상적 범주에 사회적 불평등을 입혀, 그로부터 다양한 권리와 운동을 창조해낸 중요한 개념적 장치다. 이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건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시대에 ‘시민’의 문제의식을 다시금 적용해보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다.

앞서 우리는 ‘교학무브먼트’라는 개념을 통해 시민교육의 위상을 새롭게 설정해보았다. 시민성

의 함양 정도로 축소될 수 있는 ‘목표달성의 수단’으로서의 시민교육은 ‘글로벌 시민성’의 부상과 함께 ‘시민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로서의 시민교육’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개념의 시민교육은 기존의 사회운동과 구분되는 ‘무브먼트’통해 작동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가르침과 배움, 즉 교-학은 무브먼트를 이루는 중요한 축으로서 지속적인 작탈의 연쇄 속에서 새로운 시민성 창출로 나아갈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민교육, 나아가서 교육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새로운 위상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탈학습의 과정을 수반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복잡계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를 적극적으로 구성해 가기 위한 조건임을 알려준다.

참고문헌

- 김남준, 박찬구(2015). “세계화 시대의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성: 어떤 세계시민주의? 어떤 세계 시민성?”. 『윤리연구』, 105(1), 1-34.
- 김지현 · 손철성(2009). “세계시민주의,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시대와 철학』, 17(1), 93-126.
- 김진모(2005). “기업체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역량 모형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8(2), 209-221.
- 김진희, 허영식(2013).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담론과 함의 고찰”. 『한국교육』, 40(3), 155-181.
- 목광수(2010). “역량 중심 접근법과 인정의 문제: 개발 윤리와의 관련 하에서 고찰”, 『철학』, 104(가을호), 215-239.
- 박환보, 조혜승(2016).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연구동향 분석”. 『교육학연구』, 54(2), 197-227.
- 방진하, 광덕주(2013). “교육의 인문성 회복의 미래가치탐색”. 『아시아교육연구』, 14(2), 109-141.
- 변중헌(2001). “세계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아시아교육연구』, 2(2), 65-85.
- 배지현(2012). “들뢰즈 철학에서 ‘배움’의 의미 탐색”.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광영(1994).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형성”. 『아시아문화연구』, 10, 145-180.
- 심승환(2019). “한국의 민주시민교육방향에 관한 교육철학적 고찰: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 『교육사상연구』, 33(4), 47-84.
- 윤여각(2025). “인생 2막 설계에서 차원적 접근에 관한 연구”. 『통합인문학연구』, 17(2), 1-35.
- 임옥희 (2012). “서사적 상상력: 인문학적 페미니즘의 가능성”. 『탈경계인문학』, 5(3), 5-29.
- 정민승(2021). 『평생학습, 또하나의 오래된 미래』. 에피스테메.
- 정민승-노일경-박상옥-윤창국-이다현-이재준(2024). 『공공상생연대 교육사업의 위상 및 발전방안』, 공공상생연대 용역보고서.
- 최승현(2017). “들뢰즈의 실험적 배움론으로 본 세계시민교육”. 『교육철학학회』, 39(4), 147-167.
- 최종덕(2014). “글로벌 시민교육의 쟁점과 과제”. 『시민교육연구』, 46(4), 207-227.
- 하경수(2025). “한국 세계시민교육의 도전과 과제”. 『이주사학회』, 32, 172-203.
- Appiah, A. (2006). *Cosmopolitanism: Ethics in a World of Strangers*. New York: Norton & Company.
- 실천철학연구회 역(2008). 『세계시민주의: 이방인들의 세계를 위한 윤리학』. 서울: 바이북스.
- Cabezudo, A.(2013). *Integration of Global Dimension into Citizenship Education. Presentation at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Harvey, D.(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Blackwell*. 구동화·박영민 옮김(1995),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 Marshall T. H. & Bottomore T.(1992). *Citizenship*. 조성은 옮김(2014). 『시민권』. 서울: 나눔의 집.
- McLean, S. R. and Cook, S. A.(2016). *Rethinking Global Citizenship Resources for New Teachers: Promoting Critical Thinking and Equity. Journal of Global Citizenship & Equity Education* 5(1). 1-24.
- Nussbaum, M. C. (2000), *Frontiers of Justice: Disability, Nationality, Species Membership*.

- Nussbaum, M. C. (2003), 오인영 옮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한계 논쟁』, 삼인.
- Nussbaum, M. C. (2010), 황은덕 옮김, “민주 시민과 서사적 상상력”. 『오늘의 문예비평』, 79호, 22-46.
- Nussbaum, M. C. (2011), 우석영 옮김,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궁리.
- Nussbaum, M. C. (2015a), 한상연·이양수 옮김. 『역량의 창조: 인간다운 삶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돌베개.
- Nussbaum, M. C. (2015b), 조형준 옮김, 『감정의 격동』 (전3권), 새물결.
- Polletta, F.(2002). *Freedom is an endless mee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pivak, G.(1999). 태혜숙·박미선 옮김, 『포스트식민 이성 비판』, 갈무리.
- Unesco(2014). 『글로벌 시민교육: 21세기 새로운 인재 기르기』. 유네스코 아세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Williams, J.(2003). *Gilles Deleuze's Difference and Repetition: A Critical Introduction and Guide*.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신지영 역(2010). 『데뢰즈의 차이와 반복: 해설과 비판』. 서울: 라움.
- Williams, J.(2013). *Time and Education in the Philosophy of Gilles Deleuze*. Semetsky, I. and Masny, M.(Ed). *Deleuze and Educa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35-251.

* 초 록 *

기후위기, 국제분쟁, 감염병, 국제불평등 등 지구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2000년 이후 글로벌 시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시민교육에 대한 담론도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다. 문제는 지구적 차원의 대안제안은 현실적 구현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다. 게다가 기존의 ‘시민성 달성 수단으로서의 교육’이라는 시민교육의 개념규정을 유지할 경우, 글로벌 시민교육은 당위적인 윤리강령 이상이 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글로벌 시민성이 국가단위의 시민성과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며, 따라서 시민교육의 개념규정 역시 변화해야 함을 밝힌다. 이어서, 수단적 교육을 탈피한 새로운 글로벌 시민교육의 재개념화로 보편적 인간애의 문법을 창출하는 ‘교학 무브먼트’를 제시한다.

* ABSTRACT *

As global crises such as the climate emergency, international conflicts, infectious diseases, and global inequality have intensified, concerns on global citizenship has grown markedly since 2000, accompanied by proliferation of discourse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However, if we continue to adhere to the conventional definition of citizenship education as “education as a means to achieve citizenship,”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annot evolve beyond a normative ethical code. This study argues that global citizenship possesses a structural nature fundamentally distinct from nation-state-based citizenship, and that the conceptualization of citizenship education must accordingly change. Building on this argument, the study proposes a movement on “teaching-learning detachable linkage” that generates a grammar of universal human solidarity as a reconceptualization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liberated from an instrumental understanding of education.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해결 행동 분석: 과의존 요인과 부모 중재 유형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봉민**

An Analysis of Adolescents' Behavioral Efforts to Resolve Smartphone Overdependence:
Focus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Overdependence Factors
and Parental Mediation Types

Lee, Bong Min

◁ 목 차 ▷

I. 들어가며	IV. 결론
II. 연구 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 결과	초록

I. 들어가며

스마트폰은 청소년의 학습과 소통, 여가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매체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에서의 편의성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확장시켰다. 동시에 이용 시간 증가와 목적의 다변화로 인해 청소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과의존 문제를 심화시켜, 학업 집중 저하, 수면 문제, 대인관계 갈등 등 다양한 생활 영역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Lee, 2022; Oh & Heo, 2024). 지금까지 스마트폰 과의존 연구는 주로 과의존을 유발하는 개인적·환경적 위험 요인을 규명하거나, 과의존이 우울, 공격성, 학교 부적응과 같은 부정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주력해 왔다(Yoo, 2021; Do & Kim, 2024).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이러한 논의는 더욱 확장되었다(Kim et al., 2022; Lee et al., 2025).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을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수동적 존재로만 바라볼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많은 청소년은 과의존의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사용 습관을 점검하거나(자기 점검),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고(환경 통제), 오프라인 활동을 늘리는(대체 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을 시도한다. 이러한 점에서 과의존의 병리적 현상을 진단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해결 노력에 대한 인식과 행동 양상, 촉진 기제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교수

이러한 연구 필요성의 맥락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이 단일한 차원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용 시간을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조절 실패’,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을 느끼는 ‘현저성’, 그리고 건강이나 관계의 악화를 경험하는 ‘문제적 결과’라는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해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정적 결과를 직접 체감하는 것(문제적 결과)은 즉각적인 행동 변화를 촉발할 수 있지만, 심리적 의존이 강한 상태(현저성)에서는 변화하려는 인식이나 행동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과의존의 하위 요인이 해결 행동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실천적 노력은 과의존 문제를 직접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은 과의존을 중속 변인으로만 다룰 뿐, 청소년이 실천하는 대처 전략을 조명하려는 시도는 부족했다(Baumeister & Vohs, 2007).

더불어 청소년기는 부모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의 중재는 과의존 해결의 핵심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부모가 개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 부모 중재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 중재, 교육적 중재, 협력적 중재와 같이 부모의 개입 방식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이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경험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 왔다(Valkenburg et al., 1999; Livingstone & Helsper, 2008). 특히 부모의 개입은 단순한 사용 규제를 넘어, 청소년의 자율성 인식과 행동 변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Barber, 1996; Soenens & Vansteenkiste,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중재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해결 행동’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과의존의 하위 요인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과의존 해결 행동(자기 점검, 환경 통제, 대체 활동)에 대한 스마트폰 과의존 하위 요인(조절 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과 부모의 중재 유형(제한적, 교육적, 협력적)의 영향, 그리고 둘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과의존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개입 전략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해결 행동에 대해 스마트폰 과의존 양상과 부모 중재 유형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중 만 10세에서 19세의 청소년이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전국 가구를 표본틀로 하여 층화다단계 확률표집 방식으로 수행된 국가 승인 통계 자료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과의존 관련 특성을 전국 단위에서 점검할 수 있

는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자료 중 청소년 대상 문항이 유효한 사례를 추출하여 총 1,977명의 응답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결측 응답은 해당 변인에서 제외하거나, 연구 목적상 명백한 오류로 판단되는 값은 결측으로 전환한 뒤 분석에서 배제하였으며, 일관된 응답 패턴을 유지하지 않는 극단치의 경우 제거하였다.

2.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과의존 해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가 부모 중재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과의존을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 척도의 3요인인 조절 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로 구성하고(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과의존 해결 행동을 자기 점검, 환경 통제, 대체 활동의 3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부모 중재는 미디어 중재 연구에서 활용하는 범주를 활용하여 제한적·교육적·협력적 중재의 3유형으로 구조화하였다(Valkenburg et. al, 1999).

연구 모형은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3요인) → 과의존 해결 행동(3유형)’의 기본 경로 위에서, 부모 중재 유형(3요인)이 해당 관계를 조절하는 구조로 설정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성별, 연령, 가구 소득을 포함하였다.

3. 변인의 구성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의 하위요인과 문항 구성, 측정 및 산출 방식은 <표1>과 같다. 특히 종속 변수와 조절 변수는 원자료에서 체크형/이항 응답 구조로 조사되어 있어, 동일한 구조에 따라 재코딩한 뒤 합산 점수를 산출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료의 점수 체계를 유지하였다.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과의존 해결 행동은 15번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변인은 청소년이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스스로 조절하기 위해 실천하는 구체적 노력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먼저 ‘자기 점검’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자신의 사용 습관 및 내역을 스스로 확인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이는 단순히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미디어 이용 패턴을 객관화하여 모니터링하는 자정 노력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 통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거나, 유혹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을 특정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는 노력으로, 디지털 자극에 노출되는 물리적 환경을 스스로 재구조화하려는 적극적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대체 활동’은 대면 대화나 취미 활동 등 오프라인 활동을 선택적으로 확대하는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을 통한 즉각적인 디지털 보상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양상을 의미한다.

15번 문항은 ‘그렇다’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항별로 “선택=1, 비선택=0”으로 재코딩한 후, 행동의 내용에 따라 ‘자기 점검’, ‘환경 통제’, ‘대체 활동’으로 구분한 후 각 범주에 대해 합산 점수를 산출하였다. 자기 점검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사용 습관·내역을 점검하는 행동을 포함하고, 환경 통제는 사용 시간·공간을 제한하거나 스마트폰을 특정 장소에 보관하는 실천을 의미한다. 대체 활동은 직접 대화나 취미 활동 등 오프라인 활동을 선택적으로 확대하는 행동으로 구성하였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유형의 해결 행동을 더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립 변수인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은 4번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실태조사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S-척도의 요인에 따라 ‘조절 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로 구분하였다. 조절 실패(self-control failure)는 사용자가 스스로 정한 이용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사용을 멈추기 어려운 상태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의지적 통제력이 약화된 핵심적인 증상에 해당한다. 또한 현저성(salience)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어 항상 생각나고 이용 충동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심리적으로 스마트폰에 강하게 집착하여 다른 일상 활동보다 우선순위가 압도적으로 높아진 상태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문제적 결과(serious consequences)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겪게 되는 건강, 대인관계, 학업 등 일상의 신체·심리·사회적 어려움에 해당하는데, 과의존으로 인한 부정적 여파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다.

조절 변수인 부모 중재 유형은 20번 문항을 활용하여 세 가지 방식으로 구조화하였다. 먼저 ‘제한적 중재’는 부모가 사용 시간이나 장소,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부모가 권위적 입장에서 자녀의 이용 환경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양상에 해당한다. 또한 ‘교육적 중재’는 사용의 장단점을 설명하거나 유익한 정보 이용 방법을 가이드하는 인지적 개입에 해당하는데, 이는 자녀의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 형성을 돕기 위한 부모의 지도 및 조언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중재’는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가족 규칙을 함께 실천하는 방식으로, 이는 부모와 자녀가 미디어 이용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며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관계적 접근을 의미한다.

20번 문항은 “예/아니오”로 응답하는 이항 구조의 형태로 조사되어 “예=1, 아니오=0”으로 재코딩한 뒤, 제한적·교육적·협력적 중재의 범주에 따라 합산 점수를 산출하였다. 제한적 중재는 스마트폰 사용 자체에 대한 규제 중심 접근이며, 교육적 중재는 사용의 장단점 설명이나 방법 지도와 같은 인지적 개입을 의미한다. 협력적 중재는 공동 이용이나 가족 규칙 실천과 같이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정도를 나타낸다. 각 범주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범주에 대한 부모의 중재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통제 변수 중 성별은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재코딩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 가구 소득은 서열형 값을 나타내고 있다, 값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이나 디지털 이용 행동에서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해결 행동 분석:과의존 요인과 부모 중재 유형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표1> 변인의 구성 및 측정

변인	하위요인	내용	문항	원자료 응답체계	재코딩/산출 방식
종속 변수: 과의존 해결 행동	자기 점검	보행 중 자제, 습관 점검, 사용 내역 확인	Q15_1~ Q15_3	체크형(선택=해당 문항값 기록)	선택=1, 비선택=0, 합산(0~3)
	환경 통제	시간·공간 제한, 보관 장소 설정	Q15_4~ Q15_6	체크형	선택=1, 비선택=0, 합산(0~3)
	대체 활동	대면 대화, 취미 활동	Q15_7~ Q15_8	체크형	선택=1, 비선택=0, 합산(0~2)
독립 변수: 스마트폰 과의존	조절 실패	사용 조절 곤란, 집중 저하	Q4_2_1~ Q4_2_3	4점 리커트	문항 평균(1~4)
	현저성	스마트폰 집착, 이용 충동	Q4_2_4~ Q4_2_6	4점 리커트	문항 평균(1~4)
	문제적 결과	건강문제, 갈등, 기능저하	Q4_2_7~ Q4_2_10	4점 리커트	문항 평균(1~4)
조절 변수: 부모 중재 유형	제한적 중재	사용 제한·시간 제한·콘텐츠 제한	Q20_1_1~ Q20_1_3	이항(예/아니오)	예=1, 아니오=0, 합산(0~3)
	교육적 중재	설명·지도·유익한 정보 제공	Q20_1_4~ Q20_1_6	이항	예=1, 아니오=0, 합산(0~3)
	협력적 중재	공동 이용·가족 규칙 실천	Q20_1_7~ Q20_1_9	이항	예=1, 아니오=0, 합산(0~3)
통제변수	-	성별, 연령, 가구 소득	-	-	성별(남=1, 여=0), 연령(만 나이), 가구소득(값 유지)

4. 분석 방법

분석은 먼저 응답자의 기본 특성 및 주요 변인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연구 문제인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과 부모 중재가 과의존 해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종속 변수 요인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는 성별, 연령, 가구소득을 투입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2단계에는 스마트폰 과의존의 3요인을 추가하여 개인 요인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3단계에서는 부모 중재의 3요인을 추가하여 가정 요인의 직접 효과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과의존 요인과 부모 중재 요인 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조절효과 검증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분석에 투입된 모든 연속형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 처리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항 투입으로 인한 통계적 왜곡을 최소화하고, 회귀계수의 해석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초 통계

청소년 1,977명을 대상으로 종속변수(과의존 해결 행동), 독립변수(스마트폰과의존 수준), 조절변수(부모 중재), 통제변수(성별, 연령, 가구소득)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이 약 48%, 여학생이 약 52% 수준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고, 평균 연령은 약 14.6세, 가구소득은 1~6 범위 중 평균 3.24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의존 해결 행동의 유형별 평균은 자기 점검 1.13, 환경 통제 0.99, 대체 활동 0.71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의과의존 해결 행동이 일부 실천되기는 하지만 행동 유형별로 노력 수준의 차이가 확인된다.과의존 수준의 요인별 평균은 각 4점 만점에서 조절 실패 2.46점, 현저성 2.25점, 문제적 결과 2.02점으로, 전반적으로 중간값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청소년이과의존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 중재는 유형별로 교육적 중재(1.46점)가 가장 높았고, 제한적 중재(1.22점), 협력적 중재(0.98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가 협력적 중재보다 다소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부모가 청소년과 함께하는 방식보다는 설명·지도, 사용 제한 중심의 개입을 상대적으로 많이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2>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N=1,977)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과의존 해결 행동	자기 점검	1.13	0.78	0	3
	환경 통제	0.99	0.83	0	3
	대체 활동	0.71	0.74	0	2
과의존 수준	조절 실패	2.46	0.67	1	4
	현저성	2.25	0.69	1	4
	문제적 결과	2.02	0.59	1	4
부모의 중재	제한적 중재	1.22	0.89	0	3
	교육적 중재	1.46	1.08	0	3
	협력적 중재	0.98	1.09	0	3
성별(남=1)		0.48	0.50	0	1
연령		14.58	2.56	10	19
가구소득		3.24	0.79	1	6

2.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가. 자기 점검 행동에 대한 영향

자기 점검 행동을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3>과 같다.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 1의 설명력은 매우 낮았으며($R^2=.002$), 성별, 연령, 가구소득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스마트폰과의존 요인을 투입한 모형 2에서는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Delta R^2=.011$, $p<.01$),과의존 하위 요인 중에서는 문제적 결과가 자기 점검 행동과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였다($B=.126$, $p<.001$). 이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건강, 대인관계, 일상 기능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한 청소년

일수록 자신의 사용 습관을 점검하려는 행동을 더 많이 수행함을 의미한다. 반면 조절 실패와 현저성 요인은 이 단계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 중재 유형 요인을 포함한 모형 3에서는 설명력이 $R^2=.025$ 로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Delta R^2=.014$, $p<.001$). 이 단계에서 연령($B=.015$, $p<.05$)은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과의존 요인 중 문제적 결과($B=.101$, $p<.01$) 또한 자기 점검 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중재 유형의 경우, 교육적 중재($B=-.040$, $p<.05$)는 자기 점검 행동과 부적 관계를 보였으나, 협력적 중재($B=.080$, $p<.01$)와 제한적 중재($B=.061$, $p<.01$)는 모두 자기 점검 행동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부모가 자녀와 협력하거나 규칙을 정해 제한하는 방식은 자기 점검 행동을 강화하는 반면, 설명·지도 중심의 교육적 중재는 오히려 자기 점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4에서는 설명력이 $R^2=.046$ 으로 증가하였다($\Delta R^2=.021$, $p<.001$). 통제 변수의 경우에는 연령($B=.015$, $p<.05$)이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성별과 가구소득은 유의하지 않았다. 과의존 유형의 경우, 문제적 결과 요인이 자기 점검 행동에 정적 영향($B=.090$,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중재 유형 중에는 모형 3과 마찬가지로 교육적 중재($B=-.039$, $p<.05$)는 부적 관계를, 협력적 중재($B=.082$, $p<.01$)와 제한적 중재($B=.062$, $p<.01$)는 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호작용항 가운데 조절 실패와 교육적 중재($B=-.114$, $p<.01$), 조절 실패와 협력적 중재($B=.111$, $p<.01$), 현저성과 제한적 중재($B=-.145$,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 실패 수준이 높은 조건에서는 교육적 중재와 자기 점검 행동 간에 부적 상호작용이 나타나지만, 협력적 중재는 자기 점검 행동과 정적 상호작용을 보였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의 현저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제한적 중재가 강화될수록 자기 점검 행동이 감소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문제적 결과와 부모 중재 유형 간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아, 문제적 결과 요인의 주효과는 부모 중재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자기 점검 행동은 조절 실패와 현저성 요인에 대해서는 부모 중재 유형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는 반면, 문제적 결과 요인의 영향은 비교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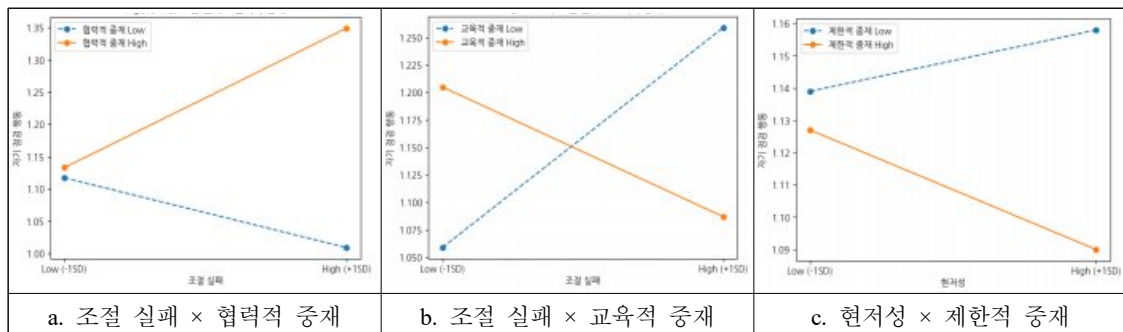
<표3> 자기 점검 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1.145***	0.024	-	1.147***	0.024	-	1.147***	0.024	-	1.152***	0.025	-
성별(남=1)	-0.037	0.035	-0.024	-0.041	0.035	-0.026	-0.040	0.035	-0.025	-0.039	0.035	-0.025
연령	0.011	0.007	0.035	0.010	0.007	0.032	0.015*	0.007	0.049	0.015*	0.007	0.050
가구소득	-0.018	0.022	-0.018	-0.014	0.022	-0.014	-0.018	0.022	-0.019	-0.013	0.022	-0.013
조절 실패				0.033	0.034	0.028	0.048	0.034	0.041	0.026	0.034	0.023
현저성				-0.038	0.035	-0.033	-0.047	0.034	-0.041	-0.026	0.035	-0.023
문제적 결과				0.126***	0.034	0.094	0.101**	0.035	0.076	0.090*	0.035	0.067
제한적 중재							0.061**	0.021	0.070	0.062**	0.021	0.070
교육적 중재							-0.040*	0.019	-0.056	-0.039*	0.019	-0.054
협력적 중재							0.080***	0.019	0.111	0.082***	0.019	0.113

X1*M1										0.012	0.040	0.010
X1*M2										-0.114**	0.037	-0.107
X1*M3										0.111**	0.035	0.104
X2*M1										-0.145***	0.038	-0.119
X2*M2										0.046	0.036	0.045
X2*M3										-0.059	0.037	-0.055
X3*M1										0.055	0.039	0.037
X3*M2										-0.016	0.038	-0.013
X3*M3										0.060	0.037	0.047
R ²	0.002			.011			.025			.046		
ΔR ²				.009**			.014***			.021***		
F (df)	1.312 (3, 1973)			3.548 (6, 1970)			5.632 (9, 1967)			5.250 (18, 1958)		

- 조절 실패: X1, 현저성: X2, 문제적 결과: X3, 제한적 중재: M1, 교육적 중재: M2, 협력적 중재: M3
- *: p<.05, **: p<.01, ***: p<.001

자기 점검 행동에 대한 조절효과는 <그림 1>과 같이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1-a>를 살펴보면, 조절 실패 수준이 높은 조건에서 부모의 협력적 중재가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자기 점검 행동이 높게 유지되는 완충 효과가 확인된다. 반면 <그림 1-b>의 교육적 중재는 조절 실패가 높은 집단에서 오히려 자기 점검 행동을 낮추는 부적 상호작용을 보였다. <그림 1-c>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현저성이 높은 청소년에게 부모가 강한 제한적 중재를 가할 경우, 자기 점검 행동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 1> 자기 점검 행동에 대한 상호작용 양상

이러한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의 관계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조절 실패와 현저성 요인은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어떠한 중재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자기 점검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협력적 중재는 조절 실패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반면, 제한적 중재는 현저성이 높은 청소년에게 오히려 반발심을 유발하여 자기 점검이라는 해결 행동을 저해하는 효과를 낳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문제적 결과 요인은 상호작용 효과 없이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부정적 결과의 직접적인 경험은 부모의 중재 유형과 상관없이 청소년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게 만드는 독립적인 동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 환경 통제 행동에 대한 영향

환경 통제 행동을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모형 1에서는 가구소득($B=.081, p<.001$)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이와 달리 성별과 연령은 환경 통제 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스마트폰 과의존 요인을 추가한 모형 2에서는 설명력이 $R^2=.018$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Delta R^2=.012, p<.001$). 과의존 요인 중 조절 실패는 환경 통제 행동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여($B=-.163, p<.001$)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이 어렵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환경 조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저성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115, p<.01$), 일상 생활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여기는 청소년들은 사용 환경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제적 결과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 중재 유형을 투입한 모형 3에서는 R^2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개별 중재 변인(제한, 교육, 협력) 또한 환경 통제 행동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중재 그 자체만으로는 청소년의 물리적 환경 통제 행동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4에서는 설명력이 $R^2=.035$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Delta R^2=.013, p<.01$). 이 단계에서 가구소득($B=.081, p<.001$)과 현저성($B=.124, p<.001$)은 정적 영향을, 조절 실패($B=-.171, p<.001$)는 부적 영향을 유지하였다. 상호작용 분석 결과, 조절 실패와 협력적 중재의 상호작용은 정적 상호작용을($B=.100, p<.01$), 현저성과 제한적 중재의 상호작용은 부적 상호작용을 보였다($B=-.083, p<.05$).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의 결과를 종합하면, 조절 실패 수준이 높은 청소년에게 부모가 협력적으로 다가갈수록 청소년의 환경 통제 행동이 증가하며, 반대로 현저성이 높은 청소년에게 제한적 중재가 높아지면 오히려 청소년의 환경 통제 행동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4> 환경 통제 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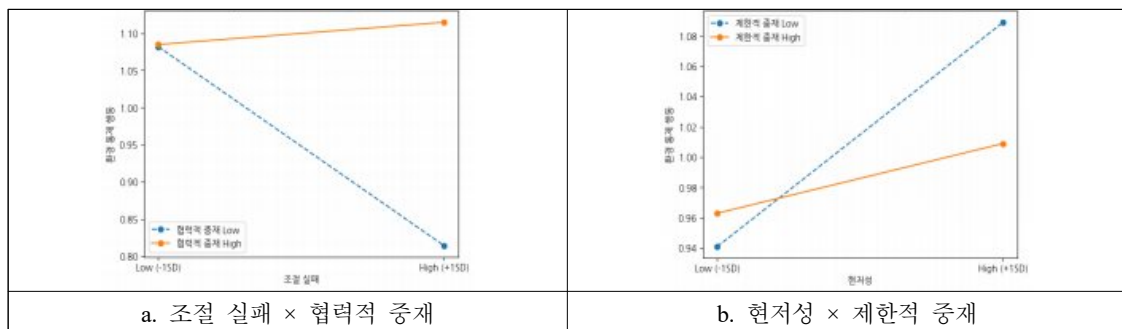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1.011***	0.026	-	1.012***	0.026	-	1.011***	0.026	-	1.022***	0.026	-
성별(남=1)	-0.037	0.037	-0.022	-0.038	0.037	-0.023	-0.036	0.037	-0.021	-0.038	0.037	-0.023
연령	-0.003	0.007	-0.009	-0.004	0.007	-0.012	0.001	0.008	0.002	0.001	0.008	0.002
가구소득	0.081***	0.024	0.076	0.076**	0.024	0.072	0.076**	0.024	0.072	0.081***	0.024	0.077
조절 실패				-0.163***	0.036	-0.132	-0.156***	0.036	-0.126	-0.171***	0.037	-0.138
현저성				0.115**	0.037	0.095	0.107**	0.037	0.089	0.124***	0.037	0.103
문제적 결과				0.065	0.037	0.046	0.066	0.037	0.047	0.056	0.037	0.040
제한적 중재							0.022	0.023	0.023	0.022	0.023	0.024
교육적 중재							0.036	0.020	0.047	0.036	0.021	0.047
협력적 중재							0.002	0.020	0.003	0.006	0.020	0.008

X1*M1										-0.057	0.042	-0.042
X1*M2										-0.067	0.039	-0.059
X1*M3										0.100**	0.038	0.089
X2*M1										-0.083*	0.041	-0.065
X2*M2										0.005	0.039	0.005
X2*M3										0.004	0.040	0.003
X3*M1										0.055	0.042	0.035
X3*M2										0.029	0.041	0.022
X3*M3										-0.032	0.040	-0.024
R ²	.006***			.018***			.022			.035		
ΔR ²				.012***			.003			.013**		
F (df)	4.101 (3, 1973)			6.080 (6, 1970)			4.814 (9, 1967)			3.888 (18, 1958)		

• 조절 실패: X1, 현저성: X2, 문제적 결과: X3, 제한적 중재: M1, 교육적 중재: M2, 협력적 중재: M3

• *: p<.05, **: p<.01, ***: p<.001

환경 통제 행동에 대한 조절효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a>를 보면, 조절 실패가 높은 청소년은 환경 통제 행동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부모의 협력적 중재가 이루어질 경우 그 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림 2-b>에서 나타나듯, 현저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제한적 중재는 자기 점검 행동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환경 통제 행동마저 위축시키는 부정적 조절 양상이 나타난다.



<그림 2> 환경 통제 행동에 대한 상호작용 양상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의 중재는 환경 통제 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하지만, 과의존 위험 요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협력적 중재는 조절 실패로 인해 환경 통제를 포기하려는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행동을 다시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스마트폰에 대한 집착(현저성)이 강한 상태에서의 제한적 중재는 오히려 환경 통제 행동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 대체 활동 행동에 대한 영향

대체 활동 행동을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5>와 같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B=-.104$, $p<.01$)이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운동, 취미 등 스마트폰 외의 대체 활동 수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 연령과 가구소득은 이 단계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과의존 요인을 추가한 모형 2에서 설명력은 $R^2=.014$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Delta R^2=.007$, $p<.01$). 과의존 요인 중 현저성만이 대체 활동 행동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B=-.109$, $p<.001$). 이는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요하게 여겨질수록, 스마트폰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하려는 행동은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조절 실패와 문제적 결과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 중재 요인을 포함한 모형 3에서는 대체 활동 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R^2=.026$ 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Delta R^2=.011$, $p<.001$). 이 단계에서 성별과 현저성은 모형 2와 동일한 방향의 결과를 보였고,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대체 활동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의존 요인 중에서는 현저성($B=-.122$, $p<.001$)의 부적 영향력이 유지되었다. 부모 중재 유형의 경우, 교육적 중재($B=.050$, $p<.01$)와 협력적 중재($B=.037$, $p<.05$)는 대체 활동 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제한적 중재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설명하거나 자녀와 함께 활동하는 협력적 방식이 대체 활동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4에서는 설명력이 $R^2=.034$ 로 추가 증가하였다($\Delta R^2=.009$, $p<.05$). 최종 모형에서는 통제 변수 중 성별, 연령과 더불어 가구소득($B=-.041$, $p<.05$)이 새롭게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의존 요인 중에서는 현저성($B=-.130$, $p<.001$)의 부적 영향이 유지됨과 동시에, 모형 3까지 유의하지 않았던 조절 실패($B=.066$, $p<.05$)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부모 중재 유형은 교육적 중재($B=.050$, $p<.01$)와 협력적 중재($B=.039$, $p<.05$)의 정적 영향력이 유의하게 유지되었다.

상호작용항 가운데 조절 실패와 협력적 중재($B=.076$, $p<.05$)는 정적 상호작용을, 현저성과 협력적 중재($B=-.087$, $p<.05$)는 부적 상호작용을 보였다. 이는 조절 실패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협력적 중재가 대체 활동을 높이는 긍정적인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반해, 스마트폰의 현저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부모가 협력적으로 개입하더라도 대체 활동 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거나 중재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5> 대체 활동 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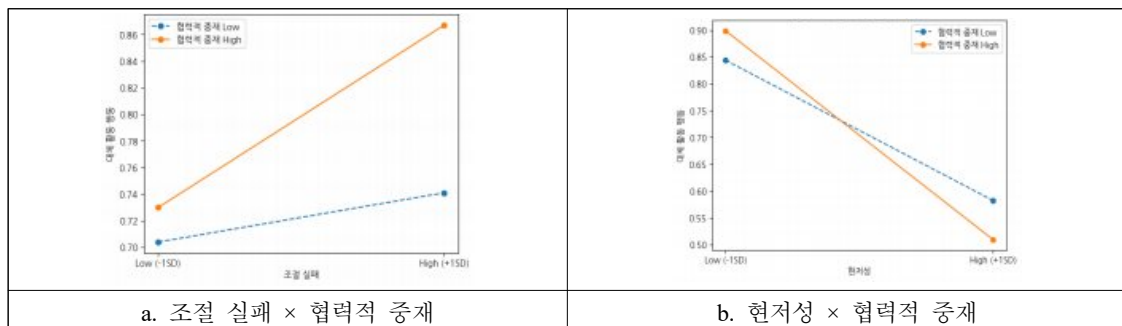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0.756***	0.023	-	0.755***	0.023	-	0.752***	0.023	-	0.761***	0.023	-
성별(남=1)	-0.104**	0.033	-0.071	-0.103**	0.033	-0.070	-0.097**	0.033	-0.066	-0.100**	0.033	-0.068
연령	0.011	0.006	0.038	0.010	0.006	0.036	0.014*	0.007	0.050	0.015*	0.007	0.051
가구소득	-0.031	0.021	-0.033	-0.034	0.021	-0.037	-0.039	0.021	-0.041	-0.041*	0.021	-0.044
조절 실패				0.039	0.032	0.036	0.058	0.032	0.053	0.066*	0.033	0.060
현저성				-0.109***	0.032	-0.102	-0.122***	0.032	-0.115	-0.130***	0.033	-0.122
문제적 결과				0.001	0.032	0.001	0.004	0.033	0.003	-0.005	0.033	-0.004

제한적 중재							-0.005	0.020	-0.006	-0.009	0.020	-0.011
교육적 중재							0.050**	0.018	0.073	0.050**	0.018	0.073
협력적 중재							0.037*	0.017	0.054	0.039*	0.018	0.058
X1*M1										-0.030	0.037	-0.025
X1*M2										-0.037	0.035	-0.037
X1*M3										0.076*	0.033	0.076
X2*M1										0.066	0.036	0.058
X2*M2										-0.020	0.034	-0.020
X2*M3										-0.087*	0.035	-0.086
X3*M1										-0.043	0.037	-0.031
X3*M2										0.044	0.036	0.038
X3*M3										-0.043	0.035	-0.036
R ²	.007			.014			.026			.034		
ΔR ²				.007**			.011***			.009*		
F (df)	4.862 (3, 1973)			4.779 (6, 1970)			5.740 (9, 1967)			3.869 (18, 1958)		

• 조절 실패: X1, 현저성: X2, 문제적 결과: X3, 제한적 중재: M1, 교육적 중재: M2, 협력적 중재: M3

• *: p<.05, **: p<.01, ***: p<.001

대체 활동 행동에 대한 조절효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a>에 따르면 협력적 중재는 조절 실패를 겪는 청소년의 대체 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 강화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그림 3-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스마트폰의 현저성이 매우 높은 조건에서는 협력적 중재가 이루어지더라도 대체 활동 행동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저성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긍정적 중재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대체 활동 행동에 대한 상호작용 양상

이러한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교육적 중재는 상호작용 효과 없이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과의존 위험 요인의 수준과 관계없이, 부모의 교육적 설명과 지도가 청소년의 대체 활동을 증진시키는 독립적인 촉진 요인이라는 것이다. 둘째, 협력적 중재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협력적 중재는 조절 실패를 겪는 청소년에게는 대체 활동을 돕는 요인으로 기능하지만, 스마트폰의 현저성이 이미 높은 청소년에게는 그 긍정적 효과가 약화되거나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IV.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하위 요인과 부모 중재 유형이 과의존 해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과의존 해결 행동은 자기 점검, 환경 통제, 대체 활동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각 행동 유형에 대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모의 중재 유형 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검증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조절 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로 구분하고, 부모의 중재 유형은 제한적, 교육적, 협력적 유형으로 구분한 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점검 행동에 대하여 문제적 결과 요인은 부모 중재 유형과 관계없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건강, 대인관계, 일상 기능에서 실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일수록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조절 실패와 현저성 요인은 부모 중재 유형에 따라 자기 점검 행동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 특히 조절 실패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협력적 중재는 자기 점검 행동을 강화하는 반면 교육적 중재는 해당 행동을 약화시키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현저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제한적 중재가 강화될수록 자기 점검 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둘째, 환경 통제 행동은 현저성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반면, 조절 실패 수준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호작용 분석 결과, 조절 실패와 협력적 중재, 현저성과 제한적 중재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환경 통제를 포기하려는 청소년에게 부모와의 협력적 중재가 이루어질 경우, 사용 시간이나 공간을 관리하려는 환경 통제 행동이 다시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스마트폰 사용의 현저성이 높은 청소년에게 제한적 중재가 가해질 경우, 환경 통제 행동은 오히려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대체 활동 행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고, 현저성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부모 중재 중 교육적, 협력적 중재는 대체 활동을 전반적으로 증진시켰으나, 상호작용 분석에서는 협력적 중재의 차별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조절 실패를 겪는 청소년에게는 협력적 중재가 오프라인 대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현저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동일한 협력적 중재가 투입되어도 대체 활동 행동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고 그 효과가 낮아지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종합하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해결 행동은 과의존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과 부모 중재 유형의 결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문제적 결과 요인은 부모 중재와 독립적으로 해결 행동을 촉진하는 반면, 조절 실패와 현저성 요인은 부모가 어떠한 중재 전략(협력 vs 제한 vs 교육)을 취하느냐에 따라 해결 행동의 방향과 강도가 달라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과의존 여부라는 단일한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하위 요인의 특성이 고려되는 맞춤형 부모 중재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하위 요인(조절 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과 부모의 중재 유형(제한적, 교육적, 협력적)이 청소년의 과의존 해결 노력 행동(자기 점검, 환경 통제, 대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기 점검 행동에 대해 살펴보면, 문제적 결과 요인은 부모 중재 유형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건강 악화나 대인관계 갈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청소년 스스로 체감하는 것이 외부의 개입보다 강하게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과의존 해결의 시작은 부모의 개입이 아니라 청소년 당사자의 불편함에 대한 자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과정이 자기조절 행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선행 연구의 논의와 일치한다(Lee, 2022; Oh & Heo, 2024).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과의존 해결의 시작은 외부의 강압적 개입보다 청소년 당사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부정적 결과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예방 교육이 스마트폰의 폐해를 주입하거나 사용 시간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사용 패턴과 그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관찰하게 하는 '자기 모니터링' 전략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문제적 결과를 스스로 인지하고 수용하게 돕는 것이 자기 점검 행동을 촉발하는 가장 강력한 내적 동기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기 조절 행동에 대해 과의존 요인 중 조절 실패와 현저성은 부모 중재 방식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는 조건부 효과를 보였다. 특히 협력적 중재는 조절 실패를 겪는 청소년의 자기 점검을 돕는 보호 요인으로 기능한 반면, 교육적 중재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조절 능력이 저하된 청소년에게 말로 하는 설명이나 지시(교육적 중재)는 실질적 도움이 되기보다 심리적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스마트폰에 대한 집착(현저성)이 강한 상태에서의 제한적 중재 역시 자기 점검 행동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압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스스로 문제를 점검하려는 의지를 꺾는 부작용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통제적 개입과 자율성 지지적 개입이 청소년의 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자기결정이론의 논리와 일정 부분 일치하였으나 모든 중재 유형에서 동일하게 설명되지는 않는다(Soenens & Vansteenkiste, 2010).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규칙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협력적 중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Barber, 1996).

셋째, 환경 통제 행동의 경우, 과의존 요인 중 조절 실패가 부정적 요인으로 작동하지만 부모의 협력적 중재가 이루어질 경우 이 부정적 영향이 상쇄되는 양상을 보였다.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일 수 있으나,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해 부모가 함께 규칙을 정하고 환경을 다시 조정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청소년 스스로가 다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현저성이 높은 청소년에게 부모가 높게 가하는 제한적 중재는 자기 점검과 마찬가지로 환경 통제 행동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스마트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에게 사용 시간이나 활동을 물리적,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경우 오히려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제한적 중재가 상황에 따라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지적한 기존 미디어 중재 연구의 논의와도 일치한다(Livingstone & Helsper, 2008; Collier et al., 2021).

넷째, 대체 활동 행동과 관련된 결과 중 하나는 과의존 요인 중 현저성이 높을수록 대체 활동이 상당 수준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는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모의 협력적 중재는 대체 활동을 늘리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동했다. 그런데 현저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현저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부모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협력적 자세와 노력을 가져가더라도 대체 활동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의존 수준을 보이는 경우 부모의 긍정적 개입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문적 상담이나 치료 등에 대한 대응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협력적 중재가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보편적 전략이라기보다, 청소년의 사용 맥락과 과의존 양상에 따라 그 기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선행 연구와도 부합한다(Padilla-Walker et al., 2012).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과의존 해결 행동은 그 유형(자기 점검, 환경 통제, 대체 활동)에 따라 다소 상이한 메커니즘을 보이지만, 부모 중재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유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협력적 중재'의 보호 효과이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규칙을 정하고 실천하는 협력적 태도는 조절 실패라는 내적 결핍이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점검, 환경 통제, 대체 활동 등의 해결 행동을 유의미하게 증진시키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였다. 둘째, '제한적 중재'가 조건부 역효과 양상이다. 스마트폰 현저성이 높은 고위험군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일방적 제한은 자기 점검과 환경 통제라는 '자기 조절' 관련 행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과의존 해결 행동이 단일한 차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의 태도가 모든 행동 유형 변화의 공통 분모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해결 행동이 과의존 요인과 부모 중재 유형의 단순한 주효과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둘의 결합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형성됨을 보여준다.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이에 대해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개선 동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실패하는 양상이 두드러지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단순 설명이나 교육보다는 보호자나 지도자가 함께 규칙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삶의 비중을 크게 느끼고 애착이 강하게 나타나는 청소년의 경우, 일률적인 사용 제한 방식이 오히려 반발심을 가져와 모든 해결 행동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회귀 모형에서 도출된 설명량은 대체로 작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설명력은 본 연구의 해석에 있어 유의할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모형의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주요 독립변인과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는 점은 변인 간의 관계적 메커니즘을 파악하는데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작은 설명력은 결과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개선 행동이라는 특정한 행동을 예측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청소년의 과의존 특성과 부모의 중재 유형이 청소년의 해결 행동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해결 행동과 부모 중재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횡단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변수 간의 인과적 선행성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과의존 수준과 해결 노력, 부모 중재는 상호 순환적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과 해석에 있어 횡단적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부모 중재와 과의존 해결 행동은 모두 청소년의 자기보고에 기반하여 측정되었다. 이로 인해 부모의 실제 중재 행동과 청소년이 인식하는 중재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부모의 실제 중재 행동과 자녀가 지각한 중재 간의 불일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상호작용적 성격이 강한 협력적 중재의 경우, 주관적 해석의 개입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양상과 해결 행동, 부모 중재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모의 협력적 중재가 청소년의 과의존 해결 행동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지, 혹은 특정 발달 시기에만 유효한지를 규명하는 인과적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 중재를 청소년의 인식뿐 아니라 부모 보고 자료와 병행하여 분석함으로써, 중재 유형에 대한 다면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부모의 의도와 자녀의 수용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중재 효과를 높이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과의존 해결 행동의 유형별 효과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예컨대 자기 점검, 환경 통제, 대체 활동이 각각 어떠한 조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본다면, 본 연구에서 확인된 메커니즘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이하나, 양승목(2018).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영향 변인의 관계에 대한 학령 및 성별 비교 분석”. 『한국언론학보』, 62(5), 175-214.
- 이현이, 김영식(2018). “부모 양육 태도가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2), 62-74.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Aiken, L. S., &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 Bae, E., & Nam, S.(2023). “How mothers’ problematic Smart-phone use affects adolescents’ problematic Smart-phone use: Mediating roles of time mothers spend with adolescents and adolescents’ self-esteem”. *Psychology Research and Behavior Management*, 16, 885-892.
- Barber, B. K.(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umeister, R. F., & Vohs, K. D.(2007). “Self-regulation, ego depletion, and motivatio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1), 115-128.
- Collier, K. M., Coyne, S. M., Rasmussen, E. E., et al.(2021). “Does parental mediation of media influence child outcomes? A meta-analysis on media time, aggression, substance use, and sexu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52(5), 798-812.
- Do, K.-Y., & Kim, C.-B.(2024). “Predicting Smartphone addiction trajectories in Korean adolescents: A longitudinal analysis of protective and risk factors based on a national survey from 2018 to 2020”. *Asia-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 36(6-7), 550-557.
- Jeong, A., Ryu, S., Kim, S., Park, H., Hwang, H. S., & Park, K.-Y.(2023). “Association between problematic Smart-phone use and physical activity among adolescents: A path analysis based on the 2020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44, 268-273.
- Kim, A., Lee, U., Cho, Y., Kim, S., & Shah, V.(2025). “Adolescent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South Korea: A Place-Stratified Evaluation of Conceptually Informed AI/ML Mode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2(10), 1515. .
- Kim, H. J., & Yang, S. (2016). “A study on the parental mediation of adolescents’ Smart-phone us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0(5), 319-347.
- Kim, N.-H., Lee, J.-M., Yang, S.-H., & Lee, J. M.(2022). “Association between Smart-phone overdependency and mental health in Korean adolescents during the COVID pandemic: Age- and gender-matched study”. *Frontiers in Public Health*, 10.
- Lee, J.(2022). “Effect of loneliness and depressive symptoms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South Korean adolescents: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tudy”.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22(1), 1-9.
- Lee, J.(2024). “Mediating effect of loneliness on anxiety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Korean adolescents: Based on the 16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24(1), 29-36.

- Lee, Y., Choi, H., & Son, Y.(2025). “Problematic Smartphone use and risk behaviors in adolesc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MC Pediatrics*, 25(1).
- Livingstone, S., & Helsper, E. J.(2008).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s internet us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2(4), 581-599.
- Oh, W.-O., & Heo, Y. J.(2024). “Exploring the link between Smartphone Overdependence, depression, and suicidal behaviors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lifestyle risk behaviors among South Korean adolescents: A cross-sectional study using national big data”.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38(3), 298-309.
- Padilla-Walker, L. M., Coyne, S. M., & Fraser, A. M.(2012). “Getting a high-speed family connection”. *Journal of Adolescence*, 35(2), 419-429.
- Shin, W., & Kang, H. (2016). “Adolescents’ privacy concerns and information disclosure online: The role of parents and the Interne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4, 114-123.
- Soenens, B., & Vansteenkiste, M.(2010). “A theoretical upgrade of the concep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Developmental Review*, 30(1), 74-99.
- Son, H.-M., Park, S., & Han, G.(2021). “Gender differences in parental impact on problematic Smartphone use among Korea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2), 443.
- Valkenburg, P. M., Krcmar, M., Peeters, A. L., & Marseille, N. M.(1999). “Developing a scale to assess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3(1), 52-66.
- Yoo, C. (2021). “Intercohort comparison of Smartphone dependency in adolescence with increased Smartphone possession and accessibility”. *Current Psychology*, 42, 10123-10135.

* 초 록 *

본 연구는 청소년이 자신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대처 노력(자기 점검, 환경 통제, 대체 활동)에 주목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하위 요인(조절 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과 부모 중재 유형(제한적, 교육적, 협력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그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 중 청소년 1,977명의 응답을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점검 행동에 대해 ‘문제적 결과’ 요인은 부모 중재와 무관하게 청소년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행동을 촉진하는 독립적인 동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의존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의 자각이 자기조절 행동의 출발점임을 시사하며, 예방 교육에서 ‘자기 모니터링’ 전략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둘째, ‘조절 실패’ 수준이 높은 청소년에게 부모의 협력적 중재는 자기 점검, 환경 통제, 대체 활동을 모두 강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스마트폰의 ‘현저성’이 높은 청소년에게 부모가 강압적인 제한적 중재를 가할 경우, 오히려 자기 점검과 환경 통제 행동이 위축되는 역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현저성이 매우 높은 조건에서는 협력적 중재조차 대체 활동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소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과의존의 하위 속성별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협력적 조력자로서의 부모 역할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해결 행동에 대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과의존 양상에 따른 맞춤형 개입 전략이 필요함을 밝혀냈다.

주제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과의존 해결 행동, 부모 중재, 자기 모니터링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how sub-factors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parental mediation types are associated with adolescents' behavioral efforts to cope with smartphone overdependence,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ir interaction effects. Using data from the 2023 Survey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Korea, responses from 1,977 adolescents aged 10 to 19 were analyzed. Coping behavior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self-monitoring, environmental control, and alternative activities. Smartphone overdependence was conceptualized as comprising self-control failure, salience, and problematic consequences, while parental mediation was categorized into restrictive, instructive, and collaborative typ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both main effects and interaction effects, controlling for gender, age, and household incom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ub-factors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parental mediation types were differentially associated with adolescents' coping behaviors. Problematic consequenc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coping behaviors regardless of parental mediation. Collaborative mediation generally facilitated coping behaviors, particularly among adolescents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self-regulation, whereas its positive effects tended to diminish when smartphone salience was high. In contrast, restrictive mediat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cop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s with high levels of salience. Instructive

mediation showed mixed effects depending on the type of coping behavio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dolescents' coping efforts are shaped not only by the level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but also by the conditional role of parental mediation strategies.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ailored parental mediation approaches that consider specific overdependence profiles in supporting adolescents' efforts to cope with smartphone overdependence.

Keywords: Adolescents, Smartphone Overdependence, Overdependence Resolution Behavior, Parental Mediation, Self-monitoring

어머니의 취업여부, 정서표현성, 자율적지지 및 놀이참여시간에 따른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

김진경**

Creativ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ccording to mother's employment status,
emotional expressiveness, autonomy support and play participation time

KIN JIN-KYUNG

◁ 목 차 ▷

I. 머리말(서론)	V. 맺음말
II. 연구 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 결과	논문초록
IV. 논의 및 결론	

I. 머리말

과학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미래사회는 새로운 지식과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사람,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 자신과 타인의 고유특성을 알고 존중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듯 ‘2019 개정 누리과정’과 ‘2024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영유아의 창의성과 자율성 신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강조하였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교육부, 2024). 창의성은 영유아기동안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달하는 과업으로, 특히 유아기는 내적 동기가 크고 위험을 감수하며 호기심을 보이는 창의적 행동특성이 두드러진 시기이다(성은현, 조경자, 이문정, 2008). 유아기는 창의성 발달의 최적기로, 우뇌와 좌뇌를 균형있게 발달시켜야 창의적 표현성이 증진된다.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초창기에는 창의성을 문제해결을 위한 인지능력으로 가정하고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창의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창의성을 인지능력에 국한하여 단편적으로 측정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인지능력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 성격, 정서와 같은 정의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현되는 것으로 접근하는 통합적 관점이 주목받았다. 즉,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인지 능력의 일부로 한정하였던 초기 창의성 개념을 전인적 영역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인성이라는 용어가 파생되었다. 창

* 이 논문은 2025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의성의 정의적 요소는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모험심, 참을성, 자신감 등이 포함된다(Shaffer, 2002). 창의성의 구성 요소 중에서 창의적 인성은 유아의 놀이나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내적인 성향, 가치관, 태도, 동기, 흥미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창의적 인성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창의적 행동특성’이라고 정의되는데, 유아가 놀이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의미한다(정다운, 김정희, 2015). 창의적 행동특성은 유아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바탕으로 창의성 발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며, 자신감과 도전적 성향을 고양시키는 개인 능력의 요소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아기는 창의적 행동특성이 발달되는 중요한 시기로,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 발달 양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게 되는데,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환경 중에서 가정은 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환경이며, 유아의 창의성 발달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정민자, 2005; Csikszentmihalyi, 1999). 이와 같이 유아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서 많이 연구되어진 것은 부모 변인이다. 유아기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고, 어머니는 유아들의 창의성 발달의 역할모델과 지원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어머니 변인은 유아의 창의성 발달을 연구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Torrance, 1976). 특히 생후 초기 어머니와의 질 높은 상호작용은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을 함양하는데 밑거름이 된다(김지연, 김금주, 2022). Moltafet 등(2018)은 337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자율성, 창의성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부모의 따뜻하고 안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진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창의적 문제해결 과제를 수행할 때 어머니가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등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는 독특성, 개방성, 민감성, 놀이성, 과제집중과 같은 창의적 행동특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김수연, 이영, 2005; 임지연, 김세곤, 2020). Kemple과 Nissenberg(2000)는 자녀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은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상호작용 질과 같은 어머니 변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유아가 최초로 접하는 환경인 어머니 변인은 유아가 창의적 행동특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겠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얼굴표정, 목소리 등으로 다양한 정서를 표현한다. 정서를 밖으로 표현하는 특성인 정서표현성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언어적,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Riggio, & Friedman, 1982). Halberstadt 등(1995)은 정서표현성을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성으로 구분하였는데,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애정이나 관심, 즐거움, 자랑스러움 등의 정서를 포함하며,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타인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실수에 분노하는 등의 정서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인 독특성, 다양한 관심, 상상-유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경, 2013). 다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강한 긍정-강한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약한 긍정-약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에 비해 자녀의 창의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서표현이 중요함을 보여준다(이승미, 하지영, 서소정, 2016).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유아에게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정서를 해석하도록 요구받는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할 때 유아는 정서적 위기와 불안을 경험하고 그러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감정을 보다 잘 인식하고 평가하며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안라리, 2005). 즉,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자녀의 창의성

발달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정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가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환경에서 자녀는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수용되는 방법을 모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녀는 다양한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며, 새로운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그 자체로 부정적 요인이라기보다, 관계 맥락 속에서 해석되고 조절될 때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을 자극하는 발달적 자극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즉,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함께,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창의적 행동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Wright와 Wright(1986)는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으로 유아를 존중하기, 독립심을 자극하기, 풍부한 학습 환경 등을 제시하였다. 유아기 자녀에 대한 격려와 정서적 지지, 자율성 허용과 존중, 학습양식에 따른 적절한 지도 등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창의적 사고를 높여주며(김수연, 2008), 유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어머니의 독재적인 태도나 언어 사용은 유아의 창의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박영희, 심지순, 2004). 부모가 자녀의 선택과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자율성지지’라 한다. 자율성지지는 자녀의 목표, 선택, 결정 등을 지원하는 양육행동으로 정의되며(Deci, & Ryan, 2013; Matte-Gagné & Bernier, 2011), 자율성을 지지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여 자녀가 해결하도록 선택권을 주고 스스로 해보려는 의지를 격려한다. 자율성지지를 경험한 유아는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해결 상황에서 환경과 물체에 대한 능숙함을 느끼며, 자신의 사고, 정서, 행동을 조절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더욱 잘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Carlson, 2003). 따라서 유아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양육특성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함께 자율성지지가 자녀의 창의적 행동특성 발달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놀이는 유아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세계를 잇는 통로이며, 유아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놀이로 시간을 보내며, 놀이 가운데 발달과업을 이뤄진다. 놀이는 유아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 유아의 사고와 창의성은 풍부해 질 수 있다(이채호, 이찬숙, 2009). 어머니의 놀이참여는 실내·외 놀이, 기능놀이, 구성놀이, 신체놀이, 게임놀이, 상징놀이 등의 놀이에 참여하여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놀이참여시간’은 다양한 놀이 형태에 유아의 놀이상대로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의미한다(김성숙, 서현아, 2021). 자녀와 ‘함께’ 하면서 정서적 경험을 공유할 때 놀이가 더 풍부해지고 의미가 생긴다(Trevarthen,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평일 30분~1시간 정도 놀이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홍현명, 2021) 어머니와의 놀이가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발달상 집중 시간이 짧은 유아들에게 어머니가 1시간 이상 유아와 집중적으로 놀이를 함께하면, 유아의 놀이 활동이 촉진되고 이는 창의적 행동특성 발달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김금옥, 정의정, 2019)에 따르면 자녀와의 놀이 시간이 많은 어머니일수록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반대로 놀이 시간이 적은 경우 거부적 양육태도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Coleman(1988)은 부모가 자녀의 가까이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수록 자녀가 더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미취업모는 취업모보다 자녀와의 놀이참여도가 더 높고, 하루 놀이시간이 많을수록 참여도 역시

증가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자녀와 놀이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주당 평균 8.8분 더 많았으며, 신체활동 제공에 대한 인식도 더 긍정적이었다(김길숙, 김상림, 2020). 반면,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만 3~5세 유아의 놀이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임진경, 노은호, 2014)와 어머니의 직장 경력의 5년 이상일 때 유아의 사회성과 활동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었다(양선미, 조인숙, 2008).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2%에 달하고 여성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6.4 시간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4).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놀이시간을 보내는 것이 상당히 의미있는 변수라 가정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놀이시간이 자녀의 창의적 행동특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어머니 요인 중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유아의 창의성과 관련이 없으며(박영희, 심지순, 2004),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무관하며 온정적 양육 태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최혜란, 유지아, 김선미, 2017).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 그 자체보다는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 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 반면,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취업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는데 미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신경질, 화풀이, 체벌 등의 양육행동 빈도가 높았다(정태연, 노현정, 2005).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 요구에 대한 반응성이 다르며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더 즉각적으로 응대한다는 결과도 있다(임현주, 2013).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창의적 행동특성 중 놀이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만 2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 놀이참여시간의 양은 놀이성과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취업모의 놀이참여시간이 평일과 주말에 모두 길수록 놀이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윤상인, 2011).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창의적 행동특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양육태도는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정서표현성, 자율성지지, 놀이참여시간이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로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를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정서표현성에 따라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자율성지지에 따라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놀이참여시간에 따라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취업여부, 정서표현성, 자율성지지 및 놀이참여시간은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서울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193곳, 유치원 204곳)에 재원중인 만 4, 5세 유아의 어머니 3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기관장과 교사의 동의를 얻어 연구 동의서와 설문지를 각 가정으로 보냈으며, 2주간 320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검사지 308부 중 누락되거나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검사지 18부를 표본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290부를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가. 정서표현성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해 Halberstadt 등(1995)이 제작한 자기표현 질문지(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를 한영민(2005)이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표현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형태의 평정 도구로, 총 40문항이다. 긍정적 정서표현성에 해당하는 애정, 감사, 기쁨 등을 측정하는 23문항(예. ‘가족구성원들이 해 준 일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한다’)과 부정적 정서표현성에 속하는 슬픔, 실망, 분노, 비난 등을 측정하는 17문항(예. ‘누군가 싫을 때는 싫다고 표현한다’)으로 구성된다.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성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에게 정서표현을 자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 점수의 범위는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23점~115점,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17점~85점이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88로 나타났고, 하위문항별 신뢰도는 긍정적 정서표현성 .92, 부정적 정서표현성 .85로 나타났다.

나. 자율성지지

어머니의 자율성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Grolnick, Ryan과 Deci(1991)가 개발한 부모에 대한 지각척도 중 자율성지지 문항과 Williams와 Deci(1996)가 개발한 자율성 지지 측정을 위한 학습풍토 질문지, Soenens외(2007)의 자율성 지지 척도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노보혜, 박성연, 지연경(201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어머니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아이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해준다.’,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준다.’). 자율성지지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87로 나타났다.

다. 놀이참여시간

놀이참여시간은 어머니가 다양한 형태의 놀이에 유아와 함께 참여하면서 놀이가 더 활발히 촉진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자녀와 구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차가정, 광승주(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어머니가 하루 평균 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을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으로 문항을 구성하고 어머니가 자녀와의 놀이참여시간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라. 창의적 행동특성

창의적 행동특성 검사는 Rimm(1983)의 PRIDE(Preschool and Kindergarten Interest Descriptor)를 참고하여 이영, 김수연, 신혜원(2002)이 제작한 ‘유아용 창의적 행동특성 검사(The rating scale for creative characteristics of preschoolers: RSCCP)’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유아가 놀이나 활동 속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발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 성향, 흥미 등을 검사하는 도구로, 총 47문항이다. 하위요인으로는 독특성과 호기심(15문항, 예. ‘특이한 질문을 많이 한다.’), 개방성과 유머(12문항, 예. ‘친구와 농담이나 말장난, 재미있는 말을 주고받는다.’), 민감성과 다양한 흥미(9문항, 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상상력과 놀이성(5문항, 예. ‘상상놀이나 ~하는 척 하는 역할 놀이, 흉내 내기 놀이를 많이 한다.’), 독립성과 몰두(5문항, 예. ‘교사나 친구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독립적이다’)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창의적 행동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93이다. 하위문항별 신뢰도는 독특성-호기심 .94, 개방성-유머 .90, 민감성-다양한 흥미 .88, 상상력-놀이성 .85, 독립성-몰두 .84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놀이참여시간, 정서표현성, 자율성지지에 따른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을 각각 분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여부, 놀이참여시간 정서표현성, 자율성지지가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정서표현성에 따른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

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긍정적 정서표현성에 따른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긍정적 정서표현성에 따라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표 2>참고).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에 대해 어머니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48.921$, $df=1,301$, $p<.001$).

<표 1> 어머니 취업여부와 긍정적 정서표현성에 따른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평균, 표준편차)

(N = 320)

구분	긍정적 정서표현성	취업		미취업	
		M	SD	M	SD
유아 창의적 행동특성	상	3.15	.13	3.23	.37
	중	3.50	.35	3.50	.41
	하	3.89	.36	3.79	.49
	전체	3.45	.40	3.56	.46

어머니의 취업여부, 정서표현성, 자율적지지 및 놀이참여시간에 따른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

<표 2> 어머니 취업여부와 긍정적 정서표현성에 따른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

(N = 320)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아 창의적 행동특성	어머니 취업(A)	.001	1	.001	.010
	어머니 긍정적 정서표현성(B)	12.760	2	6.380	48.921***
	A×B	.248	2	.124	.951
	오차	39.256	301	.130	

***p<.001

나.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부정적 정서표현성에 따른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부정적 정서표현성에 따라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표 4>참고).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에 대해서 어머니 취업여부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4.101$, $df=1,301$, $p<.05$), 어머니 취업여부와 부정적 정서표현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3.176$, $df=1,301$, $p<.05$).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가장 낮은 하 집단에서는 미취업모 자녀보다 취업모 자녀의 창의적 행동특성 점수가 높았다. 반면, 부정적 정서표현성 중과 상 집단의 경우, 취업모 자녀보다 미취업모 자녀의 창의적 행동특성 점수가 높았다(<그림 1>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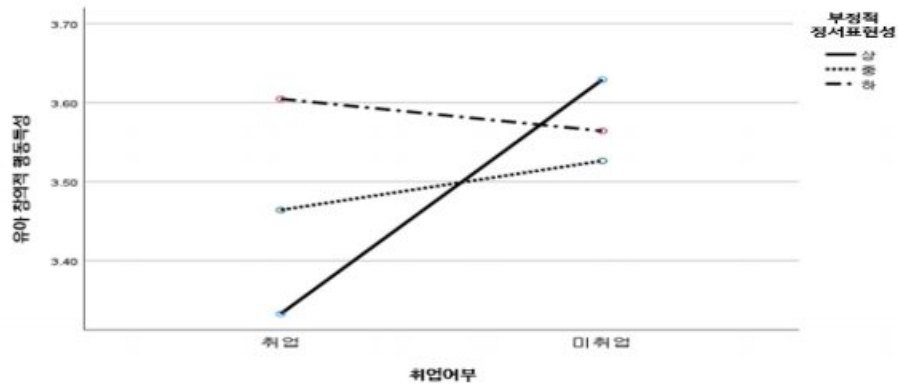
<표 3> 어머니 취업여부와 부정적 정서표현성에 따른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평균, 표준편차)

구분	부정적 정서표현성	취업		미취업	
		M	SD	M	SD
유아 창의적 행동특성	상	3.33	.36	3.63	.40
	중	3.46	.40	3.53	.43
	하	3.60	.42	3.56	.54
	전체	3.45	.40	3.56	.46

<표 4> 어머니 취업여부와 부정적 정서표현성에 따른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아 창의적 행동특성	어머니 취업(A)	.745	1	.745	4.101*
	어머니 부정적 정서표현성(B)	.482	2	.241	1.327
	A×B	1.155	2	.577	3.176*
	오차	54.718	301	.182	

*p<.05



<그림 1> 유아 창의적 행동특성에 대한 어머니 취업여부와 부정적 정서표현성의 상호작용 효과

2.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자율성지지에 따른 유아의 창의성 행동특성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자율성지지에 따라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표 6> 참고).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에 대해서 어머니 자율성지지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46.064$, $df=1,303$, $p<.001$), 어머니 취업여부와 자율성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5.333$, $df=1,303$, $p<.05$). 취업모의 경우, 자율성지지 상과 하 집단의 창의적 행동특성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2>참고).

<표 5> 어머니 취업여부와 자율성지지에 따른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평균,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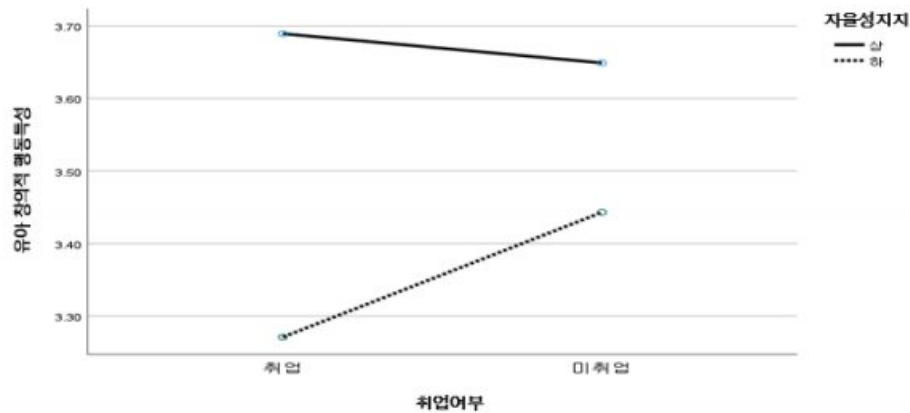
구분	자율성지지	취업		미취업	
		<i>M</i>	<i>SD</i>	<i>M</i>	<i>SD</i>
유아 창의적 행동특성	상	3.69	.40	3.65	.45
	하	3.27	.29	3.44	.45
	전체	3.45	.40	3.56	.46

<표 6> 어머니 취업여부와 자율성지지에 따른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i>F</i>
유아 창의적 행동특성	어머니 취업(A)	.323	1	.323	2.056
	자율성지지(B)	7.247	1	7.247	46.064***
	A X B	.839	1	.839	5.333*
	오차	47.668	303	.157	

* $p<.05$, *** $p<.001$

어머니의 취업여부, 정서표현성, 자율적지지 및 놀이참여시간에 따른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



<그림 2> 유아 창의적 행동특성에 대한 어머니 취업여부와 자율성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3. 어머니 취업여부와 놀이참여시간에 따른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어머니-유아 놀이참여시간에 따라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표 8>참고).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에 대해 어머니 취업여부의 주효과가 유의했으며($F=4.537$, $df=1,301$, $p<.05$),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어머니-유아 놀이참여시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10.849$, $df=1,301$, $p<.001$).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와 1~2시간 미만인 경우, 취업모 자녀의 창의적 행동특성이 미취업모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 반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취업모 자녀의 창의적 행동특성이 미취업모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그림 3>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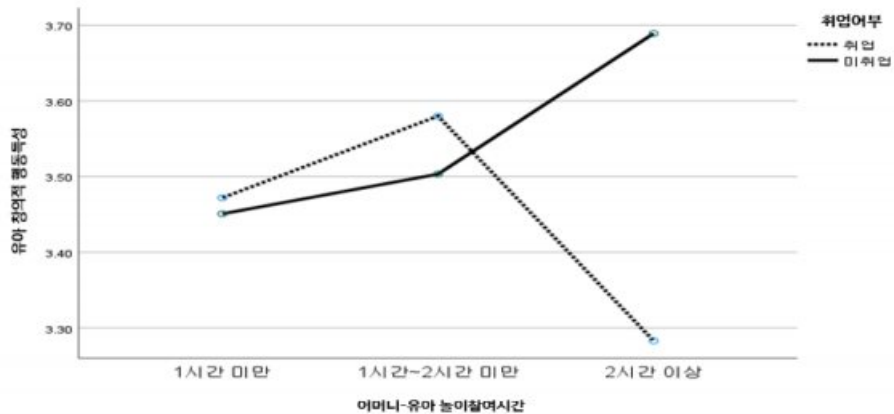
<표 7> 어머니 취업여부와 놀이참여시간에 따른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평균, 표준편차)

구분	놀이참여시간	취업		미취업	
		<i>M</i>	<i>SD</i>	<i>M</i>	<i>SD</i>
유아 창의적 행동특성	1시간 미만	3.47	.35	3.45	.57
	1~2시간 미만	3.58	.43	3.50	.37
	2시간 이상	3.28	.34	3.69	.43
	전체	3.45	.40	3.56	.46

<표 8> 어머니 취업여부와 어머니-유아 놀이참여시간에 따른 창의적 행동특성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아 창의적 행동특성	어머니 취업여부(A)	.784	1	.784	4.537*
	어머니-유아 놀이참여시간(B)	.333	2	.166	.962
	A X B	3.751	2	1.876	10.849***
	오차	52.038	301	.173	
	총합	56.906	304		

* $p<.05$, *** $p<.001$



<그림 3> 유아 창의적 행동특성에 대한 어머니 취업여부와 놀이참여시간의 상호작용 효과

4. 어머니 취업여부와 놀이참여시간, 정서표현성, 자율성지지가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취업여부, 정서표현성, 자율성지지, 놀이참여시간이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참고). 모든 변인의 공차한계는 1이하, VIF는 1.002~2.232, Durbin-Watson은 2.001로 분석함에 있어 문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 놀이참여시간을 투입한 모형1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3.604$, $p<.05$), 그 영향력은 2%였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129$, $p<.05$),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1에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투입한 모형2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47.734$, $p<.001$), 그 영향력은 38.7%로 모형1에 비해 37%정도 증가하였다. 어머니 취업여부의 영향력은 사라졌으며,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beta=.143$, $p<.01$), 긍정적 정서표현성($\beta=.672$, $p<.001$), 부정적 정서표현성($\beta=.117$, $p<.05$)이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자율성지지를 투입한 모형3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41.748$, $p<.001$) 그 영향력은 41%로 모형2에 비해 2.2%정도 증가하였다.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beta=.117$, $p<.05$), 긍정적 정서표현성($\beta=.526$, $p<.001$), 부정적 정서표현성($\beta=.167$, $p<.01$), 자율성지지($\beta=.222$, $p<.01$)는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이 길수록,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자율성지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

변수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 전체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어머니 취업여부	.129	2.260*	-.061	-1.277	-.063	-1.352
놀이참여시간	.012	.207	.143	3.102**	.117	2.536*
정서표현성						
긍정적 정서표현성			.672	13.483***	.526	8.032***
부정적 정서표현성			.117	2.487*	.167	3.446**
자율성지지					.222	3.361**
R ² (adj R ²)	.021(.010)		.387(.379)		.410(.400)	
ΔR^2			.370		.022	
F	3.604*		47.734***		41.748***	

*p<.05, **p<.01, ***p<.001

주. 어머니 취업여부 : 미취업모=0, 취업모=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정서표현성, 자율성지지, 놀이참여시간이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긍정적 정서표현성에 따라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어머니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주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을 발달시킨다고 보고한 연구들(김미경, 2013; 김수경, 2017; 나종혜, 손승희, 김수정, 2021; Kilpatrick, Bissonette, Rusbult, 2002)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자신의 정서를 가족 구성원에게 표현하는 것으로, 특히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가족 구성원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 형성에 기여하며, 이는 여러 과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초 토양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부정적 정서표현성에 따라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어머니 취업여부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 취업여부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취업모 자녀가 창의적 행동특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이아름,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창의적 활동을 격려하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어머니 취업여부와 부정적 정서표현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는데, 부정적 정서표현성의 하 집단에서는 미취업모 자녀보다 취업모 자녀의 창의적 행동특성 점수가 높았다. 반면, 부정적 정서표현성의 상, 중 집단에서는 취업모 자녀보다 미취업모 자녀의 창의적 행동특성 점수가 높았다.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슬픔, 당황스러움, 실망감 등과 같은 약한-부정적인 정서표현성과 분노, 비난, 멸시와 같은 강한-부정적 정서표현성으로 구분된다. 약한-부정적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유아 스스로 알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는 자기평가, 스스로 사전계획을 하고 문제해결전략을 결정하는 자기결정,

통제에 순응하고 충동이나 행동을 억제해서 행동을 지연하는 행동억제가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양순, 정영숙, 이기영, 2006). 이 연구에서도 부정적 정서표현에 강도에 따라 약한-부정적 정서표현성(예. ‘어리석은 실수를 했을 때 당황해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슬퍼한다.’)과 강한-부정적 정서표현성(예. ‘다른 사람이 약속시간에 늦는 것에 대해 비난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미취업모인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표현을 가장 많이 하는 ‘상’ 집단 자녀의 창의적 행동특성이 가장 높았는데,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 감정표현 빈도도 높고 그 과정에서 정서적 피드백과 공감 학습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표현일지라도 정서 이해와 창의성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 정서표현은 유아 발달에 부정적인 요인을 간주되어 왔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적 정서표현이 맥락에 따라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영화(201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자기인식능력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어머니가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할 때 유아는 정서적 위기와 불안을 경험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유아 자신의 감정을 보다 잘 인식하고 평가하며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특히, 미취업모는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부모의 정서표현을 자녀가 관찰하고 이를 모방하는 과정, 자녀가 경험한 정서를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과정을 통해 부정적 정서 표현을 가치있게 여기며 자녀와 시간을 공유하면서 친밀감을 나누고 적절한 부정적 정서의 표현과 조절 방법을 배울 수 있다(김선희, 2022). 이로 인해 유아는 부모가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만의 감정 처리 방식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문항인 ‘다른 사람의 행동에 불만을 표현한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실망감을 표현한다.’ 등과 같이 어머니가 느낀 부정적인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유아의 호기심이나 새로운 관점 형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자녀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따라 유아 창의적 인성 발달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반면, 취업모인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표현성을 가장 적게 하는 ‘하’집단 자녀의 창의적 행동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상, 중 집단에서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이 낮게 나왔다. 이는 취업모가 피로와 긴장 속에서 부정적 정서반응이 즉각적으로 충동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모와 자녀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감정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워 자녀는 어머니의 강한 부정적인 정서를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이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은 취업모가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한다면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이유 설명이 부족하거나 지나친 통제로 받아들이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 행동을 발휘할 기회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취업모는 퇴근 후 짧은 시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일을 병행하면서 심리적 부담감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강한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강한-부정적 정서를 내면화한 유아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새로운 시도를 주저할 수 있으며, 이는 창의적 행동 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즉, 함께 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부정적 정서표현의 양은 유아의 창의성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어머니 취업여부와 자율성지지에 따라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 자율성지지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율성지지가 유아의 창의적 행동 특성에 주효과를 보인 결과는 어머니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창의적 호기심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류정애, 김연화, 한세영, 2009)와 맥을 같이 한다. 어머니가 자율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격려하는 양육 태도를 보인다면, 자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고 비판적 사고와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자율성 지지란 자녀의 모든 판단과 행동을 허용하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규칙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사회적 상황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자녀에게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는 전제하에 주어지는 자율성을 의미하므로, 자녀의 창의적 행동특성 발달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취업모의 경우 자율성지지 ‘상’ 집단과 ‘하’ 집단 간 자녀의 창의적 행동특성 차이가 미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지지를 적게 하는 ‘하’ 집단에서 취업모 자녀의 창의적 행동특성이 미취업모 자녀에 비해 눈의 띄게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때, 그 영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 자율성지지 변수는 미취업모보다 취업모 자녀의 창의적 행동특성 함양에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성지지를 하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놀이와 일상 속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며, 부모의 상호작용의 질과 방식이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취업모의 양육태도가 미취업모보다 더 자율적이며 주도성, 사교성, 민감성 모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노인순, 문혁준(2012)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셋째,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놀이참여시간에 따른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 취업여부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와 1~2시간 미만인 경우 취업모 자녀의 창의적 행동특성이 미취업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취업모 자녀의 창의적 행동특성이 미취업모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미취업모는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어 2시간 이상의 장시간 놀이를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 자녀에게 더욱 풍부한 놀이 경험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취업모의 경우, 2시간 미만의 놀이참여시간을 가질 경우에 비해, 2시간 이상 놀이시간을 가질 경우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놀이 시간이 길어지면 정서적 피로감이 높아져 지시적이고 훈육적으로 놀이가 전환될 수 있다. 즉, 취업모는 신체적·정서적 피로로 인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놀이시간 동안 자녀와의 상호작용 민감성이 떨어져 자녀의 창의적 행동특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직장에서의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데 2시간 이상의 놀이참여는 어머니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가중시켜 자녀와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오히려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퇴근 후에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익숙한 놀이를 반복하면 놀이의 즐거움이 감소되고 유아의 창의적 행동도 제한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이는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2000)에 근거할 때 자율성과 내적 동기를 촉진하는 놀이가 확보되지 않으면 놀이의 양이 증가하더라도 창의적 행동이 억제될 수 있다는 맥락과 비슷하다. 따라서 자녀의 창의적 행동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자녀의 놀이를 지켜봐주고 결정을 기다려주는 자율성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반면 미취업모는 비교적 정서적 여유가 있어 2시간 이상의 장시간 놀이를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 자녀에게 더욱 풍부한 놀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미취업모와 자녀는 장시간 함께 하며 일상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는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려는 행동을 보이며 이는 창의적 행동특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미취업모는 자녀의 놀이를 관찰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정서적 여유를 통해 자녀에게 놀이 주제를 선택하고 결

정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기에 창의적 행동특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유아의 창의성이 미취업 어머니일 경우에 높다고 보고한 연구(박유은, 이경화, 2013), 어머니와의 놀이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발달, 적응, 행복 수준은 높아진다는 연구(박영애, 김리진, 2012)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유아의 창의성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조안나(2014)의 연구와 사무직이나 전문직, 공무원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유아가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창의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전윤숙, 2007)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넷째, 어머니의 취업여부, 놀이참여시간, 정서표현성, 자율성지지가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형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어머니의 취업여부의 영향력은 모형2와 모형3에서 사라졌으나,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형2에서 3으로 정서표현성을 투입했을 때 설명력이 약 37%정도 증가하였는데, 어머니의 취업여부 자체보다는 놀이참여시간과 함께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자녀의 창의적 행동특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도 표현하는 정도가 유아의 자유로운 창의성 표현에 긍정적 기여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유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태도나 언어의 사용은 유아의 창의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보고한 연구(박영희, 심지순, 2004)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자율성지지를 투입한 모형 4에서도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성, 자율성지지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유아기 자녀에 대한 격려와 정서적지지 및 온정 표현, 자율성 허용과 존중, 자녀의 학습양식에 따른 적절한 지도 등의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창의적 사고를 높여준다고 보고한 김수연(2008)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따뜻함을 표현하는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자녀들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연구와도 일치한다(Mehrinejad, Rajabimoghadam, & Tarsafi, 2015). 즉, 어머니의 취업여부자체보다,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이나 정서표현 정도, 자녀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도 등 민주적이고 온정적이며 공감적인 양육태도와 놀이참여가 자녀의 창의적 행동 발현에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 발달이 어머니의 취업여부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의해 설명되기보다, 정서표현성과 자율성지지, 놀이상황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맥락에 의해 정교하게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양육환경에서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는 상호작용 전략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연구와 실천이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함께, 정서표현성, 자율성지지 및 놀이참여시간과 같은 양육행동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다양한 양육 요인이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의미를 갖는다. 둘째, 취업모과 비취업모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취업여부와 함께 자녀의 창의적 행동특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부정적 정서표현성에도 강한 정서표현과 약한 정서표현이 있음을 반영하여 어머니의 정서표현에 대해 더욱 풍성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참여한 놀이참여시간을 조사하고 놀이참여 시, 적절한 정서표현성과 자율성지지가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이 창의적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놀이환경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자율성지지, 놀이참여시간,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양적연구뿐 아니라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장면 관찰, 어머니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등의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의 주양육자인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여 검증하였는데, 어머니뿐 아니라 다른 양육인도 함께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증가하고 조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아버지, 조부모, 유아교사의 정서표현성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경옥 (2015).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영화 (2013).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정서지능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 (2024.12.09.).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확정 발표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101898>에서 2025년 3월 12일 인출.
-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세종: 교육부.
- 김금옥, 정희정 (201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8(4), 99-118. doi: 10.17643/KJCE.2019.28.4.06
- 김길숙, 김상림. (2020).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유아의 신체활동과 어머니의 신체활동 신념에 관한 연구. 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 8(1), 59-69.
- 김미경 (2013).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22).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에 따른 유아 정서조절의 차이. 육아정책연구, 16(2), 3-27. doi: 10.5718/kecp.2022.16.2.3
- 김성숙, 서현아 (2021). 유아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참여 일치수준과 자녀 놀이몰입 간의 관계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5(6), 413-433. doi: 10.32349/ECERR.2021.12.25.6.413
- 김수연 (2008). 4-5세 유아의 창의적 사고와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7(2), 235-245.
- 김수연, 이영 (2005).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과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2), 69-79.
- 김준, 임귀자 (2023). 전통놀이를 통한 창의인성활동이 유아 놀이성과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5), 169-183. doi: 10.22251/jlcci.2023.23.5.169
- 김지연, 김금주 (2022). 유아의 자아효능감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42(6), 231-256. doi: 10.18023/kjece.2022.42.6.010
- 나중혜, 손승희, 김수정 (2021).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복감, 창의성 간의 구조모형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30(2), 227-239. doi: 10.5934/kjhe.2021.30.2.227
- 남윤주 (2020). 어머니의 인성적 언어통제가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자기조절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12(1), 65-80. doi: 10.36431/JPE.12.1.4
- 노보혜, 박성연, 지연경 (2011).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학습관여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결정동기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2(4), 83-97.
- 노인순, 문혁준 (201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유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5), 25-45.
- 류정애, 김연화, 한세영 (2009). 어머니의 양육행동, 완벽주의, 창의적 인성과 유아의 창의성. 생활과학연구논총, 13(1), 1-21.
- 박영애, 김리진 (2012).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의 놀이 현황 및 지원 기대 분석. 한국놀이치료학

- 회지(놀이치료연구), 15(2), 283-300.
- 박영희, 심지순 (2004). 어머니의 언어유형에 따른 유아의 창의성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 1(2), 54-73.
- 박유은, 이경화 (201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창의성간의 관계. Global Creative Leader, 3(1), 3-20.
- 박정현 (2018).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정서지능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 유아의 기질, 또래유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39-162.
- 성은현, 조경자, 이문정 (200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창의적 가정환경 및 유아의 창의적 성격간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3(1), 27-39.
- 심미영 (2018). 어머니의 놀이신념, 놀이참여, 역할수행과 유아의 놀이성, 사회성과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라리(2005).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 발달, 사회적 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선미, 조인숙 (2008). 어머니의 취업형태에 따른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인성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3(1), 53-70.
- 윤상인 (2011). 맞벌이 부모가 지각한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도와 만 2세 영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정, 안우철 (2023). 어머니의 양육역량과 행복감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4(3), 1397-1412. doi: 10.22143/HSS21.14.3.97
- 이승미, 하지영, 서소정 (2016). 유아의 기질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2), 277-297.
- 이아름 (2014). 어머니의 자아개념과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양순, 정영숙, 이기영 (2006).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 유능성.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1), 41-63.
- 이영, 김수연, 신혜원 (2002). “유아용 창의적 행동특성 검사”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6), 85-97.
- 이채호, 이찬숙. (2009). 유아 리더십과 사회적 능력, 기질 및 어머니 양육태도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4), 289-303.
- 임지연, 김세곤 (2020). 어머니의 코칭역량이 유아기 자녀의 창의적 인성과 어머니-자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사설교육기관 공동육아센터 어머니 중심으로. 교육연구, 4(2), 25-49.
- 임진경, 노은호 (2014). 교육조력자로서의 어머니 특성변인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4(3), 1-21.
- 임현주 (2013).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양육방식의 차이 연구. 육아정책연구, 7(2), 190-214.
- 전윤숙 (2007). 어머니의 창의성과 유아의 창의성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353-376.
- 정다운, 김정희 (2015).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유아의 정서지능이 교사가 인식한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5-20.

- 정민자 (2005). 유아의 창의성과 어머니의 양육신념, 창의적 특성변인간의 구조모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혜 (2018). 아버지·어머니의 자녀 놀이참여 시간 및 유형과 유아의 놀이성,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태연, 노현정 (2005).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2), 211-231.
- 조안나 (2014). 유아의 환경변인 및 정서지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창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력교육연구, 14(1), 49-70.
- 조연수 (2024).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청소년의 창의적 성격을 통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구조제공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5(1), 15-28.
- 차가정, 광승주 (2018). 어머니의 놀이신념 및 참여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간의 관계 분석-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미래교육연구, 8(2), 77-109.
- 최병연, 김호정 (2003). 가정환경이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창의력교육연구, 6(1), 43-72.
- 최혜란, 유지아, 김선미 (2017).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태도, 모-자녀상호작용,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3), 15-30.
- 통계청 (2024.06.18.).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1&act=view&list_no=431387에서 2024년 08월 28일 인출함.
- 한영민 (2005). 부모의 정서표현 및 유아에 대한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정효, 황해익 (2007). 자연놀이의 경험이 유아의 창의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영유아보육연구, 13, 1-15.
- 홍현명 (202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놀이참여 실태. 국내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arlson, S. M. (2003). Executive function in context: Development, measurement, theory, and experienc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8(3), 138-151. doi:10.1111/j.1540-5834.2003.06803012.x
- Csikszentmihalyi, M. (1999). Implications of a systems perspective for the study of creativity. In R. J. Sternberg (Ed.), *Handbook of creativity* (313-32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Deci, E. L., & Ryan, R. M. (2013). The importance of autonomy for development and well-being. *Self-regulation and Autonomy: Social and Developmental Dimensions of Human Conduct*, 96, 19-46.
- Grolnick, W. S., Ryan, R. M., & Deci, E. L. (1991). Inner resources for school achievement: Motivational mediator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4), 508-517.
-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Parke, R., & Fox, N.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 93-103.
- Kemple, K. M., & Nissenberg, S. A. (2000). Nurturing creativ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amilies are part of it.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8(1), 67-71.
- Kilpatrick, S. D., Bissonnette, V. L., & Rusbult, C. E. (2002). Empathic accuracy and accommodative behavior

- among newly married couples. *Personal Relationships*, 9(4), 369-393.
- Lewis, J. (1979). The relation of individual temperament to initial social behavior. In R. C. Smart, & M. S. Smart(Eds.). *Reading in child development of relationships*(pp. 45-77). New York: Macmillan.
- Matte-Gagné, C., & Bernier, A. (2011). Prospective relations between maternal autonomy support and child executive functioning: Investigating the mediating role of child language a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0(4), 611-625. doi:10.1016/j.jecp.2011.06.006
- Mehrinejad, S. A., Rajabimoghadam, S., & Tarsafi, M.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s and creativity and the predictability of creativity by parenting style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05, 56-60. doi: 10.1016/j.sbspro.2015.09.014
- Moltafet, G., Sadati Firoozabadi, S. S., & Pour-Raisi, A. (2018). Parenting style,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emotional creativity: A path analysi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30(2), 187-194. doi: 10.1080/10400419.2018.1446748
- Riggio, R. E., & Friedman, H. S. (1982). The interrelationships of self-monitoring factors, personality traits, and nonverbal social skill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7(1), 33-45.
- Rimm, S. (1983). *PRIDE: Preschool and kindergarten interest descriptor*. Watertown, WI: Educational Assessment Service.
- Shaffer, D. R. (2002). *Development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6th ed.). Thomson Learning, Inc.
- Soenens, B., Vansteenkiste, M., Lens, W., Luyckx, K., Goossens, L., Beyers, W., & Ryan, R. M.. (2007). Conceptualizing parental autonomy support: Adolescent perceptions of promotion of independence versus promotion of volition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3(3), 633-646.
- Trevarthen, C. (2011). What young children give to their learning, making education work to sustain a community and its culture.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Journal*, 19(2), 173-193. doi:10.1080/1350293x.2011.574405
- Williams, G. C., & Deci, E. L. (1996). Internalization of biopsychosocial values by medical students: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767-779. doi: 10.1037/0022-3514.70.4.767

*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employment status, emotional expression, autonomy support, play participation time and children's creative behavior characteristics. The study utilized survey data from 290 mothers of 4- and 5-year-old children atten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in Seoul.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7.0 software, which included reliability analysis, independent samples t-test, two-way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irst, mothers' employment status had a direct impact on children's creative behavior characteristics.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on had a direct impact on children's creative behavior characteristics. The difference based on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showed that mothers' employment status directly affected children's creative behavior characteristic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also significantly influenced children's creative traits. Second, mothers' autonomy support directly affected children's creative behavior characteristic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autonomy support also significantly influenced children's creative behavior characteristics. Third, the interaction between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play participation time also had a significant effect. Fourth, examining the impact of mothers' employment status, emotional expression, autonomy support and play participation time on children's creative behavior characteristics showed that mothers' emotional expression, autonomy support and play participation time positively influenced children's creative behavior characteristic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others' emotional expression, autonomy support and play participation time on children's creative behavior characteristics, emphasizing the important role of quality emotional expression, autonomy support and play participation time from mothers in enhancing children's creative behavior characteristics.

Keywords: Employment Status, Emotional Expression, Autonomy Support, Play Participation Time, Creative Behavior Characteristics

• 편 집 위 원 •

위원장	장영재
위원	서지호
	이석성
	박종민
	이봉호
간사	정영욱
	이현선
	이주영

KNOU 논문 <第81輯>

2026年 2月 28日 印刷
2026年 2月 28日 發行

編輯人	韓國放送通信大學校 論文集編輯委員會
發行人	高 晟 煥
發行處	韓國放送通信大學校
印刷處	社會文化社(☎2263-0523)
